

연구총서 10-25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and Treatment of the Investment Fraud

황지태 · 박정선 · 양승돈

■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 박정선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양승돈

정부중앙청사 경비대 상황실 부실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화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타인을 기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그 양상이 어느 특정국가에 머물지 않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내에서의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들의 국제사기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투자사기도 점차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유관기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투자사기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그 위험과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그 범죄의 양상이 더욱 정교하게 진화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정부의 수준에서도 거래(transaction)의 진위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투자사기에 대해, 역사적 조명을 통한 변화 및 발전의 양상을 파악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거래의 실태 및 유형을 살펴보면, 유형화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 연구는 범죄학의 외연을 확장하여 이론적, 방법론적으로는 기여함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사기피해방지라는 실무적 차원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연구가 재산범죄, 특히 사기범죄에 취약한 범죄학의 외연을 확장하여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연구가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이에 대처하여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무적 피해방지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연구를 수행해 준 경찰대학교 행정학과의 박정선 교수, 경찰대학교 연구
지원실 연구원 양승돈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황지태 부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0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CONTENTS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2장 이론적 논의	19
제1절 사기의 정의 및 투자사기	21
제2절 투자사기의 유형	23
1. 나이지리아 선금금 사기	23
2. 폰지 책략	24
3. 펌프덤프 책략	29
4. 집단투자사기 : 뮤추얼펀드, 기획부동산	33
5. 프라임 은행	35
제3장 대표적 투자사기의 역사적 사례 및 발생맥락	39
제1절 나이지리아 선금금 사기의 발생 맥락과 전개	41
1. 나이지리아 사기의 발생 맥락과 세계적 확산	41
2. 나이지리아 선금금 사기로 인한 국내 피해의 역사	51
제2절 범죄조직집단에 의한 온라인체계상의 범죄착취	62
1. 정보화시대의 도래	62
2. 조직 범죄집단	64
3. 온라인 지불방법과 온라인 투자사기	67

제4장 국내외 투자사기범죄 실태 분석	71
제1절 빈도분석을 통한 투자사기범죄의 실태	74
1. 유형별 구분	74
2. 범죄자 특성 : 주체, 성별, 나이 등등	82
3. 피해자 특성	87
제2절 교차분석으로 살펴본 실태	90
1. 가해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90
2. 피해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98
제5장 투자사기의 원인	105
제1절 사회구조와 문화적 수준의 이론	107
제2절 개인적 수준의 이론	108
제6장 투자사기에 대한 대책	109
제1절 경매사기에 대한 대책	111
제2절 미국 국제투자사기 대책의 교훈	111
1. 과대광고를 믿지 마라	112
2. 숙제를 하라	113
3. 국제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더 좋다는 법은 없다	113
4. 주증권기관이나 BBB와 불만을 상의하라	113
5.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114
제3절 StopFraud.gov와 같은 웹사이트의 필요성	114
제4절 미국증권거래위원회 활동의 교훈	116
제7장 요약 및 결론	119
참고문헌	125

Abstract	129
〈부록1〉 투자사기 사례	133
〈부록2〉 언론기사내용분석조사표	186

표 차례

〈표 4-1〉 분석대상 사례들의 유형별(대분류) 빈도	74
〈표 4-2〉 폰지사기의 세부 유형분류	75
〈표 4-3〉 펌프덤프의 세부유형	77
〈표 4-4〉 역외탈세 및 해외투자의 경우	78
〈표 4-5〉 프라임은행 세무사건유형	78
〈표 4-6〉 개인투자사기의 세부유형	79
〈표 4-7〉 나이지리아식 선불사기의 세부유형	80
〈표 4-8〉 기획부동산의 세부유형	82
〈표 4-9〉 투자사기 가해자의 성격구분	83
〈표 4-10〉 가해자의 수	83
〈표 4-11〉 가해자의 성별	84
〈표 4-12〉 가해자 연령대	85
〈표 4-13〉 가해자의 직업	85
〈표 4-14〉 가해자 국적	87
〈표 4-15〉 사건당 피해자의 수	88
〈표 4-16〉 피해자의 연령대	88
〈표 4-17〉 피해액	89
〈표 4-18〉 가해자 성별에 따른 범행수법	90
〈표 4-19〉 가해자 성별에 따른 사건유형	92
〈표 4-20〉 가해자 연령에 따른 범행수법	94
〈표 4-21〉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사건유형	95
〈표 4-22〉 가해자 직업에 따른 범행수법	96
〈표 4-23〉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사건유형	97
〈표 4-24〉 피해자 성별에 따른 범행 수법	98
〈표 4-25〉 피해자 성별에 따른 사건유형	99
〈표 4-26〉 피해자 연령에 따른 범행수법	100

〈표 4-27〉 피해자 연령에 따른 사건유형	101
〈표 4-28〉 피해자 직업에 따른 범행수법	102
〈표 4-29〉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사건유형	103

그림 차례

〈그림 3-1〉 가장 전형적인 나이지리아 419수법	54
------------------------------------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화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타인을 기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그 양상이 어느 특정국가에 머물지 않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에서의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들의 국제사기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투자사기도 점차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유관기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투자사기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그 위험과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그 범죄의 양상이 더욱 정교하게 진화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정부의 수준에서도 거래(transaction)의 진위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투자사기에 대해, 역사적 조명을 통한 변화 및 발전의 양상을 파악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거래의 실태 및 유형을 살펴보면, 유형화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 연구는 범죄학의 외연을 확장하여 이론적, 방법론적으로는 기여함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사기피해방지라는 실무적 차원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위 나이지리아 선금금사기, 폰지사기, 펌프덤프사기, 콜렉티브액션사기, 해외투자사기, 프라임은행 및 기타 사기 등 국내외의 투자관련사기에 대해 언론에 공개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형태, 수법, 경과 및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투자사기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고 범위를 잡으려 하였다. 투자사기의 개념이 제한적이면 연구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양한 사기 유형 가운데 더 큰 재산과 권리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 및 권리의 일부를 송금, 전송, 위탁 등의 형태로 피의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이를 크게 투자라는 개념에 포함시켰다. 다양한 투자사기의 실태 가운데 나이지리아의 선금금과 관련한 419 코드, 그리고 범죄조직에 의한 온라인 투자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투자사기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거시적 차원에서 투기적 문화의 형성,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구조적 발달, 인터넷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환경적 요소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에 따른 아노미와 개인적 긴장이 투자사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주변인물들로부터의 학습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사기범죄는 대상의 연령, 수입, 학력, 지적 수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사기범죄자들은 전문적인 지식, 세련된 매너, 친밀한 목소리, 끈질기고 설득력 있는 대화술,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능통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서 범행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경제적인 성공이 삶의 최고목표가 되어 버린 문화적 풍토에서 작은 투자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이지리아 AFF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지도층이 부패한 양상을 보이거나 경제적 성공을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적절하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할 경우 비합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라도 재산을 증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음도 이해해야 한다. 한 사회의 정치구조 및 경제구조에 따른 국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투자사기의 문제는 최근에 이루어진 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이제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조직화된 범죄집단까지 개입하여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정도로 복잡다단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차 국제수준에서의 투자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수준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전 국민이 안전하게 투자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론

서론

2011년도 1월 25일자 신문에는 코스피지수가 210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자 불법·가짜 투자자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가 올랐다.¹⁾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인터넷·케이블TV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및 가짜 투자자문업체가 2만개를 넘으며, 불법 및 가짜 투자자문을 얻으려 회원에 가입한 사람이 5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 사이트 최고 회원수는 6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경기가 회복이 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다. 경제가 어렵고 유동자금이 돌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근신(謹慎)을 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한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면 실물경제는 물론 언론을 통한 경제전망이 낙관적인 모습을 띠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기술, 기업, 원자재, 금 등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이렇듯 일반인들의 관심이 재테크에 쏠릴 때 소위 각종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자도 양산되기 마련이다. 사기는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Enron²⁾, Tyco와 같은 기업적 수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화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범죄도 다양한

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24/2011012402246.html (조선일보 2011. 1. 25일자)

2) 2001년 현재 미국 기업순위 7위에 기록되었던 Enron의 경우 2001년에 파산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Enron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휴지조각이 된 주식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타인을 기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그 양상이 어느 특정국가에 머물지 않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에서의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들의 국제사기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투자사기도 점차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유관기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투자사기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그 위험과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그 범죄의 양상이 더욱 정교하게 진화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정부의 수준에서도 거래(transaction)의 진위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투자사기에 대해, 역사적 조명을 통한 변화 및 발전의 양상을 파악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거래의 실태 및 유형을 살펴보면, 유형화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국제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 연구는 범죄학의 외연을 확장하여 이론적, 방법론적으로는 기여함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사기피해방지라는 실무적 차원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위 나이지리아 선금금사기, 폰지사기, 펌프덤프사기, 콜렉티브액션사기, 해외투자사기, 프라임은행 및 기타 사기 등 국내외의 투자관련사기에 대해 언론에 공개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형태, 수법, 경과 및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사기의 정의 및 투자사기

사기라는 용어의 한자어를 분석해 보면 속일 사(詐)에다 속일 기(欺)자를 쓴다. 사(詐)란 말(言)로 혹하는 마음을 잠시 불러일으키는(乍)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欺)란 하품(欠)이 나올 정도로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거짓으로 대하는 상황을 묘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기범죄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을 무시하고 속이는 행위를 포함한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재물이나 서비스 또는 다른 혜택을 준다고 고의로 속임으로써 실재하지도 않은 또는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불러옴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사기에 대한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기란 기만에 의한 재화와 권리의 교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하여 사기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계속해서 347조의 2(컴퓨터 등의 사용사기)에 의하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등의 지려천박(志慮淺薄)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준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판매기, 공중전화기, 기타 자동유료설비 등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등도 다 사기의 유형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이메일 등 정보통신처리기술의 발달로 정보기술을 악용한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Alfonzo(2002)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법적인 차원에서 사기가 성립된다. (1) 범법자는 의도적으로 물리적 사실(material fact³⁾)을 왜곡해야 한다. (2) 범법자는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그 왜곡된 사실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 (3) 피해자는 자신의 결정에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제 그 왜곡된 사실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이성적으로 신중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결정을 하는데 있어 그 왜곡된 사실에 의존했었을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사기란 잠재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범죄들 가운데 소위 투자사기라는 형태의 보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기범죄들 가운데에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형식의 선행료나 선금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종의 유사수신행위⁴⁾들을 비롯하여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킴으로써 주식 등의 투자수단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3) (law) A fact essential to make a case or a defense, or the absence of which negates a case or defense. 주장이나 방어를 할 때 필수적인 사실, 또는 사실의 부재는 주장이나 방어를 부정하게 된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填)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 다양한 투자사기가 존재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및 국제조직범죄집단의 사기범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실상을 알리고 그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제2절 투자사기의 유형⁵⁾

1. 나이지리아 선금금 사기

가. 나이지리아 선금금 사기의 기본특성

선금금사기는 일종의 신용을 이용한 속임수로서 범행대상은 차후에 큰 이익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큰 돈을 미리 지불하도록 설득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기 유형들의 변형된 형태 가운데 하나가 소위 나이지리아사기⁶⁾로 스페인 죄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이지리아로 불리거나 러시아로 불리는 것은 이들 조직-범죄의 전통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혀 다른 유형의 접근방법을 가지게 된다.

비록 스페인 죄수와 같은 오래된 사기수법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근대적 모습의 419 사기는 1980년대 초 석유시장에 기초한 나이지리아 경제의 하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취업에 실패한 일부 대학생들이 처음 시작한 이 수법은 석유시장에서의 불법거래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기업가들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그 후 그 대상이 서구기업가,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중반의 사기꾼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편지, 팩스, 텔렉스 등을 통한 사기성 메시지를 송달하였다.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이메일이 확산되고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의 등장으로 사기성 메일을 받

5) <http://www.spamlaws.com/internet-fraud-stats.html>

6) 나이지리아와 관련해서는 419 사기, 나이지리아 편지, 나이지리아 은행사기, 나이지리아 화폐제공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송하는 비용이 줄어들자 사기성 메일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419성 사기는 2000년대에 이르러서 아프리카의 다른 지방으로부터 모방되기 시작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필리핀, 러시아, 캐나다, 영국 및 미국으로부터 발신되는 이메일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에서의 선금금 사기는 버팔로나 디트로이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후에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겠지만 419라는 번호는 사기에 대한 조항이 있는 나이지리아 형법 419조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1992년 이를 419 사기라고 명명했다.

나. 선금금 사기의 유래

선금금사기는 훨씬 오래 전에 유행하였던 스페인 죄수 사기와 유사한데 이 수법은 협잡꾼이 피해자에게 간수를 매수해주면 출소 후 부유한 또 다른 죄수가 엄청난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다. 이보다 더 오래된 수법은 “예루살렘으로부터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수법으로 18세기 후반까지 존재하였다고 한다. 버밍엄대학 아프리카학과의 교수 Insa Nolte는 이메일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에서나 가능했던 사기가 나이지리아의 가장 중요한 수출산업의 하나가 되었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419사기가 활성화되면서 대사관과 관계기관은 419에 대한 경보를 발동시키면서 대대적인 집안단속에 나서게 된다. 아프리카 내에서는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토고, 세네갈 등이 요주의국가가 되었고 아프리카 밖에서는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요주의 국가였다.

2. 폰지 책략

가. 폰지 책략의 기본 특성

폰지책략은 일종의 사기성 투자 작전으로 다수의 개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그 배당금이 해당 조직의 기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의 투자금이거나 또 다른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충당하는 형

식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폰지책략은 다른 투자기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배당금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혹하게 되는데 그 배당금은 의외로 기대수익보다 높거나 지속적이어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쉽게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폰지책략이 광고한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책략이 지속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의 대부분은 기존의 투자자 및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들어온다.

그러나 폰지시스템은 중국적으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양이 얼마이든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의 규모는 배당금의 규모보다는 작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폰지책략은 자체적으로 붕괴되기 전에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폰지 기획자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는 등 다수의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폰지책략에 관련된 투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Bernard Madoff의 예에서도 보듯이, 비록 폰지책략이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투자자나 기업투자자는 물론 관리당국까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만할 수 있는 능력을 폰지책략은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증명해 왔다. Madoff는 폰지책략의 전략을 약간 수정하여 역사상 한 사람이 저지른 가장 큰 규모의 재정투자자 사기를 저질렀다. 검사들이 피해자들에 의해 투자된 돈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약 210억 달러, 환율 1달러당 1천원으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는 약 21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뉴욕 법원이 재판 당시 기대배당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대배당금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액은 6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64조 8천 억 원에 달한다.

나. 폰지책략의 사례

폰지책략이라는 용어는 Charles Ponzi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이러한 투자사기방식을 1920년대에 이미 사용했다고 한다. 비록 그가 이러한 방식을 처음으로 고안해 낸 사람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돈을 끌어들이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미전역에 알려지게 된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

다. 그가 처음으로 사용한 책략은 이론상 우표와 국제 반신권(international reply coupon)의 교환차액을 기반으로 이윤을 내는 구조이지만, 곧 투자자들의 돈은 선행투자자와 폰지 개인의 부를 충당하는 것으로 전용(轉用)되었다. 만약 정부나 다른 부자가 폰지책략에 가입한 사람들을 구제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다면, 책략의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책략에 받을 들여놓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란 대단히 드물다.

투자만 하면 엄청난 이익, 가령 한 달 안에 투자금의 20%의 이익을 보장하는 광고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대개 이러한 광고를 통해 광고주가 노리는 것은 재무나 경제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기망하여 금전상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물경제에 어두운 잠재적 투자자들은 정말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언어적 구성에 속아 넘어감으로써 현혹(眩惑)당하게 된다. 잠재적 피해자들을 현혹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로는 “헷지트레이딩”, “고수익투자프로그램”, “해외투자”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투자기획자는 투자자로서의 지식이 전무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투자자들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지분을 팔게 되는데 이들은 본질적으로 “신뢰농간(confidence trick)⁷⁾”의 희생자인 셈이다. 경쟁상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비밀로 해야 하는, 소위 “등록상표가 붙은(proprietary)” 투자전략을 주장하는 것은 책략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투자에 대한 선행적 혹은 객관적 사전 정보가 없기에 초기엔 단지 몇몇의 투자자들만이 적은 양의 이익을 추구하다 유인책에 넘어가게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외에 20%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추가투자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입소문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퍼져감으로써 추가보상의 기회를 잡기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폭포효과(cascade effect)를 낳게 된다. 그러나 초

7) 신뢰농간(信賴弄奸)이란 투자기획자의 능력이 마치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비치게 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가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투자기획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만큼의 경제적 지식도, 미래예측능력도 없을 뿐이다. 이들은 다만 잠재적 피해자의 무지와 무능에 편승하여 신뢰를 얻게 된다.

기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신규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일 뿐 이윤창출에서 비롯된 것은 전혀 아니다.

다. 폰지책략의 운용특성

초기에 책략이 잘 운용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큰 보상을 받은 초기 투자자들이 흔히 그들의 돈을 그 책략에 재투자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방식은 다른 어떤 투자보다 더 많은 지출을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이 책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단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내장만을 보여주면서 이 책략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기금이라는 속임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기획자들은 또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계획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이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 투자 철회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기획자는 첫 번째 투자와 두 번째 투자는 별개라는 것을 고지함으로써 자금이동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투자자들에게 인식시킨다. 만일 몇몇 투자자들이 허용된 기간 안에 자금을 회수하길 원하면, 대개의 경우엔 환불요구를 바로 이행함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에게 기금이 상환능력 면에서 안정적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

폰지책략을 궁극적으로 해부해 보면, 일정 시점에서 다음의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1. 기획자가 초기 투자자들에게 환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지게 된다.
2. 책략이 고배당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흐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가 한 번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게 되면 기획자가 약속된 배당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게 될 것이다. 배당금이 크면 클수록 폰지책략이 무너질 위험은 더 커지게 된다. 그러한 유동성 위기는 공황상태를 불러와 부도은행의 예금인출소동처럼 투자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의 물결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3. 경제의 급격한 악화(Madoff가 경험했던 2008년의 시장붕괴처럼)와 같이

외부시장의 충격은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하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근본적인 시장의 기초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Madoff의 경우, 2008년 하반기 모든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세계적인 시장경기의 하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70억 달러의 돈을 인출하려 한 후 그가 운용하던 기금은 더 이상 정상적인 모습을 띌 수가 없었다.

라. 폰지책략의 변형

1) 피라미드 책략

폰지책략과 비슷한 책략: 폰지책략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라미드책략(피라미드 사기, 혹은 다단계사기)을 들 수 있다. 이 책략은 고도의 수익을 기대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재정적 허상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많은 의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폰지책략과 유사한 형태의 하나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피라미드책략은 폰지책략과 구분된다. 폰지책략에서, 사기꾼은 피해자의 중심에 서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허브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피라미드책략에서는 신규참여자를 모집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 사실 신규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한다는 것은 배당금(회수금, 이익금)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폰지책략이 일부 비밀리에 전수되는 투자 기법(예를 들면 내부자 거래관계와 같은)을 사용하여 부유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반면, 피라미드책략은 초기투자자들에게 주는 배당금은 전적으로 신규투자자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한다.

피라미드책략은 붕괴속도가 훨씬 더 빠르는데 그 이유는 이 책략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신규투자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폰지책략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신규투자자들만으로도 그들의 재투자를 설득하고 유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다.

2) 거품

신규 참여자가 후발 참여자의 가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는 점에서(불가피하게 붕괴될 때까지는) 거품효과는 폰지책략과 유사하나 동일하지는 않다. 거품은 공개시장 (예를 들면, 주식이나 주택시장)에서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경험하는데 여기에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단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기 때문이다. 거품은 종종 “더 멍청한 놈”이론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폰지책략처럼 가격은 그 항목에 내재한 원천적인 가격(원가; 고유가격; 고유가)을 초월하게 되는데 폰지책략과는 달리 그 원가를 잘못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더 멍청한 놈 이론을 염두에 둔다면, 일부 사람들은 거품때문에 증권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된다.

3) 돌려막기

이는 가령 “폴에게 지불하기 위해 피터를 강탈한다”는 식이다. 채무기간은 만료되었는데 빚을 갚을 돈이 모자란다면 채무자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훔쳐서라도 갚아야 한다. 이 경우 폰지책략이 되는 건 아닌데 그 이유는 이 경우 채무자가 비정상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비현실적인 고배당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 사실만으로 미루어볼 때, 채무자(은행)가 최초 투자자들에게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빌리는(투자하는) 돈의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돌려막기는 폰지와는 차별화된다.

3. 펌프덤프 책략

가. 펌프덤프 책략의 기본 특성

펌프덤프 책략은 일종의 마이크로캡 주식 사기로 값싸게 주문한 주식을 높은 가격에 되팔기 위해 거짓이나 호도된 긍정적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자신이 소유

한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이다. 일단 책략의 운용자가 자신의 과대평가된 주식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면 시장은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투자자들은 돈을 잃게 된다. 펌프덤프 책략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chop stocks”으로 불리기도 한다. 과거 사기꾼들이 전화권유영업에 의존했다면,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보다 쉽고 쉬운 방법으로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쉬운 펌프덤프책략은 스팸메일을 통하거나 소위 “보일러룸(boiler room)”이라고 불리는 텔레마케팅⁸⁾을 통해 이루어진다. 많은 경우 기획주식업자(stock promoter)는 긴급뉴스에 대한 내부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미끼를 놓는다. 편파적이지 않은 추천정보를 흘리는 뉴스문자, 채팅방이나 스팸메일을 통해 전파되는 메시지들은 모두 특정 주식의 가격이 오를 예정이니 재빨리 그 주식을 구매하라는 주문들이다. 소문이 떠도는 주식은 곧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린다.

그러한 권유성 이메일이나 독촉성 전화 등의 투자권고를 받은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매입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수요를 창출하여 주식가격을 상승시켜버린다. 겉보기에 실제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듯 보이는 주식은 대중들에게 과열상태에서 높은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되고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게 된다. 책략의 뒷무대에서 주식가격을 조정하며 코웃음을 치던 책략가들은 자신의 몫을 내던지면서 주식조정을 끝내버리게 되고, 결국 주가는 폭락을 거듭해 대부분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음에 샀던 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주식을 팔거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러한 계략을 자주 쓰는 사기꾼들은 소위 “페니스탁(penny stocks)”이라고 알려진 값싸고 거래가 혼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활용한다. 미국에서 이러한 주식들은 NYSE⁹⁾(뉴욕증권거래소)나 NASDAQ¹⁰⁾(미국장외시장통보시스템)과

8) 외판 사무실이나 방을 임대하여 다수의 텔레마케팅 종사자를 고용한 후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판매하는 방식.

9) NYSE(New York Stock Exchange)는 우리말로 뉴욕증권거래소이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거래소로 1972년 거래업자들에 의해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거래되고 있는데 주식거래의 경우 미국 총주식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채권거래는

같은 정규 시장보다는 OTC 게시판이나 분홍시트와 같은 비정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 이유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가용한 정보가 거의 없거나 믿을 만하지 못해야 주가를 조작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주로 AIM이나 OFEX와 같은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작은 회사들이다.

나. 펌프덤프 책략의 사례

펌프덤프책략의 구체적 예로서는 Jonathan Lebed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소위 닷컴시대에 주식열풍이 휘몰아쳐 와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의 주식문자게시판에 목을 매고 있을 때 15세의 Lebed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얼마나 쉽게 펌프덤프책략을 악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는 페니스탁을 사서 주가상승에 관련된 내용을 문자게시판에 올렸고 그 정보를 보고 다른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그 주식을 샀을 때 Lebed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안긴 채 주식을 팔아 많은 이윤을 챙겼다.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¹¹⁾ 주가조작혐의로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SEC와 관련된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ebed는 소송절차를 밟지않고 전체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지불하고 합의로 해결하였다. 그는 잘못을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채 앞으로 증권조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을 했다.

엔론사태: 2001년 4월 엔론이 파산하기 전에 엔론 경영진은 월가의 최고로 노련한 분석가들을 조롱하는 불법행위 이외에도 정교한 펌프덤프책략에 가담하였다. 엔론과 관련하여 야후 게시판에 게재된 무명의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회사는

장외거래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 10)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전 미증권업협회(NASD)가 운영하는 미국 장외시장 시세보도시스템이다. 1971년 개설된 나스닥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거래 당사자에게 장외시장의 호가를 자동적으로 제공하여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일종의 자동시세통보시스템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사 등 하이테크산업의 기업들이 다수 상장돼 있으며 거래량면에서 이미 뉴욕증권거래소를 추월했다.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인터넷 등 첨단관련주나 벤처기업 주식이 대부분이다.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 11) 우리나라의 금융관련감독은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는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며, 금감원 원장은 금감위 원장과 별도로 임명된다.

기본적으로 지푸라기로 지은 집과 같아 언제든지 날아갈 판이었고(house of cards), 투자자들은 그래도 주가가 받쳐줄 때 곤경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예언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엔론은 거짓으로 이윤을 내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주가를 부풀렸고 이상한 분식회계기법을 동원해(using questionable accounting practices) 실제 숫자를 감추고 있었다. 29명의 회사 경영진은 이 회사가 파산되기 직전 10억달러어치의 주식을 부풀린 가격에 팔아치웠다.

정부수여책략: 때때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윤을 낼 수 없는 기술(예: 에탄올)에 정부가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초기에 이윤을 내지만 결국 기업의 전체비용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변형된 펌프덤프책략이 가능한 인위적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다. 펌프덤프의 운영특성

펌프덤프책략은 스팸메일을 통해 전파되는데 전체 스팸이메일메시지의 15% 정도가 펌프덤프책략이다. 2004년 1월에서 2005년 7월 사이에 75,000건의 메일계좌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 본 결과 스팸메일발송자들은 이 방법을 통해 약 6%의 회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팸메시지에 응답을 한 수신자들은 대체적으로 이틀 내에 전체 투자액의 5% 정도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Bohme와 Holz의 연구에 따르면 스팸메일의 투자목표가 된 주식은 거의 대부분이 주당 가격이 5달러 이하의 페니스탁이었고, 주거래소를 통해서는 거래가 되지 않거나 최소한의 거래만이 이루어지는 주식이었으며, 단기투자를 하기엔 부적절한 주식들이었다. 스팸메일발송자들은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에 주식을 산 후 메시지를 보낸 당일에 바로 팔아버리는 일일거래(day-trade)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펌프덤프책략은 다른 유형의 스팸(예를 들어 선급금 사기메일이나 복권사기메시지)들과는 달리 수신자가 가상의 당첨금(winnings)을 받기 위해, 혹은 가상의 은행계좌에 돈을 이체하기 위해 스팸메일발송자와 사전에 접촉해야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펌프덤프 스팸메일의 발원지를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너무 작아 찾기 힘든 주식형태의 그림 이미지를 포함하는 미니멀리스트(최소의 수단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사람들) 스팸메일이 유행하게 된 계기를 제공하였다.

일부 펌프덤프 스팸은 TD Ameritrade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뚫고 들어간 것으로까지 추적된다. 2005년 10월 나나(nanae: 이메일 유스넷 뉴스그룹)에 포스팅한 몇 사람은 지금까지 발생한 데이터 손실사례 가운데 3번째로 컸던 그 당시의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펌프덤프 스팸메일을 Ameritrade에게 주었던 가용한 이메일주소에만 보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은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었던 셈이다.

계속된 문제를 살펴보면, 2007년 3월 30일 순간접속자수가 급증하게 된 기사에 따르면, TD Ameritrade에게만 주어진 단 하나의 이메일 주소가 보통 스캐머(scammer)들에게는 주요 타겟이 된다. 추측컨대 TD Ameritrade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 가운데 하나가 비밀유출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2년 후 TD Ameritrade는 6백30만명의 고객 SSN(일종의 주민번호)번호,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집주소, 거래기록, 계좌번호, 계좌잔고, 생년월일 등을 담은 회사의 주 데이터베이스에 구멍이 뚫렸었고 유일하게 도난된 그 주소로 펌프덤프 스팸을 받았었음을 발표하였다.

라. 펌프덤프의 변형

펌프덤프스캠의 변형인 “짧게 왜곡”이라는 것은 펌프덤프와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먼저 주식을 사서 팔기 전에 인위적으로 값을 올리는 대신, “짧게 왜곡”에서는 스캐머(scammer)들이 펌프덤프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을 통해 먼저 주식을 판 후 인위적으로 가격을 더 낮춘다. 스캐머(scammer)들은 그 후 낮은 가격에 주식을 되사는 것이다.

4. 집단투자사기 : 뮤추얼펀드, 부동산투자(기획부동산)

가. 개요

집단투자책략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실현가능하지

않을 때 보다 넓은 범위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 함께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은 서로 적절하게 배분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집단투자책략은 종종 뮤추얼펀드, 투자펀드, 관리펀드, 또는 단순히 펀드(뮤추얼펀드는 미국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함)를 지칭한다. 전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 집단투자를 위주로 발달해 왔고 이러한 것들이 주요 증권교환에서의 모든 거래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집단투자는 대규모의 투자를 기획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지리적 영역(신흥국가 또는 유럽 등)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특정한 산업부문(기술, 전자 등)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나라에 따라 정책입안자, 친숙성, 유동성위기의 문제 등에 의해 인식되는 국가적 관심영역을 반영하여 국내 시장에 대한 편향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투자목표, 과거투자성적 및 수수료 등에 근거하여 펀드가 선택되기도 한다.

나. 부동산투자 부동산 신탁¹²⁾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높은 가치를 가진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와 매매에 있어 일부 개인이나 법인과 같이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만이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많은 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마치 주식을 투자하듯 부동산과 관련된 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대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 부동산투자는 REIT(리츠)회사의 투자, 은행의 부동산투자 신탁 및 부동산펀드로 대별할 수 있다.¹³⁾

12) <http://blog.naver.com/eyeos?Redirect=Log&logNo=19123224>

13) 부동산투자신탁은 운영의 주체에 따라 회사형과 계약형으로 나뉘기도 한다. 전자가 부동산투자법에 따른 별도의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여신업무가 추가 되는 은행에서 신탁업무를 통해 부동산신탁과 같은 금전신탁상품의 한 종류로 운영하는 것이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나 전자의 장점은 투자주체의 안정성과 책임성, 유동성과 환금성, 주주권한 등이고, 후자의 장점은 넓은 선택의 폭, 거래의 투명성, 명확한 배분 등이 있다. (<http://blog.naver.com/dhouo?Redirect=Log&logNo=30009273142>)

부동산 투자신탁(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아진 자금을 전문인력을 통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REIT 구조는 뮤추얼펀드가 주식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에 대해 유사한 구조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REIT는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적인 부동산투자신탁은 다른 회사의 보통주 할당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주식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다.

리츠회사에서 운영하는 CR리츠는 기업구조조정(CR: Corporate Restructuring)에서 파생된 용어로 대부분 5년이 되는 만기가 돌아오면 그동안 투자했던 부동산을 되팔아 거기에서 오는 이윤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공모CR리츠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유동성이 높으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은행에서 판매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펀드를 만든 후 부동산대출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주는 방식의 상품이다. 이는 계약기간내 환매가 불가능하고 대체로 1년이란 짧은 계약기간을 갖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펀드란 개인들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돌려준다는 점에서는 앞의 두 상품과 유사하나 전자에 비해 운용규모나 운용방식의 규제가 적은 점, 수익모델의 다변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소액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할 수 있다.

5. 프라임은행¹⁴⁾

가. 프라임은행의 기본특성

프라임뱅크 프로그램은 은행의 이름을 담보로 투자자들의 펀드를 이용하여 속이는 수법이다. 이들은 보통 투자자가 지불한 펀드가 “프라임은행”이 가지고

14) <http://www.sec.gov/divisions/enforce/primebank/howtheywork.shtml>

있는 해외시장의 은밀한 재무수단을 구매하고 유통함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올려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재정적 수단은 물론 그들이 그 수단을 유통시킨다고 하는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책략이 마치 합법적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획자들은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공식적인 문서를 유통시킨다. 판매자들은 여러 번에 걸쳐 잠재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마치 월스트리트나 런던, 제네바 혹은 다른 세계적인 재정센터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무기관 종사자들에게만 보장된 프로그램에 특별히 접근할 권한이 있다고 유혹한다. 투자자들은 또한 위험부담은 전혀 없이 100% 혹은 그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사기대상으로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선단체 및 다른 비영리단체가 될 수도 있다. 이 책략의 중개인은 놀랄 정도의 뻔뻔함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들은 USA today나 Wall Street Journal과 같은 전국 일간지에 광고를 하기도 한다. 반면 일부 중개인들은 “주력은행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꺼리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향후 투자자들에게 그 프로그램은 주력은행의 도구를 전혀 수반하지 않는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그들이 쓰는 용어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설득전략 즉 그들의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재무수단을 사용한다는 선전은 동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러한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何時)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나. 프라임은행의 운용특성

프라임은행의 수법을 조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1) 과도한 배당 보장

이 투자사기의 전형적인 설득전략은 한 달에 20%에서 200%까지의 엄청난 이윤을 제공하거나 보장하면서도 리스크는 하나도 없다고 宣傳하는 것이다. 비현실적인 이윤을 보장하면서도 리스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은행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2) 허구적인 재정 도구(수단)

허울 좋은 평판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주은행사기책략(PBS)도 이른바 “재정수단”이라는 핵심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상위 100대 세계 은행, 중기은행권, 발행사채, 스탠바이 크레딧, 은행 보장, 오프쇼어 트레이드, 톨프로그램, 은행발행 사채, 고수익투자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종류의 변형된 상품의 채무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중개인들은 제안된 재무수단들은 세계은행, IMF, 재무부, ICC, 국제중앙은행 등 거물급 기관이 발행, 거래, 보증 및 승인한다고 끊임없이 뺨을 친다.

3) 극단적인 보안

중개인들은 모든 거래가 관계자 모두의 엄격한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고객이 문의해볼 곳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래가 은행산업에서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문의가 쇄도하면 은행이나 관계당국자가 그러한 재무수단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투자자들은 비밀유지서약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4) 배타적인 기회

중개인들은 흔히 이러한 유형의 투자기회가 특정인을 초대함으로써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소수의 특별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며 역사적으로 부유한 엘리트들만을 위해 봉사해왔다고 뺨칠 수 있다.

5) 과도한 복잡성을 강조

거래에 누가 참여하는지,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등 투자설명이 대단히 모호하다. 중개인들은 오히려 재무수단 자체가 비전문가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기술적이고 복잡하다는 말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함을 감추려는 속셈을 드러내기도 한다.

제3장

대표적 투자사기의 역사적 사례 및 발생맥락

대표적 투자사기의 역사적 사례 및 발생맥락

제1절 나이지리아 선금금 사기의 발생 맥락과 전개

1. 나이지리아 선금금(Advanced Fee Fraud: AFF)¹⁵⁾ 사기의 발생 맥락과 세계적 확산

국제적인 사기성 책략(fraudulent schemes)에 대비하여 각국 정부 및 국가기관들은 자체적인 대비책과 국제형사공조를 통해 국제사기의 충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및 방지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분명 사기성 책략은 초국가적인 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sed crime)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며, 국제적 조직범죄라는 인식 가운데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은 특정 유형의 사기성 책략과 관련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악의 축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대륙의 일반 시민들, 기업가들, 나아가 정부기관이나 재무기관들은 국제조직범죄의 피해자가 될 취약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사기범죄의 복잡성과 난해성이 낱알이 교묘해짐에 따라 전지구적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을 고도로 위협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악의 근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들 나라의 국민 및 기업들은 사기성 책략의 피해자가 될 소지도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기성책략의 가해 및 피해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15) 이 부분은 Adogame(2009)의 연구를 정리한 것임.

대처방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분석틀을 가지고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이를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국제적인 사기성책략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은 나라가 나이지리아이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소위 선금금(AFF, 일명 419¹⁶) 사기와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국제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공공연하게 비난받았다. 나이지리아 형법 419조는 1995년 4월 대통령 칙령 13호 (1995년도에 13번째)의 발효로 개정 및 확장되면서 선금금사기죄(AFF) 및 기타 사기성범죄에 대한 칙령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동법에서 규정한 AFF 상거래 신용사기(commercial scam)는 나이지리아 국내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개인 및 기업체들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놀라운 규모의 대상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된 부정한 교사 및 책략의 충격, 중요도 및 규모를 보면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국내 (나이지리아 정부 및 은행) 및 국제(미국정보기관과 스코틀랜드 도시사기대책반)적인 수준에서 은밀한 사기꾼들에 대해 가차 없는 법집행을 행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사실상 사기성 책략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만연하게 된 데에는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계기가 되었다.

Adogame(2009)는 1970년대 후반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경제 및 사회-정치적 격동과 불안정이 나이지리아에서 사기성 책략을 출현 및 강화시킨 지렛대의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청소년들은 점차적으로 인터넷을 세계로 진출하는 출입문이자 정보를 전달하는 도관(conduit)으로 만들었으며, 자신의 불법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화 하는 등 인터넷을 유용(流用)하였다. Adogame은 150개의 문서화된 사기편지를 분석하여 이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로 발전한 범죄조직이 얼마나 큰 복잡성과 난해성을 통해 개인과 기업을 희생해왔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초국가적 범죄망이 가변적 자율성과

16) 419란 나이지리아 형법 제419조를 일컫는 말로 특정한 사기행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19가 이슈화되면서 나이지리아의 호텔 및 숙박업소는 의식적으로 419란 번호를 회피하게 되었고 외국인을 제외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나이지리아인들은 419라는 번호를 가진 방을 예약하거나 투숙하기를 꺼려한다고 한다. 이러한 숫자적 신성화는 “사기미스테리”의 결과 대중의 인식에 의해 형성되었고 동시대 나이지리아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이루고 있다.

탄력성에 기초하여 어떻게 발전하여 왔으며 그에 대한 개인과 국가 및 기업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준다.

가. 나이지리아 선금금 사기의 전형과 역사적 발생맥락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혹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기승을 부려온 이른바 “나이지리아 국제무역사기 혹은 나이지리아 국제투자사기”는 그 전형적인 수법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변형적인 유사수법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 국내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 전형적 수법은 통상 정치적 비자금 이체나 투자 및 대출 등을 미끼로 일정액의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선불사기(advanced fee fraud, AFF)이고, 사기행각의 주체는 주로 나이지리아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나이지리아식 사기 유형은 경제범죄에 대한 조항을 담은 이 나라 형법 제419조에서 유래한 속칭 ‘419수법’이다. 중앙은행(CBN)이나 석유개발공사(NNPC) 등의 임원을 사칭하고 막대한 규모의 지하자금이나 불법자금을 관리·세탁해 줄 경우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기업인들을 유인한 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탈취해 가는 것이다.

나이지리아는 이와 같은 국제적 사기행각의 진원지이자 현재까지도 핵심적인 범죄 요새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수법을 이용한 범죄의 주체는 가나, 카메룬, 베냉 등 경제적으로 낙후된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외 다른 대륙의 나라 사람들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수법 역시 계속 진화하여 매우 다양해졌고,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수법의 국제적 투자사기범죄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나이지리아 국제투자(무역)사기”는 나이지리아인에 의한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라는 좁은 개념의 틀을 벗어나 비나이지리아인에 의한 투자사기 및 변형된 사기수법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 일컬어지기도 한다.

나이지리아 국제투자사기의 근원적인 배경은 나이지리아(Nigeria)가 가진 극심한 사회경제적 모순으로 형성된 범죄조직¹⁷⁾과 정치적 부패이고, 그 직접적인

발생 배경은 1970년대의 석유파동, 그 중에서도 특히 1970년대 후반의 제2차 석유파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원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특히 제2차 석유파동 이후엔 이전까지 페르시아만 연안의 석유에 주로 의존하던 나라들이 나이지리아 등으로 원유수입처를 다변화함에 따라,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 나이지리아에는 막대한 오일 달러가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문제는 1960년 독립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온 극도로 부패한 군사정권 및 그와 연계된 불합리한 사회체제에서 파생된 범죄조직과 엄청난 규모의 오일 달러 유입과정 사이에 부정적인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제2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대량 유입되는 달러로 인해 타국으로부터 나이지리아로의 물품수입도 급증하면서 나이지리아 당국이 수입절차상 필요사항을 허가하는 일도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남용이 발생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허가권 남용은 상시적인 뇌물수수로 이어져 그 비용 충당을 위한 사기행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사기의 전지구화 : 초국가조직범죄로서의 AFF

역사적으로 AFF 책략은 머리 좋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어리어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이나 재산을 속여 빼앗기 위해 개발해내는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Joseph Weil¹⁸⁾의 명언 “우리는 아무 대가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17)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나이지리아는 1960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래 수십 년 간 군부통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경제적 빈곤이 가중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들은 고질적인 정치 불안과 경제난을 피해 유럽과 북미로 이주하였으나 구직이 어려워지자 현지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각종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에 유럽과 북미 각국은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의 위협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범죄조직원 및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였다. 그러나 추방위기의 범죄조직원들은 불법 체류하며 계속 범죄를 자행하거나 제3국으로 진출하여 범죄조직을 구성, 금융사기 등 더욱 지능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은 생계형 가족단위 범죄집단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전세계에 걸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제범죄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국가정보원, 2006,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은 이렇게』 : pp6-7.

18) Chicago 출신의 유명한 사기꾼(scam artist, con artist). Chicago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Weil(1875-1976)은 고교시절 학교를 중퇴하고 수집가로 일했다. Chicago의 유명한 신용사기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면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AFF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에서 유를 얻는 것이다. 일정한 액수를 미리 지불하면 그 보상으로 엄청난 돈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교사(狡詐)하는 것이 잠재적 피해자들을 사기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사기에1) 1840년대 호주 시드니에서는 Mr. Monies라는 사람이 Mick Bell이라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하였다. 당시 시드니에서 가장 호방하고 무례한 방랑자로 알려진 가난뱅이 Mick Bell이 Hacking 강어귀로 들어오는 유령선에 식민지로부터 밀수한 2만 파운드어치 상품을 싣고 있다는 말에 Mr. Monies의 귀가 솔깃해진 것이다. 그는 밀수를 돕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였으나 결국 사기로 드러났고 Bell은 기소되어 2개월의 옥살이를 하였다.

사기에2) AFF의 변형으로 “스페인 죄수(Spanish Prisoner)”라는 것이 있다. David Mamet 감독의 영화제목을 따라 명명된 이 사기는 18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야기에 따르면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자기가 신분을 속이고 스페인의 감옥에 투옥된 고위직의 부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 죄수가 신분을 밝히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분을 밝힐 수 없으며, 그의 석방을 담보하기 위해 친구인 자신(협잡꾼: confidence trickster)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기꾼은 피해자가 돈을 조금 내면 죄수가 돌아올 때 큰돈으로 되갚아줄 뿐 아니라 죄수의 아름다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돈을 넘겨주는 순간 어려움이 발생하여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고 결국 피해자는 파산하여 더 이상 줄 돈이 없을 때쯤에는 부자죄수도, 결혼할 딸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늘날에는 고수익투자(High Yield Investment:HYI) 또는 ‘주은행사기’(prime bank fraud)라는 것과 재정기관사기(Financial Institution Fraud: FIF)를 포함하는 전지구적 사기집단 연결망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제삼자(third party), 접속수단(access device), 돈세탁(money laundering), 컴퓨터, 통신망, 위조품(counterfeit),

(confidence man; or con man) Doc Meriwether에게 사사받은 Weil은 1890년 주성분이 빚물인 Meriwether의 만병통치약을 대중에게 판매하면서 사기경력을 쌓아간다. 전기(傳記)작가 Brannon은 Weil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신기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Weil은 100여년에 걸친 전 생애에 걸쳐 8백만 달러를 훔쳤다고 한다(www.google.com).

신용도용(identity theft) 및 위조(forgery: 돈, 문서, 그림 등의 위조) 등이 있다.

나이지리아 고유의 AFF 형태는 나이지리아의 국외에 존재하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미국, 유럽, 캐나다, 홍콩, 일본 및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셀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어리버리한 해외 수취인들(개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나이지리아인의 이름으로 회람장(circular letter)이나 이메일(e-mail)을 돌려 유혹하는데 이들은 국제사기꾼 조합(international syndicate of fraudsters)의 일원으로서 그들 스스로가 가짜사업 거래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선금금사기(Nigerian Advance Fee Fraud: NAFF)라는 명칭은 일부 정확한 면도 있지만 대다수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전 지구적으로 분포한 국제적 규모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문제가 전지구적 규모의 문제라는 것은 단지 이것이 끌어들이고 있는 대중적 관심과 눈길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고 있는 국내 및 국제안보기관들의 엄청나고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NAFF가 널리 퍼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 수법의 신속성과 난해성에 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판자로 막히면 포기하기 보다는 판자에 구멍을 뚫어 살아나는 쥐의 생명력처럼 나이지리아인들이 위기속에서 보여주는 공격성과 투자를 역설적으로 상징한다고 하겠다.

둘째는 서구 매체들이 아프리카로부터 나오는 뉴스들을 이국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관행 때문이다. 아프리카에 대해 서구인들이 부담 없이 다가가갈 수 있는 뉴스들은 전쟁, 부패, 에이즈, 기아와 배고픔과 같은 나쁜 뉴스들뿐이다. 비록 나이지리아가 “절름발이 거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지만 다른 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 나이지리아의 인적, 자연적 자원은 대단한 부러움이었다. 이런 이유로 Yoruba나 Hausa와 같은 서아프리카 민속집단에게 있어 나이지리아는 사업이나 정치, 사회적 연대에 합법성을 덧입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으며, 결국 이로 인해 거의 모든 AFF가 어느 정도는 마치 나이지리아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되면서 사기하면 나이지리아가 생각나게끔 하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다. 오일붐에서 오일둠으로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이지리아는 풍부한 천연자원, 특히 당시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한 석유수출로 인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년도 지나지 않아 국부의 태만한 관리로 인해 풍요의 뜻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부패한 엘리트들의 관행은 군부와 민간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이어지고 외국산업 및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국가의 생활수준을 전례 없이 추락시켜버렸다. 결국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이 엄청난 융자금마저도 유용함으로써 국민들만 빈곤과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였다.

경제적 규제의 철폐¹⁹⁾와 정치적 보조금의 어려운 현실로 인해 동요된 가운데 일부 나이지리아인들은 전례없는 비인간적 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하나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나이지리아 출신 국외거주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사기적 책략을 고안하여 기금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나이지리아 국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돈이 압수당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구 국가로 자산도피를 해야 한다는 설득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다른 하나는 일종의 애국적 주장으로 식민지 시대에 도난당한 국부와 자원을 서구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전략적 펀드를 조성하여 주도적으로 자원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부 아프리카인들은 살아남았고 결국 전지구적인 대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라. AFF 책략의 작동기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발생한 사기성 책략은 수많은 형태와 규모를 가지고 진화해왔다. 첫 번째 특징은 사기꾼과 잠재적 피해자 간에 나이지리아 도심에서 물리적 접촉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나이지리아의 남서쪽 항구도시 라고스(Lagos) 거리에서는 스마트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로부터 집중포화적 질

19) 우리나라도 DTI, LTD 등의 규제를 뚫으로써 예상되는 fraudulent scheme의 부활에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문공세를 받는 것이 흔하다. 기발하고도 난해한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이들 젊은 로컬 사기꾼들은 억지공세를 해낸다. 멀리서부터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프로파일을 평가한 뒤 이들은 접근방식과 질문을 달리 한다. ‘excuse me’를 ‘excuse mua’라고 한다거나 ‘I don't speak good English’를 ‘me no speak good English’라고 하는 등 일부러 어눌한 영어를 하면서 프랑스에서 TV, 냉장고, 에어컨 등을 신고 왔는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것을 팔고 프랑스로 돌아가고자 하니 좋은 사업파트너가 되어 이 물건을 사라고 종용(慫恿)한다. 물론 잠재적 피해자의 인상과 성격 및 이해관계에 따라 돈세탁 등 다양한 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사기꾼들은 대체로 팀으로 활동하는데 한 갱 멤버가 잠재적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붙이면 피해자 몰래 제 3의 인물이 다가와 그들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척을 한다.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을 보이면 그는 이미 자기가 깨닫기도 전에 포식자의 먹이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물질적 강탈이나 조작이 이루어진다. 피해자로부터 상당량의 돈을 확보했거나, 혹은 피해자가 이상할 정도로 충실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불행을 곱씹어볼 때쯤이면 이미 그는 사라져버린 후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접촉전략은 이미 로컬 수준에서만 사용되던 구식이 되어 버렸고 전지구적 수준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와 체력이 요구된다.

1980년대 이후부터 그 전에 보였던 우편편지, 대량메일, 우편배달원편지 및 팩스메일 등은 점차 전화(Telephone)와 복잡한 매체로 대체되었다. 인터넷과 이메일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혁명은 AFF의 모습, 속도 및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Findlay(1999)에 의하면 범죄의 전지구적 변화의 차원에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였다. 돈거래에서 신용거래, 재산의 교환에서 정보의 교환,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전지구적마켓형성 등 자본 및 거래의 전지구화는 대상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무궁무진한 범죄를 가능케 하고 있다. 범죄는 이제 전지구적 문화이자 소비자주의의 모든 것으로 부상하고 있다 (Findlay, 1999).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이메일이 전적으로 새로운 매체라고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AFF관련 서신교환은 이메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향을 띠지만

이 역시 전통적이고 구식적인 방식이 되었다. 다만 인터넷 사기의 전략적 측면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즉 과거에 돈 또는 신용에 주된 관심을 보였다면 요즘에는 신상정보를 훔치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다. 잠재적 사기꾼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신은 노출시키지 않은 채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과 인터넷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로 인해 속기 쉬운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지만 실제 그들의 피해정도는 파악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이메일과 인터넷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확장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메일이 깊숙히 침투하다 보니 웹서치엔진인 구글에서조차 이들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들이 침투할 수 있는 대상은 .aol, .com, .net, .uk 등 무궁무진하다.

마. 조직범죄의 전지구화

AFF 문제가 전지구적 관심과 대중성을 띠게 되면서 많은 대응책이 마련되었지만 국내 혹은 국제적 수준에서 취해진 모든 규제 및 방지책들은 별 소용이 없어 보였다. 주된 이유로는 첫째, 취약하고 속기 쉬운 피해자들의 도움 덕택이고 둘째, 날이 갈수록 지능화해가는 범죄자들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에 진행된 범죄네트워크의 변화와 탄력성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보다 넓은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과거 단순히 선금금을 요구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이제는 주요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되는 광범위한 조직범죄적 차원에서 이를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이들은 이제 AFF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도용, 신분위장(false identity) 및 위조이민(위조여권 및 비자)사기와 깊숙이 연계되어 있고 심지어는 국제마약밀매에까지 마수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책략을 통해 마련한 펀드는 마약밀매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돈세탁까지 할 수 있다. AFF가 감지하여 기소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Findlay(1999)는 “지구화가 범죄에 힘이 되기 때문에 범죄는 지구화에 도움을 준다.”는 말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과거 범죄가 사람, 장소 및 기관을 포함하는 사회적 현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범죄 및 그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그 사회적 맥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맥락이란 한편으로 물리적 공간, 제도적 과정, 관계의 유형 및 개인별 변이 등을 포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과도기적 상태(transitional state)로서 그 안에서 범주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및 경제적 결정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국지적 징후를 넘어서서 범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준에서의 맥락적 분석이 상호 비교될 필요가 있다.

역동적, 과도적 현상으로서의 지구화가 범죄 및 통제와 맺는 상호작용은 단순한 인과적 관계망²⁰⁾을 훨씬 뛰어넘는 현상이다. Findlay(1999)에 따르면 “거리의 범죄가 국지적인(local) 이슈이고 다국적 범죄가 보다 지구적인(global) 것이라면, 양자에게 공통적인 중요한 맥락적 주제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양자를 모두 이해하는데 불가분한 필수요소가 된다. 맥락 안에서의 범죄를 상호작용적으로 감상하는 것이야말로 전지구화를 밀어붙이는 힘으로서의 범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며, 역으로 지구화로 인해 범죄가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범죄는 더 이상 범죄자, 가해행위 및 피해자로 대표되는 것에 제한적으로 머무를 수 없다 - 그들은 지구화된 마을에서는 국외자들이다”. 결국 아프리카에서 국가 및 경제의 범죄화 역시 부패한 아프리카의 리더십과 그들의 외부협력자들이라는 범위 안에서 위치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와 같은 외국의 정부, 다국적 혹은 국제 기구들과의 공조는 멸망으로 이르는데 가시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과의 공조인 셈이다.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있어 419는 이제 단순히 AFF 사기에 관련한 사람들만을 일컫는 용어가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와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와 도용은 보다 넓게 확장되어 대중들은 그것이 개인이든 정부든,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또는 다국적 기업이든 거의 모든 개체가 모든 유형의 강제징수, 착취 및 강탈에 관여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 지구화 ==> 범죄 및 범죄통제; or 범죄 ==> 지구화

2. 나이지리아 선금금 사기로 인한 국내 피해의 역사

나이지리아인에 의한 국제투자사기가 국내에 처음 보도된 것은 1981년²¹⁾이다. 그 내용은 1980년 9월경 국내 S무역상사가 당시로서는 사실상 아프리카 지역과의 첫 무역거래국²²⁾이다시피 하였던 나이지리아로부터 타이어 수출 상담을 받고 물품 선적을 완료하였지만 수출대금 수만 달러가 들어오지 않은 사례였다. 아무리 기다려도 수출대금이 들어오자 앓자 S사는 나이지리아 현지에 관계자를 직접 파견하여 확인하였는데, 확인결과 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L/C)²³⁾에 기재된 바이어(buyer)와 은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위조신용장에 의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주의의 초점은 국제무역 확대에 따른 일반적인 신용장사기 등에 있었지 “나이지리아인에 의한 혹은 나이지리아라는 명칭과 관련된 특별한 유형을 가진 사기극”에 있지는 않았다²⁴⁾.

이 보도 이후 1980년대에는 “나이지리아인에 의한 국제무역사기”에 관한 기사가 크게 두드러질 정도로 눈에 띄지는 않다가²⁵⁾,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

21) “신용장도 믿을 수 없다”, 1981년 9월 15일자 매일경제신문 제7면 참조. 이보다 앞선 1980년에 가짜 원유 브로커에 관한 기사 및 원유 브로커가 가장 많은 나라로 나이지리아를 지적한 기사가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한 직접적인 사기피해가 있었다는 기사는 아니다(“가짜 원유 브로커 러시”, 1980년 12월 12일자 경향신문 제2면 참조). 단, 1980년의 기사는 나이지리아 투자사기가 대략 1970년대말부터 1980년대초반에 걸쳐 주로 원유거래와 관련해 발생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일 수는 있다.

22) 참고로, 1980년대 초반 제5공화국 자원외교의 결과로 아프리카 열풍이 발생하였다(“경제외교에 아프리카열풍”, 1981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 제3면 참조). 1980년 이전에는 나이지리아는 물론 아프리카와의 제대로 된 무역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3)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자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신용장 [信用狀, letter of credit] | 네이버 백과사전.

24) 이 기사(“신용장도 믿을 수 없다”, 1981년 9월 15일자 매일경제신문 제7면)에서 예로 든 해외사례는 1975년에 발생한 2천5백만달러 규모의 오스트리아 신용장사기사건이었다.

25) 1980년대 이미 여러 외국에서는 나이지리아 투자사기피해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지만, 이 시기 국내에서는 그와 같은 보도가 거의 없었다. 1983년 매일경제신문에 “불량 바이어 가려

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 직접적인 국내 피해사례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한국은행 런던 사무소에서 보내온 주의령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²⁶⁾. 이미 당시 해외에서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인데, 당시 언론에 보도된 문제의 영국계 유명은행을 만든 범인들은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인들이었고 그 수법은 앞서도 언급했던 신용장(L/C) 사기²⁷⁾였다.

이어 1991년 하순에 나이지리아의 한 유명업체가 국내 종합상사들을 대상으로 “가장 전형적인 수법”을 시도한 사건²⁸⁾이 발생하였다. 무려 2억4천여만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국내 종합상사들에게 팩시밀리로 보낸 것이다. 팩스 서한에는 “자금 관리의 대가로 그 돈의 일부를 사례비로 주겠다, 2억4천여만달러는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의 임원들이 불법적으로 유용하고자 하는 돈이다”라는 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백지서한과 견적 송장(送狀),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빠뜨리지 않았다. 다행히

달라”는 제목의 기사(1983년 8월 8일자 매일경제신문 제2면 참조)가 실린 적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를 미루어 짐작컨대 국내에서 나이지리아발 무역사기 피해사례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 참고로, 이 기사에서 당시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이 집계한 블랙 바이어(black buyer) 2순위가 나이지리아(250개사)였다. 하지만 그 1순위는 미국(315개사)이었다는 점, 기사가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나이지리아가 아닌 홍콩 바이어들의 거액 수출사기사건이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나이지리아발 무역사기사건이 전면에서 부각된 내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신 1981년(“해외 합작공장 설립 8백명 8억 사취 유명회사”, 1981년 1월 30일자 동아일보 제7면 참조)과 1983년(“아프리카 취업사기 2명은 검거 들은 수배”, 1983년 2월 25일자 경향신문 제11면 참조)에 각각 나이지리아 취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국내인들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적은 있다. 이 중 1981년 사건을 일으킨 범죄인들 중 몇 명은 나이지리아로 잠적하기까지 하였다(“한탕 도피... 범법자의 출국”, 1981년 7월 23일자 동아일보 제3면 참조). 이는 당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 연관된 이른바 ‘아프리카 붐’을 이용한 사기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나이지리아 말고도 베트남 등 해외취업 미끼의 사기 사건들 역시 종종 보도되었다.

26) “영국계 가공은행 명의의 무역사기 빈발”, 1990년 8월 2일자 매일경제신문 제4면 참조.

27)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신용장사기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신용장거래가 대폭 축소되고 대신 무신용장 거래가 활성화(2002년 기준 약 73%)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전자무역 거래 등을 포함한 무신용장 거래는 더 많은 투자사기피해를 유발하기도 하였다(“무신용장 거래 늘면서 무역사기 급증”, 2002년 10월 20일자 머니투데이 참조).

28) “2억4천만불 관리해달라 나이지리아서 괴팍시밀라”, 1991년 9월 13일자 매일경제신문 제7면 참조.

종합상사들은 이를 사기극으로 간주하여 요청을 거부했으며, 중소기업체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종합상사들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후 중소기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전형적인 수법에 의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에 그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투자사기피해사례가 1990년대에 가장 먼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국내에 들어온 나이지리아인이 미국은행 명의의 위조수표를 이용해 저지른 무역사기다²⁹⁾. 범인은 나이지리아에 유명회사를 차려두고 1989년 11월에 입국하여 서울의 한 중소기업체를 찾아가 22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기로 구두계약한 뒤 1989년 12월 미국은행 명의의 가짜수표를 보내고 물품을 선적·탁송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되어 구속되었다.

나이지리아발 국제사기의 전형적인 실제 피해사례는 1992년 초반에야 언론에 보도되었다³⁰⁾. 언론에 보도된 시점은 수십 개 중소기업체가 이미 무더기로 피해를 경험한 연후였다. 무역진흥공사(현 KOTRA)가 20여개의 피해업체를 확인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당시 범행수법은 대략 세 가지였다. 하나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속칭 나이지리아 419수법)으로 기업인들에게 전화로 위장 외화도피를 제의한 뒤, 전체 금액의 10%만 수고비조로 받겠다며 나이지리아로 유인한 뒤 기업인들이 갖고 있던 현금 등 금품을 빼앗은 것이었다³¹⁾. 다른 하나는 나이지리아회사와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며 국내기업인들과 접촉한 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비조로 일정금액을 챙긴 후 잠적해 버리는 것이었다³²⁾. 이

29) “외국은행 수표위조사기 나이지리아인 영장”, 1991년 9월 19일자 동아일보 제22면 참조.

30) “국제무역사기 피해 속출”, 1992년 2월 22일자 경향신문 제9면 참조.

31) 이 수법은 그 뒤로도 계속 진화하여 서신, 팩스, 이메일 이용 등 교신방법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좀 더 그럴 듯하게 속이기 위한 수법의 전문화(가령, 회사등기증과 영업허가증, 자국의 공업성, 재무성, 중앙은행 등의 외환지급인증서까지 모든 구비서류를 정교하게 위조) 역시 진행되었다.

32) 나이지리아 해운공사나 석유공사 임찰위원장 등을 사칭하고 대규모 공사수주를 맡기고자 하는데 이의 성사를 위해 활동비 혹은 고위층에 대한 뇌물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들이 포함된다. 몇 년 뒤 1995년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된 청소년월드컵을 이용한 사례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즉 나이지리아 축구협회를 사칭한 후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용 마스크 코트나 휘장 등을 대량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속인 뒤 공식업체 지정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나이지리아 무역사기 기승”, 1995년 6월 27일자 매일경제

와 더불어 한국 상품을 대량 구매하겠다고며 견본용품을 보내달라고 한 후 이들을 모아 자국에서 판매하고 잠적해 버리는 것이었다³³⁾. 이 중 앞의 두 가지 수법은 연루된 국내 기업인이 피해사실을 알리기 두려워 신고조차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수법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어찌면 실제 피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추정³⁴⁾해 볼 수 있겠으나, 적어도 표면적으로 언론에 그 가시적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의 보도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 Office of President \$ 〇〇〇사장귀하 •예금계좌제공(돈세탁목적)하면 수백만달러 사례 •부가적 상업거래 추진 •예금계좌번호 서명 요구 XXX기관장	미끼
• 나이지리아 초청방문-VIP대우 • 無비자 입국 • 체제경비, 업무추진비 요구	진행 과정
• 피해자 예금계좌 변칙 인출 • 불법입국에 대한 신고위협 • 체제경비, 업무추진비 미납에 대한 협박, 납치 • 불법거래이므로 신고불가 • 범행장소가 나이지리아 국내로 • 피해자 당국 수사 불가	피해 내역

<그림 3-1> 가장 전형적인 나이지리아 419수법

(출처 : “국제금융사기”, 1994년 6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 31면)

신문 제12면 참조).

- 33) 가급적 여러 종류의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하면서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품목별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 34) 1994년 매일경제신문에서 국제금융사기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기획기사를 연재(“실체, 국제금융사기 <상> 실태와 문제점”, 1994년 6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 제31면 참조)했을 당시, 피해를 제보한 기업체 사장들의 말로는 “나이지리아로부터 편지가 오기 시작한 것이 벌써 5년은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도 1980년대 후반부터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피해사례는 점점 늘어났고 수법도 점점 다양화되었다. 1994년에 들어서면서 정부 당국과 언론에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해 중소기업들 및 무역 관련 단체들로부터의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범죄의 대상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는 인식과 “한국도 국제사기의 위험지대”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나이지리아 419”라는 용어도 비로소 소개되었다³⁵⁾. 이 때 제보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나이지리아 고위층 인사들의 비자금 등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데 협조해 주면 상당액의 사례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하거나 파격적인 무역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등으로 기업인들을 초청한 후 업무추진비와 수수료 및 뇌물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강탈하는 사건들이었다. 심지어 감금·폭행하는 사례³⁶⁾,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예금을 인출해 가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주로 기업인에 한정되었던 사기의 대상도 대학교수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993년 9월 강원대학교 P모교수는 나이지리아의 한 회사로부터 3천8백만달러의 연구지원비로 확보해 놓았으니 은행계좌와 친필서명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으나, 이미 미국에서 그러한 사례를 목격한 바 있는 P모교수는 이를 사기로 간파하고 접촉을 끊은 일도 발생했던 것이다.

한편, 1994년 하반기에는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³⁷⁾. 이 기사는 가장 전형적인 나이지리아 419수법 외의 다양한 무역사기수법이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토고, 베냉, 가나 등 서부아프리카 여러 나라³⁸⁾들에서 높은 비율³⁹⁾로 자행되고 있음을

35) “한국도 국제사기 위험지대”, 1994년 5월 31일자 매일경제신문 제31면 참조.

36) 외국 사례에서는 심지어 피해자가 살해된 경우도 있다. 1993년 미국의 한 의사는 사기당한 수천달러를 찾으러 나이지리아에 다시 입국했다가 호텔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37) “아프리카 무역사기 기승”, 1994년 9월 12일자 동아일보 제12면 참조. 하지만,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나이지리아 국제무역사기단들의 사기 시도는 대부분 사전에 발각되어 실제로 피해를 당한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국내 건설업체 나이지리아 사기단에 피해”, 1994년 10월 14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참조).

38) 동시에 나이지리아 국제사기단도 거점을 이리저리 옮겼다. 1998년에는 코트디부아르(또는 가나 등)로 그 거점이 옮겨졌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나이지리아 무역사기단 주의”, 1998년 8월 17일자 매일경제신문 제13면 참조).

39) 당시 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서부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수입희망 서류 중 무려 30%가

알려주었다. 그 전반적인 수법은 일종의 “가짜 주문”이다. 주로 높은 구매단가를 제시하면서 처음엔 사전송금 등 좋은 조건의 결제방식을 제시했다가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물품 선적 후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 B/L)⁴⁰⁾을 보내주면 전신환(電信換, Telegraphic Transfer, T/T)⁴¹⁾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식으로 결제방식을 바꾼 다음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만 떼어먹는 수법이다. 이 경우 중간에 결제방식이 바뀐 것에 의심을 품고 선적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문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물품을 생산한 중소기업은 부도 등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 수법은 앞서 언급했던 신용장 사기(신용장 위조)수법 및 물품의 대량 샘플 요구 후 실제 거래는 안하고 샘플만 다른 시장에 팔아먹는 수법과 더불어 서부아프리카 국제무역사기의 주된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지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서 기획 기사를 연재하는 등 나이지리아 국제사기를 대서특필하고 정부와 무역진흥공사 등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와 주의를 당부했지만, 속칭 “나이지리아 419”를 주요 핵심 수법으로 한 국제사기는 주로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자행되었다. 피해사례는 계속 늘어났고, 수법은 계속 다양화되었으며⁴²⁾, 동시에

전화번호가 맞지 않는 등 사기성이 짙었다고 한다.

- 40)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출처] 선하증권 [船荷證券, bill of lading] | 네이버 백과사전. 따라서 선하증권을 보낸다는 것은 수출물품을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 41) 외국환의 매매시 외화의 수급을 전신으로 위탁하는 방식의 환을 말한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전신환 매도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본·지점 또는 거래은행에 특정한 수취인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며, 전신환 매입의 경우에는 관련 외국거주자에게 타전해 일정금액을 특정은행에 지급하도록 의뢰한다. [출처] 전신환 [電信換, telegraphic transfer] | 네이버 증권용어. 따라서 만약 타국의 거래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자국의 유명은행을 설정해 놓았다면, 전신환을 통해 대금이 들어올 리가 없을 것이다.
- 42) 국내에서 국제신용카드 위조사기 사건이 나이지리아인에 의해 저질러진 바 있고(“외국인 위조카드 사기단은 나이지리아인”, 1996년 11월 14일 연합뉴스 인터넷판 참조), 나이지리아 국제금괴사기단의 행각에 이어 필리핀 국제금괴사기단까지 기승을 부렸으며(“한국기업상대 필리핀금괴사기단 기승”, 1997년 9월 25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참조), 금괴야는 아프리카 사기단이 한국과 중국에서 위조달러 사기행각을 자행하기도 하였다(“중국공안, 아프리카인 사기단 공조수사 요청”, 1999년 8월 13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또한 사기수법은 나이지리아와 한국, 나

1990년대 후반까지 가장 전형적인 “나이지리아 419” 피해사례에 대한 보도도 끊이지 않았다. 1998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라고스(Lagos)⁴³⁾ 무역관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매달 평균 2-3회 정도의 사기여부 확인요청 국제전화가 한국인들로부터 왔다고 할 정도이다⁴⁴⁾. IMF사태 이후에는 극히 어려워진 기업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사기에 말려든 경우가 특별히 더 많았다고 판단된다⁴⁵⁾.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여러 기업인들이 사기의 표적이 되었고, “한국은 국제무역사기의 봉”이라는 대책⁴⁶⁾까지 나오게 되는 실정이 되었다. 대기업인 아시아자동차⁴⁷⁾, S물산⁴⁸⁾ 등도 국제무역사기에 말려들었다.

2000년대에 들어 나이지리아 국제사기는 전세계적인 인터넷, 휴대폰의 보급과 첨단 위조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더욱 진화하였다. 2000년에 국내 산업계를 긴장시킨 나이지리아 무역사기단의 활동은 대량 제작된 위조수표였다. 국내 한 무역업체가 시중은행에 지급 의뢰한 외국환 수표 중 나이지리아 무역금융사기단의 위조수표가 무더기로 발견돼 비상이 걸렸던 것이다⁴⁹⁾. 이처럼 한꺼번에 사기수

이지와 미국 등 일차원적 경로에서 벗어나 첫 접근이 캐나다나 남아공, 가나 등 제3국 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등 한층 다양하고 고도화됐다(“나이지리아 무역사기 다시 기승”, 1999년 12월 16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43) 나이지리아의 과거 수도이자 나이지리아 최대의 경제도시.

44) “나이지리아 사기단의 표적”, 1998년 4월 21일자 동아일보 제14면 참조.

45) 이 시기 나이지리아 국제사기조직은 IMF 이후 국내 내수기업들이 수출에 관심을 가진 점을 간파하고 이를 범죄에 적극적으로 악용하였다. 그에 따라 당시 그 피해가 크게 증가하였다(“서아프리카 무역사기로 피해 속출”, 1998년 8월 15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참조).

46) “한국은 봉, 국제무역사기 표적”, 1999년 1월 9일자 경향신문 제8면 참조. IMF 이전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국제무역투자에 속는 경우는 적었고 피해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나왔지만, IMF 이후에는 대기업에서 대규모 피해사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시아자동차 사기 피해사건이다. 비록 나이지리아 사기단에 의한 것이 아니긴 했지만, 당시 아시아자동차는 브라질 유명회사에 속아 1억8천만 달러나 되는 거금을 사기 당했다. 이 즈음에는 국제투자사기의 영역이 더욱 넓어져 브라질이나 우루과이 등지에서도 유사수법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당시 신문에서는 아시아자동차 사건은 국제사기 피해의 전체 규모에 비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기사들이 나왔다.

47) “아시아자동차 1억8천만 달러 사기당해”, 1999년 1월 8일자 동아일보 제2면 참조.

48) “국제 신용사기 피해 속출”, 1999년 11월 19일 매일경제신문 제6면 참조.

49) “위조수표 무더기 발견 나이지리아 무역사기단”, 2000년 6월 5일 매일경제신문 인터넷판 참조.

표가 물리기는 당시가 처음이어서 국내 은행과 무역업체들의 피해확산이 염려되었다. 나이지리아 무역사기단은 국내 업체에 “안내 책자로 알 게 됐다며 수표를 먼저 보낼 테니 물건을 빨리 선적해 달라”는 인터넷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발견된 수표 금액은 건당 미화 8500~9500달러 규모로 사기단이 영세한 국내 무역업체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2000년대 들어 국가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유럽 국가로 국적을 변경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무역사기를 벌이고 있다. 일단의 나이지리아 사기단은 네덜란드 국적의 수입업체로 가장하고, 시장조사를 위한 샘플을 요청하거나 전신환을 통한 소액거래부터 시작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큰일을 저지르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⁵⁰⁾. 이후 시장성이 좋으니 본격적인 거래를 하겠다고 제의한 후, 수출환어음(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⁵¹⁾ 거래 방식으로 물건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수출업체들은 네덜란드라는 국가 신용도만을 믿고 이들 사기업체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였다. 네덜란드뿐만이 아니었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로 활동무대가 더 넓어진 것이다⁵²⁾. 기본적인 사기수법은 고전적인 수법들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단계로 한국기업에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 “정부 조달에 낙찰돼 수백만 달러어치의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고전적 수법으로 미끼를 던지고, 2단계로 한국업체가 관심을 보이면 수차례에 걸쳐 입찰보증금, 행정비용, 어음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 천 달러씩 뜯어낸 다음, 마지막 3단계로 “결제대금을 이미 스페인 은행으로 송금해 어음수표를 끊어줄 테니 은행

50) “나이지리아 채류자들… 국적 바뀌 또 무역사기”, 2000년 7월 24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 참조. “네덜란드 이용 아프리카인 무역사기 극성”, 2002년 12월 2일자 머니투데이 참조.

51) 수출환어음은 수출업체가 수입업체를 지급인으로 발행하는 환어음이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특정인인 제3자에게 위탁하는 형식의 어음으로, 약속어음과 달리 지급인은 발행인이 아닌 제3자가 된다. 쉽게 말해 어음을 발행한 사람과 어음을 결제하는 사람이 다른 어음이다. ‘수출환어음’은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의 대금을 받기 위해 수입업자로부터의 송금에 의한 결제를 기다리지 않고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환어음이다. [출처] 수출환어음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네이버 시사경제용어.

52) “아프리카 무역사기 주의보..유럽으로 무대 옮겨 사기행각”, 2000년 9월 19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 참조.

에 납부할 수표 보증수수료 수 만 달러를 들고 스페인으로 오라”고 한 뒤 돈을 건네는 즉시 종적을 감춰버린다. 이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나이지리아에 대한 사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유럽 국가들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가장 전형적인 “나이지리아 419”수법은 정정 불안과 권력남용, 그리고 심각한 공공적 부패라는 아프리카적 특수성 속에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므로, 유럽에서 행해지는 사기의 형태는 나이지리아 무역사기의 특정 형태에만 유리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아프리카라고 해도 남아공 같은 나라라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으면서도 아프리카의 특수성을 이용한 전형적인 “나이지리아 419”수법 사기를 자행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나이지리아 사기단은 유럽뿐만 아니라 남아공에서도 활약했고 한국인도 남아공에서 그 해에만 몇 건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⁵³⁾. 남아공은 유럽과는 사기의 용도가 달랐는데, 이는 남아공에 정정이 극도로 불안한 아프리카 다른 여러 나라의 정치적 거물들이 자주 망명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나이지리아 사기단은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등 정정이 불안한 아프리카 국가의 정·재계 고위인사로 자처하면서 각국의 기업인들에게 팩스나 e-메일을 통해 그럴듯한 사업을 제의한 뒤 남아공으로 유인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남아공으로 탈출할 때 본국의 신정부로부터 몰수될 위기에 있던 100만~1,000만 달러의 자금을 가지고 나왔으며, 한국의 계좌를 이용해 이 돈을 한국으로 반출하게 해줄 경우 반출금액의 20~30%를 주겠다”거나 “코팅된 거액의 블랙 달러를 소유하고 있는데 코팅 제거에 필요한 특수 화학용제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는 말로 유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와 말레이시아에 사업 중이던 오모씨 등 3명은 2000년 5월 사기단에 납치돼 6,000달러를 강탈당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해 20만달러를 남아공으로 송금하도록 협박당한 뒤 극적으로 탈출했었다. 강모씨도 1999년 12월 사기단에게 피해를 본 뒤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짜 경찰이 나타나는 사이 사기범들이 종적을 감췄다.

나이지리아 및 서부아프리카에서 온 사기성 편지에 대한 경계의 확산으로, 국

53) “[외교부] 남아공 사기단 주의당부”, 2000년 9월 25일 한국일보 인터넷판.

적이동을 통한 사기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지만,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서부아프리카발 나이지리아 419수법”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었다. 2000년 11월 안산시 관내에서만 250여개 업체에 팩시밀리를 통해 앙골라, 나이지리아,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각국에서 현금세탁을 해 줄 경우 일정비용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계좌번호와 계좌이체 수수료를 송금해 달라는 문서가 접수된 바 있다⁵⁴⁾. 이에 덧붙여 팩시밀리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나이지리아 419수법”도 나타났다. 즉 2000년 10월, 나이지리아투자진흥공사(NIPC)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한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박람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이 박람회가 부통령특별보좌관에 의해 조직된 것처럼 홍보, 등록비 3500~4000달러를 접수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회사며 부통령실과도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던 것이다⁵⁵⁾.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이 늘어나면서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의 사기꾼들이 이메일을 이용해 수입업자로 위장 국내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되었다⁵⁶⁾. 이들 사기꾼들은 “귀사의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은 한국 방문 후 만나서 얘기하자”란 내용의 e메일을 업체에 보낸 뒤 비자를 획득하면 연락을 끊어 버리거나,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무역업체에 접근한 뒤 고위직을 사칭,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를 관리해달라는 미끼를 던진 다음에 5천~1만달러의 선수금을 요청한 후 이를 받으면 사라졌다.

54) “안산, 현금세탁해 주면 수수료 : 아프리카에서 보낸 괴문서”, 2000년 11월 20일자 한국일보 인터넷판 참조.

55) “인터넷무역사기 요주의”, 2000년 10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 인터넷판 참조. 이즈음엔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거래가 확산되면서, 국내기업이 인터넷 사기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인터넷 중개무역업체인 A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아프리카 토고의 한 수입상과 대형거래를 추진하다 납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만달러를 날렸고, 전자부품업체인 B사는 인터넷 검색으로 바이어 리스트를 서비스하는 미국 LA 소재 업체를 찾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225달러를 송금했으나 리스트를 보내오기는 커녕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전자메이커인 C사도 국내 거래알선 사이트에서 독일의 D랩 공급업체와 접촉, 샘플비로 250마르크를 송금했으나 역시 연락이 끊긴 경험을 하였다.

56) “인터넷 활용 무역사기 기승”, 2001년 5월 8일자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 참조. “나이지리아 사기단 또 기승. e메일로 투자제의 후 송금 수수료 챙겨”, 2002년 10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 참조.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좀 더 신화된 국제무역사기 수법은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방식의 결합을 통한 신종 수법이다. 보석류 전자상거래 업체인 S주식 회사는 2000년부터 자사의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접촉해온 나이지리아 바이어와 카드결제 방식으로 2001년 3월까지 2천만원대의 물건을 팔았으나 약 3개월 뒤 이 카드가 부도처리 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선지급된 대금도 환급요청을 받은 바 있다⁵⁷⁾. 이는 카드 결제의 경우, 문제 카드 여부를 가리는 카드 승인이 끝난 뒤 판매업체가 물건을 배송하고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는데 카드사는 사후에 부도 처리된 카드에 대해 해당업체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서 발생했다.

2000년대 인터넷을 이용한 나이지리아 국제투자사기는 석유사기의 형태로도 확장되었다. 2003년 보도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나이지리아 보니섬에서 생산되는 보니라이트 석유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시장가격 이하로 제시하면서 바이어를 유인하는 사기행위가 시도되고 있다고 대한상의가 밝힌 바 있다⁵⁸⁾. 석유거래상을 자처하는 이들 사기단은 무역선적서류를 위조해 최고 100만 배럴규모의 석유를 할인 판매한다고 제안하면서 거액의 선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수법은 바이어를 속여 유령선박 서비스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인데 위조된 용선계약서에 따라 화물의 반값을 지불할 것을 바이어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나이지리아 419수법의 특징은 그 범행대상이 주로 기업인들이었던 것에서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주체의 경우엔 국내인이 나이지리아 사기단과 연계하여 사기를 자행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9년 7월에 UN사무총장을 사칭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 e-메일을 발송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나이지리아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들 수 있다⁵⁹⁾. 당시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2일 A씨(34) 등 2명을 사기 혐의

57) “전자상거래 대상 신종 국제무역사기 등장”, 2002년 1월 28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참조.

58) “나이지리아 석유사기 급증”, 2003년 2월 12일자 매일경제신문 인터넷판 참조.

59) “유엔사무총장 사칭 거액 채적... 나이지리아 사기단 적발”, 2009년 7월 22일자 뉴시스 참조.

로 구속하고 B씨(25·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중반까지 나이지리아 현지 419사기 조직과 연계해 UN 사무총장을 사칭,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상해 주기로 결정했다’, ‘유산 상속에 후견인이 돼주면 상속금의 20%를 주겠다’ 등의 e-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B씨 등은 A씨 등이 국내에 불법 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초청해 주거나 휴대전화·인터넷 전화 등을 개설해주는 등 범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긴급·비밀 등의 용어를 사용해 메일을 받은 사람들에게 빠른 결정을 유도하거나 타인과의 정보공유 등을 방지했다. 세계적인 은행·국제기구 등을 사칭해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를 단계적으로 발송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실제로 이들은 정교하게 위조된 UN사무총장 명의로 ‘후견인 등록 확인서’, ‘상속금 예치 증명서’ 등을 송부해 e-메일을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최근 피해추세는 “범죄 피해자가 주로 지식인층인 만큼 피해를 당해도 창피함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며, “인터넷 사용 인구 및 영어 사용 가능자가 증가함에 따라 추후 한국이 나이지리아 419사기 조직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2절 범죄조직집단에 의한 온라인체계상의 범죄착취⁶⁰⁾

1. 정보화시대의 도래

디지털 콘텐츠(또는 전자적 저장정보)는 컴퓨터 또는 다른 전자저장매체로부터 추출한 정보 및 자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세상의 정보는 점차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되고 문서화되고 있다. Lyman과 Varian(2003)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자료의 약 92%가 전자적 형태로만 저장되고 있으며 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Gantz와 동료들(2007)의 연구에 따르면

60) 이것은 Kim-Kwang Raymond Choo와 Russell G Smith(2008)의 연구를 정리한 것임.

2006년 한 해 동안 생산된 디지털정보의 양은 약 1610억 기가바이트에 달하는데 이것은 700 MB 짜리 CD 2300억 개 또는 4.3 GB짜리 DVD 370억 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광대역접속, 기술개선 및 전자적 저장장치의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정보의 디지털화는 그 문턱을 낮추게 되었고 덕분에 은행이나 재정산업과 같은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을 뿐 아니라, 전화접속의 중요성이 날로 사라지고 광대역 서비스의 팽창이 가속화되면서 상시접속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텔레콤 회사들은 네트워크의 확장에 더욱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심지어는 무선 및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역폭과 속도의 확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비록 아시아가 세계인구의 약 56.4%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7년 3월 현재 약 10%의 인구만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세계인구의 약 1/3만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으며 이는 달리 말해 그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직은 영어가 주요 언어이지만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2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가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지구화의 정도가 증가하였고 상호간에 연결되었다. 은행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졌다. 2006년도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상에 지불한 돈이 1천억 달러(약 120조)에 달한다고 한다(Ames, 2007). 전자콘텐츠를 전자적으로 접속하고 공유함으로써 정부 및 기업은 대중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부문(sector)간에 존재하던 차이도 약화되었다. 더 많은 디지털 콘텐츠가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및 전자입찰, 전자보고 및 전자투표를 가능케 하였다.

이처럼 콘텐츠를 전자적으로 접근하고 공유하는 것이 쉬워짐에 따라 범죄에로의 기회가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온라인상의 지불, 경매, 게임 및 사회네트워크 사이트들이 범죄에 취약하게 되었다.

2. 조직 범죄집단

조직범죄집단이란 정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UN 협약 제2조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그 정의에 따르면, 조직범죄란 최소한 3명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재정적 혹은 다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심각한 범행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은 반드시 일정한 내적 조직 혹은 구조를 가져야 하고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기 전 후로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해야 한다.

가. 전통적인 조직범죄집단

조직범죄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설립된 이후에 함께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전통적인 조직범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Bandura(1999)의 행위의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행위란 사회적 모델에 노출이 된 후 인간의 기본적인 인센티브(돈, 권력, 지위 및 감각적 욕구)들의 다양한 조합으로부터 비롯되는 긍정적인 강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일본의 야쿠자나 중국의 삼합회 등은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강화시키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ICT를 이용해서 마약밀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기업의 비밀이나 ID정보를 거래하거나, 온라인으로 사기를 치거나, 온라인 지불방식으로 돈세탁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인 물질을 배포하거나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기술의존적 범죄에 전통적인 조직범죄집단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제 대규모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기술의존적 범죄에 참여하게 된 전통적 조직범죄집단으로는 삼합회나 야쿠자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의 범죄활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신용카드위조 및 사기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동유럽의 전통적 조직범죄집단은 botnet을 이용하여 DOS(Denial of Service) 공격을 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온라인도박과 포르노사이트를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1월 2명의 네덜란드 해커들은 미국의 한 회사를 강탈하여

소비자들이 카메라와 게임 콘솔을 사기위해 제공한 ID를 훔치고 악성 보트(bot malware)를 배포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젊은 해커들을 보강함으로써 사이버를 통한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적 고용기회를 박탈당한 수많은 고등교육자들이 고도의 컴퓨터 및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지고 사이버 지하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조직 사이버 범죄집단

조직범죄집단의 다른 하나는 온라인상으로만 서로 알 뿐 얼굴도 모르는 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조직적인 구조 속에서 일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연결되어 범행을 공모한다. 물론 재정적 이익이 주된 목적이지만 아동착취 도구(온라인 아동포르노 고리)를 생산, 배포하는 등의 다른 목적을 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서로 얼굴도 모르는 영국의 세 남자는 인터넷 채팅룸을 이용해서 16세 이하의 소녀를 성폭행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런던 Southwark Crown 법정에 서게 되었다. 다른 사건이지만 전 세계에서 700명이 넘는 혐의자들이 온라인 아동성폭행 고리와 연결되어 교제하면서 영국에 근거한 인터넷 채팅방에서 “아이들, 내 삶의 빛”이란 제목으로 범행을 도모하다 체포되었다.

전통적인 범죄조직과 사이버공간의 결합은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있지만 이렇게 결합되었다고 해서 바로 조직 사이버 범죄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anti-virus 연구원인 Eugene Kaspersky(2007)가 말하듯이 IT범죄자들은 번덕이 죽 끓듯 하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로 전통적인 범죄자들과는 거리가 멀다. IT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기에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들은 자신의 손이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더구나 이들은 조직의 구조라는 차원에서 전통적 범죄집단과 차별화되는데 이들은 제한된 시간동안만 서로 함께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행할 뿐 임무가 성공하면 각자의 길을 간다. 이들은 느슨하게 구조화되어 있고, 유동적이고, 초국가적이며, 적은 수의 구성원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힘이다.

이 집단의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사람들이다. 5명으로 구성된 해커집단의 우두머리가 2001년 체포되었는데 그는 전직 모스크바연구소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다. 2007년의 신용카드정보를 빼돌린 다른 예에서는 싱가포르의 대학생들이 연루되었다. 이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호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자들이다. cnxhacker나 milw0rm 과 같은 조직해커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발견한 취약성을 분석하여 보다 정교한 해킹기술을 공공연하게 공개하기도 한다. Chang and Chou(2006)의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와 대만의 젊은이 상당수가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소위 Y세대⁶¹⁾의 구성원들이라고 한다.

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조직 사이버 집단

2001년 9월 11일 이전의 테러나 조직범죄는 보통 동일한 동기적 요인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세력으로 간주되곤 했다. 최근엔 테러와 조직범죄 간에 주목할 만한 수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조직인 알카에다는 돈세탁 전문 기술을 가진 조직범죄집단으로 전환했다(Warren, in Charlton 2005). 조직범죄집단 하면 흔히 생각나는 있는 범죄들 (신용사기와 사기성 책략, 신원도용·민법죄, 상품위조, 불법무기조달 등)은 이제 테러리스트 집단이 펀드를 모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前)단계 범죄가 되었다.

더구나 범죄조직은 시간이 가면서 이데올로기화되어가고 있다. 그들이 잉태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성향은 그들의 행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동기화시킨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테러리스트활동을 지원한다. 테러리스트 집단은 조직범죄에 의존하여 무기와 군수품을 획득한다. 이 물품을 수송하기 위하여 갱집단에 의해 형성된 경로를 사용하기도 하며 그 대가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부터 총기나 폭발물 등의 사용법을 훈련받기도 한다. 이 두 집단은 마약거래를 통해 연결되기도 하는데 둘 다 재정적으로 마약밀매에 의존한다(Lal 2005).

61)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2세들을 일컫는 말로,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10세 전후의 어린이를 말한다. Y세대는 다른 나라 문화나 다른 인종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 이들은 말을 배우기도 전에 TV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모방심리, 호기심, 패션에 관한 관심도 매우 크다.(www.naver.com)

테러리스트집단은 인터넷을 통해 화학, 생물학, 방사선물질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핵무기까지 개발해낼 수 있다는 위협의 징조이다. 이들은 전지구적인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주요 사회공공시설(인프라)에 치명적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 군과 민의 관심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 예로 2006년에는 Lodhi라는 사람이 호주 국가전기시설을 폭파시키려는 계획으로 기소되었는데 그는 국가 전기망지도(electricity grid map)를 비롯하여 많은 정보를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았다. 테러리스트들은 구글어스(Google EarthTM)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라크내 영국부대를 물리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인터넷이 어떻게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에 활용되는가에 대한 예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 온라인 지불방법과 온라인 투자사기

가. 온라인 지불방법

온라인 지불체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범주화된다.

- 소프트웨어기반 또는 하드웨어기반: 소프트웨어의 형태로만 활용되는 것으로는 대량의 다중선수들이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하는 가상 통화(virtual currency)이다. 하드웨어기반 화폐(또는 카드 화폐, Card money)로는 Mondex, NETS 현금카드나 NTT의 NCash 등과 같은 은행에서 운용하거나 지불하는 핵심 저장가치체계이다.
- 온라인기반 또는 오프라인기반 책략:
 돈세탁의 경우 범죄의 진행은 전자통화나 디지털 금속을 구매함으로써 재정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불법진행임을 위장하기 위해 범죄자들은 ‘세탁’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일련의 사업거래(예를 들어 일련의 해외회사를 통해 전자통화를 송금하고 재판매를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를 한다. 다음이 돈세탁의 좋은 예이다.

그들은 사기를 통해 얻은 돈과 상품을 러시아로 송금한다. 그 과정을 보면 훔친 ID와 신용정보를 이용해서 피의자는 PayPal⁶²⁾카드, 선물카드, 컴퓨터 및 다른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그 아이템들을 미국에 있는 동료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배달주소를 적는다. 동료들은 신용카드로부터 재빨리 현금을 인출한 뒤 그 돈을 은행계좌에 예치하여 피의자가 러시아에서 ATM 카드를 이용하여 훔친 돈을 인출하도록 한다. 컴퓨터 및 다른 상품들은 미국에 있는 피의자의 동료에 의해 포장된 뒤 러시아로 반송되고 거기에서 그 상품들은 다시 팔린다. 이처럼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디지털화로 인하여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마트카드와 선불카드는 제한된 보관용량에 비해 전형적으로 썩여지고 있다. 특히 선불카드에 의해 담보되는 익명성은 조직범죄 집단이나 테러리스트집단이 불법적인 재정거래, 돈세탁, 대량현금밀수 등을 위해 남용될 수 있다. 2007년 3월에 체포된 6명의 사기 연합체 구성원들은 훔친 신용카드를 월마트와 샘스클럽 선물카드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구매한 카드는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는데 지불되었다. 또 다른 케이스이지만 조직범죄 집단에 의해 고용된 개인들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선물카드를 구매하는데 동원되기도 했다. 이 신용카드들은 조직화된 사이버범죄집단에 의해 해킹된 TJX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어낸 도난당한 신용카드 자료를 사용해서 제작된 것들이다.

나. 기타 온라인 투자사기

온라인 경매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지구적인 가상 마켓을 제공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경매식 주문을 통해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 사이트들은 구매를 조작하거나 판매가격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경매사이트에 올라운 상품의 판매가를 임의로 올릴 수 있다.

62) 온라인 결제서비스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는 게이머들 간에 온라인으로 협력하여 아이템을 공유하는 방식이 성행한다. 이들은 가상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 돕고 협력한다. 온라인 게임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며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공급자가 존재한다.

제4장

국내외 투자사기범죄 실태 분석

국내외 투자사기범죄 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투자사기범죄의 실태를 보다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언론에 노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유형별 대표사례를 추출한 다음 이들을 통계적으로 재분석하여 보았다. 언론에 게재된 사건들 가운데 분석을 위한 사례를 표집한 방법은 확률표집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건들을 대강 훑어본 후 일단 연구하고자 하였던 각종 투자사기방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사건이 충실히 기술되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분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추출하였다. 즉 정보부합도와 정보충실성이 표집의 핵심기준인 셈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사용된 표본 112건의 사례를 통해 이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본 변수군으로는 1) 사건특성군: 사건ID, 사건일시, 사건유형(폰지 등), 사건규모, 조직범죄개입여부, 2) 가해자특성군: 주체(법인, 개인, 조직), 성별, 나이, 범죄자특성, 피해자특성 3) 범행수법군: 유인요인, 미끼정보, 4) 피해자특성군: 성별, 나이, 피해액수 등 및 5) 기타특성군의 변수들이다. 이렇게 수집된 사례 112개를 중심으로 투자사기범죄의 유형 및 실태를 살펴보고 변수군별로 빈도 및 교차분석을 해보았다⁶³⁾.

63) 본 장에서 분석된 모든 사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절 빈도분석을 통한 투자사기범죄의 실태

1. 유형별 구분

먼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들을 투자사기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았다.

표 4-1 분석대상 사례들의 유형별(대분류) 빈도

투자사기의 유형(대분류)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 폰지	50	44.6	44.6
2. 펌프앤덱프	9	8.0	52.7
3. 역외및해외투자	1	0.9	53.6
4. 프라임은행	9	8.0	61.6
5. 기타(개인사기)	24	21.4	83.0
6. 나이지리아식선불사기	13	11.6	94.6
7. 기획부동산투자사기	6	5.4	100.0
합 계	112	100.0	

위의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12개의 분석된 사례 가운데 폰지 사기가 50건(4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타의 개인사기로 24건(21.4%), 나이지리아 선불사기 13건(11.6%)의 순이었으며 펌프앤덱프와 프라임은행은 각각 9건(8.0%)으로 동률이었다. 그 외에도 기획부동산사기가 6건(5.4%)이 있었고 역외 및 해외투자는 단지 1건에 불과하였다.

투자사기의 유형 중에 폰지책략이 많은 것은 고수익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폰지책략을 이용한 범죄유형에는 다양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식, 펀드 코스닥 등록, 외환, 선물, 채권, 사채 등 금융 다단계나 아파트, 주택, 토지, 경매물 등의 부동산 다단계 뿐만 아니라 카지노사업, 녹용판매, 바이오연료사업, 회사투자, 오리사육사업, 벌목사업, 벤처회사 투자, 영화제작투자, 건강보조식품판매, 교통범죄금대납사업 등의 수익

사업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투자사기범죄의 유형이 이렇게 분포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다만 언론에 노출된 케이스들 중 정보충실성을 기준으로 임의로 뽑은 사건들이 이렇게 분포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가. 폰지사기의 세부 유형

다음은 이들 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추가로 분석한 내용이다. 먼저 폰지사기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 폰지사기의 세부 유형분류

폰지사기 세부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금융다단계 (주식/펀드/외환/선물/채권/사채)	21	18.8	42.0	42.0
부동산다단계 (아파트/주택/토지/경매물)	10	8.9	20.0	62.0
수익사업다단계 (카지노/녹용/바이오/연료/회사/오리사육/별목사업/벤처회사/영화제작/건강보조식품/교통범칙금대납사업/바이오연료사업)	19	17.0	38.0	100.0
유효사건	50	44.6	100.0	
폰지사기 이외 사건	62	55.4		
전체 합계	112	100.0		

위의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2개의 투자사기 가운데 약 44.6%에 해당하는 50개의 사례가 폰지사기에 해당하였고 이들 50개의 폰지사기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각각 금융 다단계, 부동산 다단계 및 수익사업 다단계이다. 금융다단계는 주로 주식이나 채권(국채, 사채), 펀드, 외환 및 선물과 관련된 사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다단계는 아파트나 주택, 토지와 관련된 사기를 일컬으며, 수익사업 다단계에는 요식업, 건강식품, 벤처회사 등 각종 사업투자와 관련된 사기를 말한다. 일단 이 세 가지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금융다단계로 유효백분률 가운데 전체의 42.0%인 21건이 해당되었고 다음이 수익사업다단계로 19건(38.0%)였으며 부동산 다단계가 10건(20.0%)으로 가장 적었다. 금융다단계 피해의 비율이 부동산투자나 수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보다 높은 이유는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윤창출이 힘들어 지고 저금리시대와 맞물려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을 시중 금리 이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손쉽게 큰돈을 벌수 있다고 황당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에 더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융다단계의 범죄수법은 유사수신행위⁶⁴⁾를 이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나. 펌프덤프의 세부 유형

다음으로 펌프덤프의 세부유형으로는 작전세력에 의한 주식부풀리기(작전세력), 스팸메일 등으로 고가의 주식 올리기(스팸메일), 회사정보를 허위로 공시하기(허위공시) 등이 있었으며 총 9건의 펌프덤프 사례 가운데 작전세력이용이 전체의 55.6%인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허위공시 3건(33.3%), 스팸메일이 1건(11.1%)의 순이었다⁶⁵⁾. 작전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정, 루머에 의한 시세조정, 행동(액션)에 의한 시세조정 등이다. 작전세력을 이용하여 주가를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펌프앤덤프 방식이다.

64) 앞서 정의한 유사수신행위를 좀더 간단히 정의하면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65) “루보 사건”은 국내의 대표적인 펌프앤덤프의 사례이다. ○○그룹 전 부회장 김○○ 형제 등이 200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를 대상으로 1500억원대 자금과 700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작전세력들이 허위 매수주문 등을 통해 코스피업체 주가를 부풀려 시세차익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표 4-3 펌프덤프의 세부유형

펌프덤프 세부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작전세력에 의한 주식부풀리기	5	4.5	55.6	55.6
스팸메일 등으로 고가의 주식올리기	1	0.9	11.1	66.7
회사정보허위공시	3	2.7	33.3	100.0
유효사건	9	8.0	100.0	
펌프덤프 외 사건	103	92.0		
전체 합계	112	100.0		

실제 주식시장에서 매도/매수 주문에 관여하여 지속적으로 고가의 매수주문에 내 주가를 올리면 개인투자자들은 호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매수주문에 동참하게 된다. 이때 작전세력들은 주식을 팔아버리고 시장에서 빠지는 방식이다. 회사정보허위공시는 소문, 공시, 뉴스 등을 이용해 주가를 올리는 방식이다. 최근 작전세력들은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보내 주식정보를 흘리거나 의도적으로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을 매수해 허위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주식을 부풀리는 등 계속해서 진화한다.

다. 역외 탈세 및 해외 투자

계속해서 역외투자 혹은 해외투자와 관련된 사건은 단 1건이 표집되었는데 이것은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투자의 명목으로 국내의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 해외 현지법인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조성한 자금을 유출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은닉하는 경우이다.

표 4-4 역외탈세 및 해외투자의 경우

역외탈세 및 해외투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해외자원개발투자등의명목으로국 내의자금을부당하게해외로유출	1	0.9	100.0	100.0
해외투자 이외사건	111	99.1		
전체 합계	112	100.0		

역외 탈세는 단순한 세금탈세를 넘어 국부를 해외에 유출한다는 점에서 단속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밝혀내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또한, 역외 탈세자들은 해외펀드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해외 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상속을 준비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대개 돈이 많은 부호나 대기업 등 상류계층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라. 프라임은행 세무 유형

네 번째 유형인 프라임 은행은 모두 9건이 추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매매가격 부풀리기가 5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당대출과 연금대출로 각각 2건(22.2%)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프라임 은행 사기대출은 개인과 관계기관 등에게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야기하여 미국경제를 공황사태로 이끄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프라임(prime)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이하의 정상적인 대출이나 서브프라임(sub-prime)은 말 그대로 프라임 대출보다 하위의 대출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0%를 넘는다.

표 4-5 프라임은행 세무사건유형

프라임은행 세무사건 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매매가격부풀리기	5	4.5	55.6	55.6
부당대출(은행직원과공모)	2	1.8	22.2	77.8
연금대출	2	1.8	22.2	100.0

유효합계	9	8.0	100.0
프라임은행 이외 사건	103	92.0	
전체 합계	112	100.0	

문제는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액이 크므로 그만큼 담보가치가 떨어져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경제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MBS(Mortgage-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저당 잡은 권리(저당권)를 기반으로 다시 여러 금융 기관으로 분산해 판매한다. 이런 MBS를 산 금융기관들이 회사채 등 다른 채권들과 섞어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부채담보부증권)를 만들어 다시 판매하여 CDO에 들어 있는 각종 채권이 어디서 왔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일일이 가려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실채권과 우량채권 등을 섞어서 판매하고 여러 수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고,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이 좋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담보물이 부실화되고 여기서 파생된 상품들 모두 부실화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생긴 주택담보대출 부실은 투자는행을 파산시킨다. 투자는행의 파산은 보험, 증권, 상업은행 등 연계되어 있는 전체 금융기관으로 퍼져 결국 금융 전체가 무너져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마. 개인투자사기 세부 유형

표 4-6 개인투자사기의 세부유형

개인투자사기 세부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부동산투자 (토지/주택/광산/학교/회사)	10	8.9	41.7	41.7
수익사업(공연/골프장/영화/금괴/광고사업/환전/골프장분양권/영화사업/비상장주식)	13	11.6	54.2	95.8
기타 (이민투자등)	1	0.9	4.2	100.0
유효합계	24	21.4	100.0	

개인투자 이외 사건	88	78.6
전체합계	112	100.0

다섯 번째 유형인 개인투자사기는 모두 24건이 추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수익 사업을 가장한 투자사기가 13건 5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동산투자 10건 (41.7%), 기타 이민투자가 1건(4.2%)의 순이었다. 수법유형에 속하지 않은 개인 투자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연투자, 골프 장부지투자, 금괴수입투자, 광고사업투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익사업을 가장한 투자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명가수의 콘서트에 금원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원 편취, 골프장 사업부지에 투자, 유명감독을 내세워 흥행보증을 해 준다면 투자유치, 금괴를 수입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며 투자권유,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권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바. 나이지리아식 선불 사기 세부 유형

한편 나이지리아식 선불사기는 모두 13건이 추출되었고 이 가운데 비자금이나 휴면예금과 같이 일종의 눈먼 돈을 사기치는 경우가 5건 (3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외국로또, 귀금속수출사기 및 무역거래이용사기로 각각 2건 (15.4%)이었으며, 염색미화이용사기와 외국자금관련 사기가 각각 1건(7.7%)이었다.

표 4-7 나이지리아식 선불사기의 세부유형

나이지리아 선불사기 세부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비자금/유산/휴면예금이체사기	5	4.5	38.5	38.5
염색미화이용사기	1	0.9	7.7	46.2
거액외국로또복권당첨미끼사기	2	1.8	15.4	61.5
금,구리수출사기	2	1.8	15.4	76.9
외국은행자금의대출과투자유치사기	1	0.9	7.7	84.6

입찰수주,무역거래이용사기	2	1.8	15.4	100.0
유효사건	13	11.6	100.0	
나이지리아선불사기 이외 사건	99	88.4		
전체 합계	112	100.0		

비자금·거액유산·이체사기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70~8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나타나기 시작되어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까지 확산되어 여전히 국제사기 범죄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국내언론보도에 나타난 피해 유형으로는 첫째, 남아공 상공회의소에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외국인명의 휴면계좌를 발견하였는데 돈을 나누어 갖자며 메일을 발송했다. 은행감사관으로 외국인 계좌로 자유롭게 송금할 권한이 있다며 계좌이체에 필요한 서류비용 명목으로 인적사항과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이다. 둘째, 한국의 ○○은행 감사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예치한 후 비행기사고로 사망하였다. 유산이 국고에 귀속이 된다면 인적사항과 상속에 필요한 서류비등을 보내주면 일정부분의 지분을 주겠다고 유혹한 경우이다. 셋째, 라이베리아 前 고문으로부터 대통령 통치자금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 운송료를 지불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이메일을 보낸 경우이다. 특징으로는 비자금 이체 등을 미끼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면서 선불 수수료를 요구한다.

염색미화이용사기의 언론보도사례는 호텔에서 만난 가나인이 액체와 파우더를 이용하여 염색미화를 달러로 원상회복시키면서 돈을 나누어 가지자며 액체·파우더 구입비용으로 돈을 요구한다. 그 외 거액와국로또복권당첨미끼는 남아공 지역 사무소에서 수십만 달러의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이메일을 인적사항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조건부 발행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당첨금원을 송금하기 위해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한 경우이다. 그리고 금·구리 수출, 외국은행자금의 대출과 투자유치, 입찰수주·무역거래이용 등의 미끼로 유인하면서 체재비, 수고비, 뇌물, 등록비 명목의 선불금을 요구한다.

사. 기획부동산 세부유형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는 모두 6건이 추출되었는데 이 중 특성화단지에 관련된 사기가 4건(66.7%)로 가장 많았고 산업단지조성과 주택단지(펜션,전원주택)조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중개업·개발업·매매업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으나 중개업의 성격이 강하여 일종의 유사부동산 중개에 해당하는 영업형태로 볼 수 있다.

표 4-8 기획부동산의 세부유형

기획부동산 세부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산업단지조성	1	0.9	16.7	16.7
특성화단지	4	3.6	66.7	83.3
펜션,전원주택단지	1	0.9	16.7	100.0
유효사건	6	5.4	100.0	
기획부동산 이외 사건	106	94.6		
전체 합계	112	100.0		

대규모 호화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특성화단지, 산업단지 조성, 행정도시, 그린벨트 해제, 펜션·전원주택단지 등 개발예정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2. 범죄자 특성 : 주체, 성별, 나이 등등

다음으로는 언론에 나타난 각종 투자사기와 관련하여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먼저 가해의 주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9 투자사기 가해자의 성격구분

가해자 성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개인	18	16.1	18.4	18.4
법인	79	70.5	80.6	99.0
조직	1	0.9	1.0	100.0
유효합	98	87.5	100.0	
결측치	14	12.5		
전체합	112	100.0		

범죄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가해자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먼저 유효응답건수 112건 가운데 14건은 가해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가해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들 가운데에서는 법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79건 (70.5%), 개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18건(16.1%)이었고 그 외의 기타조직이 가해자인 경우가 1건 이었다. 법인의 경우가 많은 것은 투자사기의 특성상 개인이 독자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보다 사기집단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럴듯한 법인을 설립하여 자칭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금융이나 부동산 또는 수익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이다.

표 4-10 가해자의 수

가해자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명	58	51.8	59.2	59.2
2명	19	17.0	19.4	78.6
3명-10명	12	10.7	12.2	90.8
11명 이상	9	8.0	9.2	100.0
유효사건	98	87.5	100.0	
결측치	14	12.5		
전체 합계	112	100.0		

<표 4-10>에서 가해자의 수와 관련해서는 전체 112건의 사례들 가운데 14건의 무효응답을 제외하고는 1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기가 가장 많아 58건(59.2%)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2인 공모로 19건(19.4%)였다. 그 다음이 3인이상 10인 이하의 공모로 이루어진 건으로 12건(12.2%)이었으며, 11인 이상이 공모하여 가해자로 나선 경우도 전체의 9.2%인 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볼 때 이번 연구에서 추출된 사례들 가운데에서는 1인 단독의 가해자 사기사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피해자의 피해내용보다 주범의 범죄사실이나 피해규모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 공범여부가 정확히 나와있는 기사는 많지 않았다.

표 4-11 가해자의 성별

가해자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남자	85	75.9	86.7	86.7
여자	13	11.6	13.3	100.0
유효사건	98	87.5	100.0	
결측치	14	12.5		
전체 합계	112	100.0		

다음으로 <표 4-11>에서는 가해자의 성별을 살펴보았다. 가해자의 성별은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든 가해자의 성별을 파악하기 힘들고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자가 수십 명이 넘는 경우에는 가해자 모두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든 관계로 일단 주범을 위주로 가해자의 성별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가해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유효응답자 98건 중 남자가 전체의 86.7%인 8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13.3%인 13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볼 때, 가해자들은 대체로 남자들이 더 많다고 하겠다.

표 4-12 가해자 연령대

가해자 연령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30 대	25	22.3	32.1	32.1
40 대	30	26.8	38.5	70.5
50 대	17	15.2	21.8	92.3
60 대	6	5.4	7.7	100.0
유효사건	78	69.6	100.0	
결측치	34	30.4		
전체 합계	112	100.0		

다음으로 <표 4-12>에서는 가해자의 나이를 살펴보았다. 가해자의 나이 역시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든 가해자의 나이를 파악하기 힘들고 성별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수십 명이 넘을 경우에는 가해자 모두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든 관계로 일단 주범을 위주로 가해자의 나이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가해자의 나이를 살펴본 결과 40대가 전체 유효응답자 78명 가운데 30명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30대로 32.1%, 계속해서 50대가 17명 21.8%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도 6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볼 때, 가해자들은 대체로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더 많이 활약하고 있다고 보겠다. 언론보도자료를 분석하면서 30~40대의 명문대 출신이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 전문가행세를 하면서 투자사기로 피해를 준 사례는 도덕성해이가 황금만능주의와 맞물려 대형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을 보여준다.

<표 4-13>에서 가해자의 직업 역시 첫 번째 가해자들 중 유효응답자 96명을 중심으로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4-13 가해자의 직업

가해자 직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문직	19	17.0	19.8	19.8
관리직	49	43.8	51.0	70.8

사무직	9	8.0	9.4	80.2
판매서비스직	5	4.5	5.2	85.4
무직	5	4.5	5.2	90.6
기타	9	8.1	9.4	100.0
유효사건	96	85.7	100.0	
결측치	16	14.3		
전체 합계	112	100.0		

그 결과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전체의 51.0%인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문직 19명(19.8%), 사무직 9명(9.4%), 기타 9명(8.1%), 판매서비스직과 무직이 각각 5명(5.2%) 정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사기 가해자의 직업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이 전체의 80.2%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사기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기소여부를 결정짓기가 애매하다. 불법성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 등과 결부되면 처벌되기가 어렵다. 또한, 높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치적 고려도 배려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리는 한 사회의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숨어있던 화이트칼라 범죄가 엔론 사태⁶⁶⁾를 계기로 중요한 사회 의제로 다시 떠올랐으며 일반범죄에 비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관대하게 처리하는 사법당국의 태도에 자성을 가지고 있다⁶⁷⁾.

범죄자의 특성으로는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국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인이 72명 (73.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인 21명

66) 앞서 설명한 엔론사태를 자세히 설명하면 미국에서 거대회사인 ‘엔론’이라는 에너지 회사의 사건이다. 2001년 12월초에 파산 신청을 한 미국 에너지기업체 엔론은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거짓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부실기업인 엔론회사가 건설기업인양 행동했으며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미국 대통령 뿐 만 아니라 상원의원 등 250명에게 정치헌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특히 이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 일부 고위 경영진들은 자기들의 보유했던 주식은 고가로 다 팔아치우고 직원들에게는 걱정 말라고 안심심을 시킨뒤 파산을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야기하였다.

67) <http://blog.peoplepower21.org/Magazine/18053>, 2006. 11. 1. 기사

(21.4%), 일본인 2명(2.0%), 그 외에는 캐나다, 영국 국적이 1인이었고 국적은 확인되지 않으나 아프리카인 1인도 포함되어 있다. 언론에 나타난 한국인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저지른 가해자는 한국사람이 많았으나 외국인도 2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글로벌시대로 인해 우리나라도 사기피해의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표 4-14 가해자 국적

가해자 국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한국	72	64.3	73.5	73.5
미국	21	18.8	21.4	94.9
캐나다	1	0.9	1.0	95.9
아프리카	1	0.9	1.0	96.9
일본	2	1.8	2.0	99.0
영국	1	0.9	1.0	100.0
유효사건	98	87.5	100.0	
결측치	14	12.5		
전체 합계	112	100.0		

3. 피해자 특성

다음으로는 112건에 나타난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피해자의 수를 중심으로 피해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사건들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다수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가 수 만명에 이르는 경우도 3건(3.8%)이나 있었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은 피해자수가 백명 이상 1천명 이하의 경우로 전체의 33.8%인 27건이었으며, 다음은 백명 이하와 1인으로 각각 17.5%인 14명이었다. 다음으로 열명 이하와 만 명 이하도 각각 13.8%인 11명으로 나타났다. 사기사건 하나에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많은 피해자들이 연루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기피해의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4-15 사건당 피해자의 수

피해자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 명	14	12.5	17.5	17.5
10명 이하	11	9.8	13.8	31.3
100명 이하	14	12.5	17.5	48.8
1,000명 이하	27	24.1	33.8	82.5
10,000명 이하	11	9.8	13.8	96.3
10,000명 이상	3	2.7	3.8	100.0
유효사건	80	71.4	100.0	
결측치	32	28.6		
전체 합계	112	100.0		

계속해서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표 4-16>과 같다. 일단 피해자의 경우 역시 다수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명기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연령을 파악했음을 미리 말해둔다.

표 4-16 피해자의 연령대

피해자 연령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30	5	4.5	12.8	12.8
40	14	12.5	35.9	48.7
50	15	13.4	38.5	87.2
60	5	4.5	12.8	100.0
유효사건	39	34.8	100.0	
결측치	73	65.2		
전체 합계	112	100.0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피해자연령대는 50대로 전체 유효

효백분률의 38.5%를 차지하는 15명이 50대였고 다음은 14명(35.9%)의 40대로 나타나 4,50대가 전체 피해자의 74.4%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30대와 60대가 각각 5명으로 12.8%씩을 차지하였다. 40~50대가 많은 것은 경제적인 여유자금으로 재테크로 돈을 투자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명퇴자금이나 퇴직자금을 사기당한 경우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7 피해액

피해액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억원이하	9	8.0	9.7	9.7
1십억원이하	20	17.9	21.5	31.2
1백억원이하	31	27.7	33.3	64.5
1천억원이하	24	21.4	25.8	90.3
1조원이하	6	5.4	6.5	96.8
1조원이상	3	2.7	3.2	100.0
유효사건	93	83.0	100.0	
결측치	19	17.0		
전체 합계	112	100.0		0

* 피해액은 개인당 피해액의 기준이 아니라 사건당 피해규모임

끝으로 각 사기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살펴본 결과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액의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액수는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하라고 응답한 범주로서 전체의 33.3%를 차지하는 31건이 이에 해당하였다. 다음은 1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하의 범주로 전체의 25.8%에 해당하는 24건이 이에 해당하였으며 계속해서 1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가 20건으로 21.5%를 차지하였다. 최근 발생한 투자사기를 보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한 업체로부터 다수가 피해를 입는 특징이 있다. 심지어 수만 명이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제2절 교차분석으로 살펴본 실태

1. 가해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가. 가해자 성별에 따른 범행수법과 사건 유형

1) 가해자 성별에 따른 범행수법

표 4-18 가해자 성별에 따른 범행수법

구분		범행수법(유인요인/미끼정보)		전체	
		미끼	유인		
가해자 성별	남자	빈도	49	36	85
		남자 중 %	57.6%	42.4%	100.0%
	여자	빈도	11	2	13
		여자 중 %	84.6%	15.4%	100.0%
전체		빈도	60	38	98
		%	61.2%	38.8%	100.0%

$$\chi^2 = 3.454, p = 0.063 \text{ (n.s.)}$$

위의 <표 4-18>은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범행수법을 나타낸 것이다. 남자의 경우에는 미끼요인이 57.6%, 유인요인이 42.4%로 나타난 반면, 여자는 미끼요인이 84.6%, 유인요인이 15.4%로 나타나 남녀 불문하고 가해자들은 미끼요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 미끼요인에의 의존도가 훨씬 높았다. 즉 남자의 경우 유인에 비해 미끼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1.35배(57.6%/42.4%)에 지나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 유인에 비해 미끼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무려 5.49배(84.65%/15.4%)에 달해 남녀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미끼는 사람이나 동물을 꾀어내기 위한 물건이나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투자사기에 있어 미끼요인은 투자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은 가공의 투자상품이나 금융, 부동산, 수익사업 등 투자처를 허위로 만들어 현혹시키는 의미로 정의된다. 유인요인은 주의나 흥미를 일으켜 꼬임에

빠져들게 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투자사기에 있어 유인요인은 실제 투자상품이나 투자처가 존재하지만 부실하거나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광고, 거짓된 행위 등의 수법을 사용, 현혹시켜 끌어 들이는 행위로 정의한다. 언론에 보도된 미끼요인을 중분류와 소분류로 나눠 지는데 중분류에는 유명인·사회저명인사의 친분으로 세과시, 사업기획 제공빙자 투자사기, 고수익 빙자, 허위사실 공지 및 유포, 거액의 커미션 제의, 미끼를 통한 수수료, 운송료, 가입비 등 선불금 요구로 분류된다. 소분류에는 탤런트·가수의 친분과시, 정치인·유력인사·권력계층 등 동원 및 친분과시, 상류층과의 친분과시, 부동산업자 빙자, 금융전문가 빙자, 소액투자자의 고수익 현혹, 단기간 내 고수익 현혹, 허위의 주식정보 공시·회사정보 제공, 선불금 명목으로 통장계좌 빙자나 비자금·유산 등 빙자, 염색미화로 약품비 선불요구 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더불어 언론보도에 나타난 유인요인도 중분류와 소분류로 나눠진다. 중분류에는 해외 동산·부동산 투자, 해외 금융 투자, 국내 동산·부동산 투자, 수익사업 투자, 엔터테인먼트 투자로 분류된다. 소분류에는 해외광산·광물 투자, 해외학교 투자, 해외주식·선물·옵션 투자, 해외 펀드 투자, 국내주식·선물·옵션·비상장주식 투자, 코스닥상장 투자, 외환거래 투자, 카지노사업 투자, 부동산 경매 투자, 재용자주택사업 투자, 영화제작 투자, 부동산 구입 투자, 해외벌목사업 투자, 해외리조트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남·여를 불문하고 유인요인보다 미끼요인이 많은 것은 투자사기의 경우에 범죄집단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의 전부나 일부자금을 사업용도에 맞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자들의 투자호름을 막아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고수익 창출, 원금 보장, 확실한 투자처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정보의 수집과 판단에 의해 투자처를 모색하기 보다는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 사회친구 등 친밀한 집단의 권유에 의해 금원을 투자하는 성향이 더 높은 이유 등으로 남자보다 투자사기의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2) 가해자 성별에 따른 유형

표 4-19 가해자 성별에 따른 유형

구분			사건유형							전체
			폰지	펌프앤 덤프	역외 및 해외투자	프라임 은행	기타 (개인사기)	나이지리아 식 선불	기획 부동산	
가해자 성별	남자	빈도	42	8	0	9	19	1	6	85
		%	49.4%	9.4%	.0%	10.6%	22.4%	1.2%	7.1%	100.0%
	여자	빈도	7	1	1	0	4	0	0	13
		%	53.8%	7.7%	7.7%	.0%	30.8%	.0%	.0%	100.0%
	전체	빈도	49	9	1	9	23	1	6	98
		%	50.0%	9.2%	1.0%	9.2%	23.5%	1.0%	6.1%	100.0%
전체 %		50.0%	9.2%	1.0%	9.2%	23.5%	1.0%	6.1%	100.0%	

$$\chi^2 = 9.406, p = 0.152 \text{ (n.s.)}$$

<표 4-19>는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사건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남자 가해자의 경우에는 폰지가 4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인사기 22.4%, 프라임은행 10.6%, 펌프앤덤프 9.4%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에는 폰지가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사기 30.8%, 펌프앤덤프와 역외 및 해외투자가 각각 7.7%의 순이었다. 단 여자 가해자의 경우 전체 사례수가 13명에 불과한 데에다 사건유형이 7개로 많다보니 비어있는 셀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통계적 유의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적 유의정보다는 성별에 따른 유형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보다 많은 역점을 두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남녀 모두 폰지책략이 많은 것은 국내의 불법방문판매·다단계판매나 유사수산업체의 난립을 들 수 있다⁶⁸⁾. 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금

68) 국내 불법방문판매·다단계판매나 유사수산업체의 업체수는 공식적 통계는 없다. 단지 관련업계나 관련 시민단체인 ‘서민고통 신문고’의 노규수 소장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를 2~3배 정도가 등록을 미필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업체로 추정되나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 음성적인 영업형태, 피라미드식 구조 등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한다.

용·부동산·수익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한다. 범죄수법은 불법방문판매·다단계판매는 선순위 가입자가 후순위 가입자를 가입시키면 후원수당의 명목으로 일정부분의 수당을 받거나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이고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사업의 종류를 막론하고 선순위 가입자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은 후순위 가입로부터 충당이 되는 구조이나 최근, 국내의 불법방문판매·다단계판매 판매업체는 유사수신행위를 병행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보면 언론보도된 사례들은 폰지수법을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가해자 연령에 따른 범행수법과 사건 유형

1) 가해자 연령에 따른 범행수법

다음으로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범행수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30대에서는 미끼와 유인이라는 범행수법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40, 50대로 넘어가면서는 유인의 비율이 점차 늘어남을 알 수 있고 결국 60대가 넘는 경우엔 미끼(16.7%)보다는 유인(83.3%)의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사회경험이 지속될수록 자금을 유용하여 돈을 불리기를 원하여 어떤 식으로든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다.

표 4-20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범행수법

구분			범행수법 (유인요인/미끼정보)		전체
			미끼	유인	
가 해 자 의 연 령	30대	빈도	13	12	25
		가해자의 연령 중 %	52.0%	48.0%	100.0%
	40대	빈도	21	9	30
		가해자의 연령 중 %	70.0%	30.0%	100.0%
연 령	50대	빈도	11	6	17
		가해자의 연령 중 %	64.7%	35.3%	100.0%
	60대	빈도	1	5	6
		가해자의 연령 중 %	16.7%	83.3%	100.0%
전체		빈도	46	32	78
		가해자의 연령 중 %	59.0%	41.0%	100.0%

$$\chi^2 = 6.680, p = 0.083 \text{ (n.s.)}$$

투자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점을 인식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되도록이면 검증된 투자처를 찾고자 노력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익률이상을 욕심 부리다 결국 투자사기범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 가해자 연령에 따른 유형

다음으로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사건유형을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폰지와 기타(개인사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외의 사건유형에 있어서는 할당된 수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폰지와 기타만 놓고 보면, 폰지의 경우엔 30대와 6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기타 개인사기에 있어서는 4,50대의 중년층이 30대나 6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1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유형

구분		사건유형							전체
		폰지	펌프앤 덤프	역외 및 해외 투자	프라임 은행	기타 (개인 사기)	나이지리아 선금금	기획 부동산 사기	
연령	30대 빈도	14	3	0	3	2	0	3	25
	30대 연령 중%	56.0%	12.0%	.0%	12.0%	8.0%	.0%	12.0%	100.0%
	40대 빈도	15	1	0	1	12	0	1	30
	40대 연령 중%	50.0%	3.3%	.0%	3.3%	40.0%	.0%	3.3%	100.0%
	50대 빈도	7	0	1	2	6	0	1	17
	50대 연령 중%	41.2%	.0%	5.9%	11.8%	35.3%	.0%	5.9%	100.0%
	60대 빈도	4	0	0	0	0	1	1	6
	60대 연령 중%	66.7%	.0%	.0%	.0%	.0%	16.7%	16.7%	100.0%
	전체 빈도	40	4	1	6	20	1	6	78
	전체 연령 중%	51.3%	5.1%	1.3%	7.7%	25.6%	1.3%	7.7%	100.0%

$$\chi^2 = 31.812, p = 0.023 (p < 0.05)$$

이유는 폰지의 경우에는 투자사기중에서 조직적인 사기집단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형이다. 많은 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용이하고 단기간 내에 거액을 편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토의 개발과 함께 편승된 기획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의 호황기를 틈타 작전에 의한 시세조정, 허위공시 등을 통한 사기성 부정거래 등 펌프앤덤프, 대부호나 대기업에서 주로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역외 및 해외투자, 글로벌시대와 맞물려 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이지리아식 선불금사기도 증가추세에 있다.

다. 가해자 직업에 따른 범행수법과 사건 유형

1) 가해자 직업에 따른 범행수법

다음으로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범행수법의 차이를 보면, 전문직과 무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유인수법보다는 미끼수법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범행수법

구분		범행수법(유인요인/미끼정보)		전체	
		미끼	유인		
가 해 자 직 업	전문직	빈도	5	14	19
		가해자직업 중 %	26.3%	73.7%	100.0%
	관리직	빈도	33	16	49
		가해자직업 중 %	67.3%	32.7%	100.0%
	사무직	빈도	7	2	9
		가해자직업 중 %	77.8%	22.2%	100.0%
	판매서비스직	빈도	4	1	5
		가해자직업 중 %	80.0%	20.0%	100.0%
	무직	빈도	2	3	5
		가해자직업 중 %	40.0%	60.0%	100.0%
	기타	빈도	8	1	9
		가해자직업 중 %	88.9%	11.1%	100.0%
전체	빈도	59	37	96	
	가해자직업 중 %	61.5%	38.5%	100.0%	

$\chi^2 = 16.192$, $p = 0.006$ ($p < 0.01$)

먼저 전문직의 경우엔 유인수법이 14건(73.7%)인데 비해 미끼수법은 5건(26.3%)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무직에서도 유사하여 유인과 미끼가 각각 3건(60.0%)과 2건(40.0%)이었다. 여기에 비해 관리직은 미끼수법이 33건(67.3%)에 달하였고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역시 미끼수법이 각각 7건(77.8%), 4건(80.0%)에 달하여 유인수법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기타 직업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명문대학을 나와 주식투자 전문가, 펀드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부동산 전문가로 대학에 강의를 개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피해를 입인 사례 등이 있다. 그들의 사기수법을 보면 학력을 포장하는 경우와 언론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가로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언론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투자자들은 학력이나 각종 타이틀과 언론보도를 믿고 투자를 하다가 피해를 당한다. 투자자들 중에는 상당한 재력가들 뿐 만 아니라 주부, 자영업자, 회사원 등 골고루 망라하고 있어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가해자 직업에 따른 사건유형

다음으로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사건유형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직종에서 폰지와 기타(개인사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3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사건유형

구분		사건유형							전체	
		폰지	펌프 앤덤프	역외 및 해외투자	프라임 은행	기타 (개인사기)	나이지리아식 선불 사기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가해자 직업	전문직	빈도	13	0	0	1	4	0	1	19
		%	68.4%	.0%	.0%	5.3%	21.1%	.0%	5.3%	100.0%
	관리직	빈도	24	8	0	7	5	0	5	49
		%	49.0%	16.3%	.0%	14.3%	10.2%	.0%	10.2%	100.0%
	사무직	빈도	5	1	1	0	2	0	0	9
		%	55.6%	11.1%	11.1%	.0%	22.2%	.0%	.0%	100.0%
	판매 서비스직	빈도	3	0	0	1	1	0	0	5
		%	60.0%	.0%	.0%	20.0%	20.0%	.0%	.0%	100.0%
	무직	빈도	1	0	0	0	4	0	0	5
		%	20.0%	.0%	.0%	.0%	80.0%	.0%	.0%	100.0%
	기타	빈도	3	0	0	0	5	1	0	9
		%	33.3%	.0%	.0%	.0%	55.6%	11.1%	.0%	100.0%
	전체	빈도	49	9	1	9	21	1	6	96
		%	51.0%	9.4%	1.0%	9.4%	21.9%	1.0%	6.3%	100.0%

$$\chi^2 = 51.049, p = 0.01 (p < 0.05)$$

먼저 폰지의 경우 전문직 13건(68.4%), 관리직 24건(49.0%), 사무직 5건(55.6%), 판매서비스직 3건(60.0%) 등이 50% 혹은 그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타사기는 무직 4건(80%), 기타 5건(55.6%)의 경우가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직종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리직과 사무직에서 펌프앤덤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펌프앤덤프의 특성상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 경제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게 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관리직과 사무직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문직의 경우도 관리직이나 사무직과 유사한 관심과 지식을 가질 수 있음에도 펌프엔덴프의 비중이 많지 않은 것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2. 피해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가. 피해자 성별에 따른 범행수법과 사건 유형

1) 피해자 성별에 따른 범행수법

<표 4-24>는 피해자 성별에 따른 범행수법을 살펴본 것이다.

표 4-24 피해자 성별에 따른 범행수법

구분			범행수법(유인요인/미끼정보)		전체
			미끼	유인	
피해자 성별	남자	빈도	13	9	22
		피해자성별 중 %	59.1%	40.9%	100.0%
	여자	빈도	13	6	19
		피해자성별 중 %	68.4%	31.6%	100.0%
전체		빈도	26	15	41
		피해자성별 중 %	63.4%	36.6%	100.0%

$$\chi^2 = 0.383, p = 0.536 \text{ (n.s.)}$$

표를 보면, 남성 피해자의 59.1%, 여성 피해자의 68.4%가 미끼요인에 의한 사기를 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치상으로는 미끼요인에 의한 피해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지만, 그 차이가 크게 두드러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다.

언론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본테이타가 기재되지 않은 보도가 많아 통계를 잡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남·여 모두 미끼요인이 높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가공의 투자상품이나 금융, 부동산, 수익사업 등의 허위의 투자유혹에 속은 것이다. 주된 원인은 고수익을 가장한 미끼이다.

2) 피해자 성별에 따른 사건유형

다음으로 <표 4-25>는 피해자 성별에 따른 사건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4-25 피해자 성별에 따른 사건유형

구분		사건유형							전체
		폰지	펌프 앤 덤프	역외 및 해외투자	프라임 은행	기타 (개인사기)	나이지리 아식 선불 사기	기획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자 1 성별	빈도	13	2	0	1	5	1	0	22
	성별 중 %	59.1%	9.1%	.0%	4.5%	22.7%	4.5%	.0%	100.0%
	빈도	9	0	1	0	8	0	1	19
	성별 중 %	47.4%	.0%	5.3%	.0%	42.1%	.0%	5.3%	100.0%
전체	빈도	22	2	1	1	13	1	1	41
	성별 중 %	53.7%	4.9%	2.4%	2.4%	31.7%	2.4%	2.4%	100.0%

$$\chi^2 = 7.239, p = 0.299 \text{ (n.s.)}$$

이를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폰지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자의 59.1%, 여자의 47.4%가 폰지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타(개인사기)로 남자의 22.7%, 여자의 42.1%가 기타 개인사기의 피해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녀 간에 비교를 해보면 여자들의 경우 기타 개인사기의 피해가 남자보다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개인투자사기의 경우에 여자의 피해가 많은 것은 친밀한 집단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믿고 금원을 투자하다가 사기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밀한 집단에는 친지나 가까운 이웃, 사교 모임 집단 등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욱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관계에서 투자유혹은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에 더욱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연령에 따른 범행수법과 사건 유형

1) 피해자 연령에 따른 범행수법

<표 4-26>은 피해자 연령에 따른 범행수법이다.

표 4-26 피해자 연령에 따른 범행수법

구분			범행수법(유인요인/미끼정보)		전체
			미끼	유인	
피해자의 연령	30대	빈도	3	2	5
		피해자의 연령 중 %	60.0%	40.0%	100.0%
	40대	빈도	9	5	14
		피해자의 연령 중 %	64.3%	35.7%	100.0%
	50대	빈도	12	3	15
		피해자의 연령 중 %	80.0%	20.0%	100.0%
	60대 이상	빈도	2	3	5
		피해자의 연령 중 %	40.0%	60.0%	100.0%
전체	빈도	26	13	39	
	피해자의 연령 중 %	66.7%	33.3%	100.0%	

$\chi^2 = 2.936$, $p = 0.402$ (n.s.)

표를 보면, 30대 피해자의 경우 미끼요인에 의한 피해가 60%, 유인요인에 의한 피해가 40%, 40대는 미끼요인 64.3%, 유인요인 35.7%, 50대는 미끼요인 80%, 유인요인 20%, 60대 이상은 미끼요인 40%, 유인요인 60%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의 경우, 가해자 연령에서도 유인요인이 미끼요인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는 노년층 가해자가 주로 노년층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나타난 현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2) 피해자 연령에 따른 사건유형

<표 4-27>은 피해자 연령에 따른 사건유형이다.

표 4-27 피해자 연령에 따른 사건유형

구분		사건유형							전체
		폰지	펌프앤덤 프	역외 및 해외투자	프라임 은행	기타(개인 사기)	나이지리 아식 선불사기	기획 부동산 투자사기	
피해 자의 연령	30대	빈도	2	0	0	0	3	0	5
	연령 중 %	40.0%	.0%	.0%	.0%	60.0%	.0%	.0%	100%
	40대	빈도	6	1	1	1	4	0	14
	연령 중 %	42.9%	7.1%	7.1%	7.1%	28.6%	.0%	7.1%	100%
	50대	빈도	7	0	0	0	7	1	15
	연령 중 %	46.7%	.0%	.0%	.0%	46.7%	6.7%	.0%	100%
	60대	빈도	4	1	0	0	0	0	5
	이상	연령 중 %	80.0%	20.0%	.0%	.0%	.0%	.0%	100%
	전체	빈도	19	2	1	1	14	1	39
	연령 중 %	48.7%	5.1%	2.6%	2.6%	35.9%	2.6%	2.6%	100%

$$\chi^2 = 14.742, p = 0.680 (n.s.)$$

30대의 경우엔, 기타 개인사기 피해의 비중이 60%로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나머지 연령층의 경우엔 대부분 폰지사기 피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50대의 경우엔, 폰지피해와 기타 개인사기 피해가 모두 46.7%로 같게 나타나기는 하였다. 30대의 경우 기타 개인사기 피해의 비중이 높은 것은 통상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의 권유 등으로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0대 이상, 폰지의 피해가 높은 이유는 국내 불법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의 경우 피해자들이 부업으로 하는 것보다 전업형태로 이루어져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에는 금전적·정신적·관계적 피해로 나뉘볼 수 있다(양승돈, 2009: 91-92).

다. 피해자 직업에 따른 범행수법과 사건 유형

1) 피해자 직업에 따른 범행수법

위의 <표 4-28>은 피해자 직업에 따른 범행수법이다. 대체로 관리직, 판매서비스직, 무직, 기타직업의 경우엔 미끼요인에 의해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데 비해, 생산직과 농어축산업의 경우엔 유인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생산직이나 농어축산업의 경우엔 사례수가 적어서 이와 같은 경향을 선분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 4-28 피해자 직업에 따른 범행수법

구분				범행수법(유인요인/미끼정보)		전체
				미끼	유인	
피해자 직업	전문직	빈도		1	1	2
		피해자 직업 중 %		50.0%	50.0%	100.0%
	관리직	빈도		5	2	7
		피해자 직업 중 %		71.4%	28.6%	100.0%
	사무직	빈도		6	6	12
		피해자 직업 중 %		50.0%	50.0%	100.0%
	판매서비스직	빈도		3	0	3
		피해자 직업 중 %		100.0%	.0%	100.0%
	생산직	빈도		0	1	1
		피해자 직업 중 %		.0%	100.0%	100.0%
	농어축산업	빈도		1	2	3
		피해자 직업 중 %		33.3%	66.7%	100.0%
	무직	빈도		3	1	4
		피해자 직업 중 %		75.0%	25.0%	100.0%
	기타(주부 등)	빈도		3	2	5
		피해자 직업 중 %		60.0%	40.0%	100.0%
전체		빈도		22	15	37
		피해자 직업 중 %		59.5%	40.5%	100.0%

$$\chi^2 = 5.699, p = 0.575 \text{ (n.s.)}$$

2) 피해자 직업에 따른 사건유형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사건유형을 살펴보면 <표 4-29>와 같다.

표 4-29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사건유형

구분		사건유형							전체
		폰지	펌프 앤덤프	역외및 해외투자	프라임 은행	기타 (개인 사기)	나이지 리아 선급금	기획 부동산 투자사기	
직업	전문직	빈도	0	0	0	2	0	0	2
		%	.0%	.0%	.0%	100%	.0%	.0%	100.0%
	관리직	빈도	3	0	0	3	1	0	7
		%	42.9%	.0%	.0%	42.9%	14.3%	.0%	100.0%
	사무직	빈도	5	1	1	3	0	1	12
		%	41.7%	8.3%	8.3%	25.0%	.0%	8.3%	100.0%
	판매서비스직	빈도	1	0	0	2	0	0	3
		%	33.3%	.0%	.0%	66.7%	.0%	.0%	100.0%
	생산직	빈도	1	0	0	0	0	0	1
		%	100%	.0%	.0%	.0%	.0%	.0%	100.0%
	농어축산업	빈도	3	0	0	0	0	0	3
		%	100%	.0%	.0%	.0%	.0%	.0%	100.0%
	무직	빈도	2	0	0	2	0	0	4
		%	50.0%	.0%	.0%	50.0%	.0%	.0%	100.0%
	기타(주부 등)	빈도	3	1	0	1	0	0	5
		%	60.0%	20.0%	.0%	20.0%	.0%	.0%	100.0%
	전체	빈도	18	2	1	13	1	1	37
		%	48.6%	5.4%	2.7%	35.1%	2.7%	2.7%	100.0%

$$\chi^2 = 23.062, p = 0.992 \text{ (n.s.)}$$

전반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직종에서 여전히 폰지사기 피해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는 기타(개인사기)의 비율이 각각 100%와 66.7%로 폰지사기의 비율보다도 더 높았고, 관리직과 무직의 경우엔 폰지사기 피해와 기타(개인사기) 피해가 모두 42.9%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변수와 사건유형변수의 변수값(value)이 많아 셀이 많아졌고 결국 각 셀에 할당된 사례들이 적어진 탓에 표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5장

투자사기의 원인

투자사기의 원인

투자사기의 원인으로는 거시적인 원인과 미시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절 사회구조와 문화적 수준의 이론

먼저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기와 같은 경제적 범죄가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는 크게 구조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및 기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따른 제도적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정보화의 진행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이 급속히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잠재적 범죄자들은 정보화 사회의 기술발달에 따른 구조적 약점을 찾아간다. 또한 나이지리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적절한 경제운용은 국민들의 투자욕구를 비정상적인 곳에서 해소하도록 몰아갈 수도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나 태도, 생활양식이 범죄지향적인 가치를 심어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명예와 신념을 중시하던 문화에서 경제적 성공을 중시하는 가치지향의 변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허구적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경제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더구나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경쟁자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상대적인 박탈감을 통해 한탕주의적 도약에 천착하게 한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는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투자사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기회적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화적 풍토변화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 가해자요 잠재적 피해자화 되고 기본적인 가해자-피해자 풀(pool)이 성장함에 따라 양자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게 되었다. 더욱이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세계가 전개됨에 따라 익명의 다수가 고도의 기술로 무장한 상태에서 무방비상태의 초보자들을 맘대로 유린할 수 있는 기회가 도처에 널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다.

제2절 개인적 수준의 이론

다음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투자사기의 요인을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노미 이론이다.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 집합적 수준의 아노미는 부에 대한 개인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들을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로 몰아버리는 주범이 된다. 다음으로는 학습이론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변의 중요한 타자들 특히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같이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인물들로부터 투자에 대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학습하게 되면서 투자사기에로의 잠재적 가해자 및 피해자로 성장해 나아간다. 이러한 가치와 태도의 형성은 주변사람들 특히 투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투자 및 경제활동에 더 우호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투자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더욱 많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물론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동일하다고 볼 때에는 분명 우호적 태도를 지닌 사람이 더욱 많은 투자를 고려하게 되고 이에 따른 위험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제6장

투자사기에 대한 대책

투자사기에 대한 대책

제1절 경매사기에 대한 대책

경매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라.
- 판매자에 대한 평가(feedback)를 읽고 평가하라.
- 판매자의 주소를 파악하라. 판매자가 해외에 거주하면 문제발생시 처리가 더욱 어렵다.
- 경매가에 택배료가 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비용을 묻지 마라.
- 신상정보절도를 예방하려면 판매자에게 주민번호(SSN)나 운전면허번호(DLN)를 주지마라.

제2절 미국 국제투자사기 대책의 교훈

모든 투자에 있어 기본적인 시작점(or 안전원칙은) 손실(loss)에 대한 대비이며 특히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기피해에 대한 최선책은 “투자하기 전에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투자기회가 왔을 때에는 더더욱 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미국의 경우 귀금속, 저가주식 투자사기(Penny Stock), 광산투자사기(Mining Coin), 통화사기(Currency Speculation), 특수 외국은행도구, 해외사업기회 등을 포함하는 해외투자사기에 관한 불평은 꼬박꼬박 일정수준을 유지하며 국정원이 나 지방사업국(BBB)⁶⁹⁾에 신고된다고 한다. 최근 들어 미국의 단속기관 공무원들이 더 우려하는 것은 최근의 분쟁으로 분열된 나라들을 재건하는데 투자하라는 제안들이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역외투자(해외투자)로부터 투자펀드를 회복하고 법집행기관들이 투자사기자(scammer)들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제법과 범인인도조약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 및 사법당국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기획자들이 외국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메일이나 다른 전자광고방식을 사용하는 점은 이들 범죄자들을 소환하여 법정에 세우는 것을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상적인 해외투자조차도 때때로 시장규제의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과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투자자들이 전 지구적으로 또는 미국 내에서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간단한 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과대광고(hype)를 믿지 마라

동료 투자자들에게 귀 기울이다가 사업뉴스에 관한 정기기고문을 읽게 된다면 그게 어떤 업종에 관한 것이든 “정말 뜨거운 투자처”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가 쉽다. 단지 그 무리에 끼기 위해 해외든 어디든 당신의 돈을 보내려고 안달하지 마라. 당신의 투자가 당신의 재정적 목표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특히, 리스크를 감당할 당신의 능력을 확인하라.

69) Better Business Bureau

2. 숙제를 하라

투자목적으로 송금하고자 생각하는 국가에서 투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투자사기 및 남용으로 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당신의 투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종의 소송 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어찌 하겠는가? 문제해결을 위해 어느 나라 정부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 시간 또는 자원이 없다면 투자를 보류하라.

3. 국제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더 좋다는 법은 없다

국제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더 좋다는 법은 없다. 비록 최근의 투자경향 상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로의 투자기회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나으라는 법은 없다. 사실상, 사법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의 실제 위험수위는 - 비록 주류 시장상품이라 하더라도 - 시장이 잘 규제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투자위험수위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송금을 했다면, 해외에서는 외국기업 혹은 개인에 대한 법원의 활동을 기대하는데 따른 실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 돈을 회복하기란 불가능할 수도 있다.)

4. 주증권기관이나 BBB와 불만을 상의하라

투자상품이 당신에게 팔렸다면 그 중개인은 주 증권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한다. 해외투자중개인이 어떤 이유로 주 및 연방 증권법등록요건에서 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무시하라 - 그들이라고 면제되지 않는다는. 또한 의문이 드는 회사에 대해 BBB(Better Business Bureau)에 문의할 시간을 가지라. BBB는 그 기업과 맺은 다른 고객의 경험기록이 있거나 그 회사에 대해 정부가 취한 활

동기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5.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다른 사람이 유럽에 유정(油井)이 있다거나 남아메리카에 금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당신의 투자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멋들어지게 만들어져서 마치 그 기업이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브로슈어(brochure)에 속지마라. 당신 스스로의 투자를 개인적으로 점검할 계약자 또는 금융자원이 없다면 돈을 포기하기 전에 주의깊게 살펴보라.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그들이 잘 아는 사람들과 거래할 것과 그들이 이해하는 것에 투자하라는 조언을 받는다. 만약 낯선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어떤 국외투자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으니 “즉시” 투자하라고 종용(慫恿)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제3절 StopFraud.gov와 같은 웹사이트의 필요성

2010년 4월 10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미국인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사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신고하는가에 대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형식의 웹사이트가 신설되었다. 이름하여 StopFraud.gov가 바로 그것이다. 이 사이트는 재정적 사기집행 태스크포스(Financial Fraud Enforcement Task Force: FFETF)라는 이름으로 여러 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자원을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태스크포스 및 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 공지 및 교육적 자료가 제공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관련범죄를 수사, 기소하고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형벌을 가하며, 대출 및 재정시장에 있어서의 차별을 시정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11월 FFETF를 창설하였다. 이로써 FFETF는 2002년 설립돼 유사한 일을 해오던 기업사기 태스크포스(Corporate Fraud Task Force: CFTF)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연방기관, 규제

담당관, 변호사 및 군감찰관, 그리고 주 및 지방 법집행관리 등이 소속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다.

사실 오바마대통령은 재정위기를 불러온 사람들과 경제회복기에 이루어진 각종 수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이 태스크포스는 정부, 주 및 지방의 협력자들이 중요한 재정범죄를 수사 및 기소하고, 재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벌을 내리며, 피해자들에게는 희생절차를 돕게 하고, 대부 및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차별문제에 대해 고심하게 하기위한 것이다. 그 결과 20개 이상의 연방기관, 94개의 미국연방지방 검찰청 및 그와 관련된 주 및 지방 검찰청이 모임으로써, 사기와 대항하기 위해 여지껏 결집한 가장 큰 규모의 법집행, 수사 및 규제기관들의 모임이다. 이 태스크포스는 이 광범위한 모임이 수행하는 지상명령이 실제적인 효과를 보이도록 돕기 위해 전미 지역에 산재하는 모든 미국검찰기관에 금융사기조정관제도를 설립하였다.

이들이 대응하는 금융사기란 사실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사기 자체가 대단히 다양한 양태를 띠기 때문일 뿐 아니라 사기꾼들도 다양한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대출사기로부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폰지사기, 정부의 재원으로부터 돈을 훔쳐내는 조달사기, 취약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약탈적 대출,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증권사기 등 다양한 양태를 띠게 된다. 그러나 미국 국민은 사기꾼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사기와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연방, 주 및 지방협력체들로 이루어진 거대연합체인 것이다.

FFETF의 임무는 대단히 넓은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해결해야할 문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태스크포스는 이들 사기꾼들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태스크포스에 포함된 구성원들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⁷⁰⁾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검찰청(U.S. Attorneys' Offices), 재무부

70) 각 기관의 한국어 명칭은 部, 院, 室, 局, 廳, 會, 網, 本部, 팀(team) 등으로 적절하게 배분하였으며 시중의 구분별한 번역인 局, 廳의 남용을 지양하였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준비제도 주지사위원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주택금융공사(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저축은행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 재무부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범죄수사팀(Criminal Investigations), 금융범죄단속망(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미국 연방보안관본부(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미국우정사찰본부(United States Postal Inspection Service), 미국비밀경호본부(United States Secret Service), 미국이민관세사무소(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회복책임투명성위원회(Recover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 국가신용연합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북미증권행정협회(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 전미검찰청장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Attorneys General), 전미지방검사협회(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제4절 미국증권거래위원회⁷¹⁾ 활동의 교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의 임무는 공정하고 질서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자본형성이 용이하도록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점점

71) <http://www.sec.gov/about/whatwedo.shtml>

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미래의 안전, 주거안정, 아이들의 교육 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SEC의 투자자 보호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져 가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미국내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투자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건전한 시장규제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커져 가고 있다. 더구나 거의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기준을 고양하며, 자산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라고 할 때, SEC의 활동은 그러한 경제성장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본의 형성쪽으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사실 투자의 세계는 매혹적이고 복잡하며 많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예금을 보장해주는 은행의 세계와는 달리 주식, 채권 및 다른 증권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보장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투자는 관중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스포츠가 아닌 이유이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투자한 돈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구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다.

미국 증권산업계를 지배하는 법과 규칙은 단순하고 간단한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즉 투자의 주체가 기관이든 개인이든 모든 투자자들은 증권을 사기 전에 혹은 투자한 증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투자한 내용에 대한 일정한 기본적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EC는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들에 대한 유의미한 재정적인 정보 및 다른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지식풀이 형성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한 증권을 살지, 팔지, 혹은 그냥 가지고 있을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건전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흐름으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인 자본의 형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활동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자본시장이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정보의 흐름이 제한되고 왜곡된다면 건전한 자본시장의 형성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항상 달성될 수 있도록 보험을 든다는 차원에서 SEC는 모든 주요 시장참여자들과 - 특히 증권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을 포함한 - 공동의 작업을 지속하면서 그들의 관심과 우려에 귀를 기울

이고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있다.

SEC는 증권거래소, 증권브로커나 딜러, 투자 상담가, 뮤추얼 펀드 등을 포함한 모든 증권 세계의 핵심 참여자들을 감독하고 있다. 특히 SEC는 중요한 시장-관련 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며, 사기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각 분야에 있어 SEC의 효율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집행권한이다. SEC는 매년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수백 건의 민사 활동을 집행하고 있다. 전형적인 위반사항으로는 내부자거래, 계좌사기, 증권 및 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한 거짓 혹은 왜곡된 정보제공 등이다.

집행활동을 벌이기 위해 SEC가 의존하는 주요 정보원 중의 하나는 투자자들이다. 교육수준이 높고 세심한 투자자들은 시장의 효율적 기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투자자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SEC는 대중들에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엄청난 양의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공개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개서류들로 구성된 EDGAR⁷²⁾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된다.

비록 이것이 미국 증권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이자 제제이지만, SEC는 그 외의 다른 공식기관 즉 국회, 여타 연방정부부처 및 기관, 자기규제기관(증권거래소), 州증권규제소, 및 여타 사설부문조직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특히 SEC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재무부장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과 함께 재무시장에 관한 대통령 실무진의 멤버로 봉사하게 된다.

72) 미국 내 모든 국내외 기업은 등록정보, 주기적 보고서, 및 다른 형태의 정보를 EDGAR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이 정보는 누구나 무료로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 EDGAR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서 얻어낼 수 있다. (<http://www.sec.gov/edgar.shtml>)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소위 국내외의 투자사기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투자사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다. 많은 사회과학적 개념이 그러하듯 투자사기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넓고 불명확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사기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투자사기의 개념이 너무 제한적이면 연구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양한 사기 유형 가운데 더 큰 재산과 권리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 및 권리의 일부를 송금, 전송, 위탁 등의 형태로 피의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이를 크게 투자라는 개념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투자사기에 대해 소개하였다. 다양한 투자사기의 실태 가운데 나이지리아의 선급금과 관련한 419 코드, 폰지책략, 펌프덤프책략, 집단투자사기(뮤추얼 펀드와 기획부동산), 프라임 은행 등의 수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범죄조직에 의한 온라인 투자사기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기본적으로 선급금사기는 소액의 투자를 통해 거액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미끼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폰지책략은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들로 하여금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문제는 투자에 따른 이익배당이 투자를 유지한 회사(조직)의 정당한 기업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투자자 스스로의 투자액이나 장차의 잠재적 투자자들의 투자액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펌프덤프책략은 사기의 주체가 무수의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특정 주식에 대한 거짓이나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전파시킴으로써 인위적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후,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급등한 가격에 되팔고 주가는 폭락시킴으로써 타인의 희생 위에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집단투자사기는 뮤추얼펀드나 기획부동산의 형태로 발생하는데 일정한 투자를 놓고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이익실현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집단으로 투자하는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 투자자들 가운데 기획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제3의 인물이 기획을 할 수도 있으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투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만 기획자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기대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사기를 위한 허위모집이나 허위광고인 까닭에 투자 초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끝으로 프라임뱅크 프로그램은 소위 은행의 명성을 이용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 투자에 따른 위험은 없으며 100%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잠적하는 수법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투자기법에 대해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고 발생맥락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나이지리아에서 국제투자사기가 창궐하게 된 것은 그 나라가 가진 사회경제적 모순에서 비롯된 범죄조직과 정치적 부패가 상호작용하면서 사태를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많은 조직과 국가들이 대응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법의 신속성과 난해성, 서구매체의 선정적 보도관행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게 되었다. 이러한 선금급 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였는데 1980년대 S무역상사가 아프리카 지역과의 첫 무역거래국 나이지리아에 타이어를 수출하여 물품을 선적완료했으나 수출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사례로 확인 결과 신용장에 기재된 바이어와 은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였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투자사기범죄의 실태를 보다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하여 보았다. 유형별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많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112개의 분석된 사례 가운데 폰지 사기가 50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타의 개인사기 24건(21.4%), 나이지리아 선불사기 13건(11.6%)의 순이었으며 펌프앤덱프와 프라임은행은 각각 9건(8.0%)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기획부동산사기가 6건(5.4%)이 있었고 역외 및 해외투자는 단지 1건에 불과하였다. 조사된 투자사

기의 유형 가운데 폰지책략이 많이 나타난 것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차분석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이 차별화되었으며, 특히 가해나 피해의 경우를 막론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끼요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또한 투자사기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거시적 차원에서 투기적 문화의 형성,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구조적 발달, 인터넷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환경적 요소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에 따른 아노미와 개인적 긴장이 투자사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주변인물들로부터의 학습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사기범죄는 대상의 연령, 수입, 학력, 지적 수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사기범죄자들은 전문적인 지식, 세련된 매너, 친밀한 목소리, 끈질기고 설득력 있는 대화술,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능통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서 범행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경제적인 성공이 삶의 최고목표가 되어 버린 문화적 풍토에서 작은 투자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이지리아 AFF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지도층이 부패한 양상을 보이거나 경제성공을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적절하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할 경우 비합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라도 재산을 증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음도 이해해야 한다. 한 사회의 정치구조 및 경제구조에 따른 국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투자사기의 문제는 최근에 이루어진 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이제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조직화된 범죄집단까지 개입하여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정도로 복잡다단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차 국제수준에서의 투자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수준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전 국민이 안전하게 투자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순래 외. 2010.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서울.
- 소비자보호원(2006), “유사부동산중개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정보원(2006),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은 이렇게”.
- KORTA(2005), “아프리카 무역사기 Trend 변화 및 시사점”.
- 양승돈(2009), “불법다단계판매의 피해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문연(2009), “보험회사의 헤지펀드투자 개선방안-Madoff의 펀지금융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손해보험. 통권 제484호, 33-49.
- 권종호(2001), “사이버증권거래상의 불공정거래”, 증권법연구, 제2권제2호, 1-32..
- Adogame, Afe. 2009. The 419 Code as Business Unusual: Youth and the Unfolding of the Advance Fee Fraud Online Disclosure,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7. 551-573
- Ames, B. 2007. *Online Spending Tops US\$100 Billion*, *Computerworld.com.au* 05 January
- Bandura, A. 1999. Social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21-41
- Bernardo Obando-Rojas, Ian Welsh, Michael Bloor, Tony Lane, Vidu Badigannavar and Michael Maguire. 2004. The political economy of fraud in a globalised industry: the case of seafarers' certifications, *The Editorial Board of The Sociological Review* 2004. Published by Blackwell Publishing Ltd., 9600 Garsington Road, Oxford OX4 2DQ, UK and 350 Main Street, Malden, 02148, USA.
- Findlay. M. 1999. *The Globalization of Crime: Understanding transnational*

- Relationships i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ntz, J. F., Reinsel, D., Chute, C., Schlichting, W., McArthur, J., Minton, S., et al.(2007), The expanding digital universe, *IDC white paper* March
- Haydee I. Alfonso. 2000. Mortgage Fraud Prevention Program: Volunteer Legal Services Program of the Bar Association of San Francisco,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Vol. 12(2)
- Hazel Croall. 2009. White Collar Crime, Consumers and Victimizaition, *Crime, Law and Social Change* 51: 127-146
- Ken Evola and Nicole O’Grady. 2009. As fraud schemes proliferate . are you the next investor to crash and burn? *JOURNAL OF INVESTMENT COMPLIANCE* VOL. 10 NO. 2 2009, pp. 14-17, Q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Kim-Kwang Raymond Choo and Russel G Smith. 2008. Criminal Exploitation of Online Systems by Organised Crime Groups, *Asian Criminology* 3:37-59
- Lyman, P., and Varian, H.R. 2003. *How much information 2003?* <http://www.sims.berkeley.edu/how-much-info-2003>.
- Natasha Tusikov, A. 2008. Mortgage fraud and organized crime in Canada: strategic intelligence brief, *Trends in Organized Crime* 11:301.308.
- Stephen Greenspan. 2009. Fooled by Ponzi, *Skeptic*; 14, 4; Research Library
- Susan B. Anders. 2010. Website of the Month: StopFraud.com, *Technology: What to bookmark*, The CPA Journal.
- Ve’ronique Pujas. 2003.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 European policy to fight against economic and financial fraud?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0:5 October 2003: 778.797

【검색】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www.okmedia.or.kr), 2010년 12월 10일 검색.
<http://www.spamlaws.com/internet-fraud-stats.html>

http://www.nasaa.org/Investor_Education/Investor_Alerts_Tips/290.cfm

<http://www.investopedia.com/university/scams/scams1.asp>

Abstract

A Study on the Types and Treatment of the Investment Fraud

HWANG Ji Tae · Cheong Sun Park · Yang Seung Don

In the era of information that IT technology has developed remarkably, crimes have been advanced and developed in various ways. The fraud that one makes effort to earn economic advantages by deceiving tends to be internationalized and globalized. Foreigners' crimes in the nation is increasing and the Koreans' suffering from losses and damages by international fraud is also increasing. In particular, investment fraud that deprives someone of money and properties by deceiving is drawing attention among people.

The government authority,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s cognized seriousness of investment fraud crimes at home and abroad so that they took various kinds of measures to alleviate risks and impacts that became ineffective and invalid. The fraud crime has been developed in the world so that individuals,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 are difficult to judge truth of the transaction.

As such, investment fraud at home and abroad is being developed in various and complicated way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s and development from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to examine actual conditions and types of transactions and to find out causes of each problem

and to suggest proper and effective measures.

A study on types and measures of investment fraud at home and abroad can expand criminology to help theoretically and methodologically and to prevent citizens from suffering from losses and damages by fraud. This study investigated types, methods, development of affairs and measures, etc of investment fraud at home and abroad that the press publicly disclosed, for instance, Nigerian advance payment fraud, Ponzi scheme, pump-and-dump, collective action fraud, overseas investment fraud, Prime Bank fraud and others.

At first, the study defined concept of investment fraud exactly. Limited concept of investment fraud can decrease subject so that the investment included transfer of a part of his or her property and rights to a criminal suspect by transfer of money, transmission and consignment to earn large property and rights. The study investigated investment fraud, for instance, Nigerian advance payment related 419 code, and online investment fraud. And, the study investigated causes of more investment fraud from macroscopic point of view, for instance, creation of speculative culture, structural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in the era of information society,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Internet at living lives. And, the study investigated anomie and personal tension because of gap between cultural goal and systematic means from microscopic point of view that were major causes of investment fraud. Learning from the acquaintance was thought to have influence to a certain degree.

Everyone can be a victim of fraud crime regardless of age, income, educational background and intelligence. In particular, swindlers often have special knowledge, good manner, soft voice, persistent and persuasive talking and good counteraction against crisis enough to deceive a target of the crime easily. These days, in the cultural climate that economic success has become the highest goal of the life, the one who wants to earn money with small

amount of investment cannot be blamed. As Nigerian AFF showed, so people may like to increase property in unreasonable and abnormal way when the government does not manage economic crisis properly and leaders are corrupt and most of the people who want to be economically successful are unable to find out a target of investment. The national consciousness at political structure as well as economic structure at a society may play so much important role. The investment fraud cannot be limited to a country owing to develope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to include organized crime groups and to be complicated at global level. To take action against investment fraud at international level, exact diagnosis and measures at various kinds of levels are needed based on contents of this stud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all take special measures and make best effort to let citizens invest safely and to live good economic lives.

001번

탤런트 겸 연예기획사대표 김○○(47세) - **해외광산투자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사례

2008년 9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 M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사가 재정난에 빠지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김○○(49세)에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면 함께 투자해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받아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

※ 출처: 2010년 1월 22일 서울신문/ 조선닷컴/ 미주한국일보/ 부산일보/ 스포츠 칸/ 뉴스웨이/ 파란뉴스/ 투데이 코리아/ 미디어 다음/ 아시아 경제/ MT 뉴스/ 굿데이 스포츠/ 미디어 야후/ 일간스포츠/ 재경일보/ 광남일보

002번

중견 엔터테인먼트업체 A연예기획사 대표 박○○(41세)와 오○○(40세) - **코스닥상장 주식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사례

2008년 4월경 박○○(41세)와 오○○(40세)는 유명 영화배우와 탤런트 7명이 소속돼 있던 중견 연예기획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획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연예기획사 전·현직 대표들이 소속된 인기 탤런트 김○○와 이○○ 등을 내세우고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 실린 홍보자료를 배포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 관련 케이블 PP(채널사업자)를 증권 시장에 상장한다. 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국이 코스닥(KOSDAQ)에 상장되는 10월 이후에는 원금 보장은 물론 매달 5%의 고수익을 내주겠다.”

고 속이고 직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이른바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 887명으로부터 주식투자명목으로 104억원의 투자금을 착복하여 40억원은 케이블 방송국 등의 손실비용으로 나머지 64억원은 투자자 모집책 등에게 지급한 혐의

※ 출처: 2010년 3월 23일 SBS 뉴스/ 한겨레신문/ 조선닷컴/ SBS 뉴스/ 시사신문/ YTN 뉴스/ 서울신문/ 판도라 TV/ 동양일보/ 재정일보/ 스포츠 칸/ 미디어 야후/ 중앙일보/ 뉴스포스트/ 시사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 서울/ 티브이데일리/ 미디어 다음

003번

A엔터테인먼트 대표 박○○(36세) - 유명가수 **홍콩공연미끼**로 투자사기 사례
2009년 10월경 A엔터테인먼트 대표 박○○는 유명가수 정○○(28세)의 아시아투어 ‘레전드 오브 레이니즘’ 홍콩공연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실은 콘서트 VIP 티켓이 거의 판매되지 않았고 공짜표나 할인표를 대량 발행할 계획이었고, 공연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금 회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문○○등 15명에게 “현재 VIP석이 다 팔려 투자원금이 보장되며, 투자수익이 생기면 1순위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겠다. 공짜표나 할인표는 발행되지 않고 발행이 될 경우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속인 뒤 총 15억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

※ 출처: 2010년 12월 1일 문화일보/ 조선닷컴/ 중앙일보/ 다음미디어/ 네이버 뉴스/ 조선닷컴/ 디지털타임즈/

004번

미국외교관 D.T(52세) - 외교관신분이용, **필리핀에 컴퓨터학교** 투자사기 사례
2007년 8월경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의 외교관 D.T는 부산의 모 호텔에서 한국인 여성 이○○(50세)에게 외교관신분을 이용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컴퓨터 학교 설립 사업계획서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 외국에서 교통사고로 미국인 남편을 잃은 이○○가 거액의 보상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편취할 목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시에 컴퓨터 학교를 설립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필리핀 컴퓨터학교 투자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2억 1천 500여만원(미화 22만 달러)을 받아 챙긴 혐의

※ 출처: 2011년 1월 6일 연합뉴스/ KBS 뉴스 / 미디어 다음/ 아시아 경제/ 코리아 데일리 뉴스/ 미디어 야후/ 동아일보/ MK뉴스/ 한국일보/ 다음 플레이스/ 네이버

005번

前대통령동생 전○○(68세) - **외자유치** 투자사기 사례

2004년 4월 전○○는 외자유치를 한 경험이 전혀 없고, 외자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음에도 전직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신분과 배경을 이용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광주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건설사 대표이사 장○○(51세)에게 “아파트 1000세대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에 소요되는 1억 달러(당시환율 1000억)를 유치해주겠다”고 하면서 1조 원대의 해외 차명계좌를 담보로 지급보증을 서주겠다고 제안하는가 하면 액면가 1억 달러짜리 채권을 보여주면서 막대한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장○○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 원 등 2회에 걸쳐 7억 원을 교부 및 공범 서○○(53세)와 함께 건설업자 H씨로부터 3회에 걸쳐 8억 원을 등 15억원과 미화 7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

※ 출처: 2010년 5월 13일 한국일보/ 미디어 야후/ 일요신문/ 오마이 뉴스/ 네이버 뉴스/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유창선 닷컴/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일요시사/ 선데이 저널/ 교민신문

006번

‘SNC 투자회사’의 대표 피터 손(37, 한국명 손○○)씨와 부사장 정○○(46세)

- **외환투자 대형폰지** 투자사기 사례

2000년 3월경부터 2008년까지 SNC 투자회사 대표 피터 손(한국명 손○○)과 부사장 정○○는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와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외환거래 투자회사 SNC를 차려놓고 실은 투자금을 외환시장에서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선물거래 투자사로 등록된 기록이 없는 유령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외환거래를 통해 최고 연수익률 36%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 현혹 및 외환 투자를 통해 50%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허위로 위조한 외환 투자 거래서를 투자자들에게 매달 발송하는 수법으로 한인 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등 5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8,50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

※출처: 2006년 9월 9일 LOS ANGELES 중앙일보/ 한국일보 벤쿠버/

2009년 6월 10일 애틀랜타 타임즈/ 통영조선/ 미국LA정보센터/ 통영조선/ 코리아데일리/ 팡TV/ Sunday Journal USA/ 애틀랜타 타임즈/ Korean Community of USA/ 디지털타임즈/ 인터넷 한겨레/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MK뉴스

007번

‘외환거래 투자회사’ FIG대표 최○○(50세) - **외환투자 폰지** 투자사기 사례

2002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최○○는 한인타운에 ‘퓨처 인베스트먼트 그룹’(FIG) 및 월셔가의 고층 빌딩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외환시장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이용해 한달에 8~10%의 수익률을 달성, 수익의 절반을 되돌려 주겠다. 투자원금 대비 10% 이상 손해를 볼 경우 투자자들이 원할 때까지 거래를 중단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한인 투자자 78명으로부터 1천 900만달러 투자금을 끌어 모아 편취한 혐의

※ 출처: 2008년 8월 30일 미주한국일보/ 코리아나 뉴스/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연합뉴스/ 네이버

008번

미국시민권자 김00(40세, 여) - **LA지역 기업투자** 사기피해사례

2007년 6월경 미국시민권자인 김○○는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하여도 미국에 있는 식품회사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A지역의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속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투자자 유○○(50세, 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만 달러를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 출처: 2010년 9월 10일 중앙방송/ 중앙일보/ 미디어 야후/ 미디어 다음/ 네이버

009번

‘강원랜드이사’ 사칭 박○○(47세) - 서민 노린 **카지노** 투자사기 사례

2004년 3월경 박○○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인근지역의 농민이나 가정주부 등에게 국내 대표적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도박자금을 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카지노 도박판에 돈을 대면 원금의 30%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일명 ‘꽂짓돈’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양○○(57세, 여)의 30명에게 총 40억원 편취한 혐의

※ 출처: 2005년 1월 18일 강원닷컴/ 강원뉴스/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010번

‘부동산투자의 귀재’ 이○○(51세) - **부동산 경매** 투자사기 사례

2004년 5월경 살아있는 경매신화로 불리는 이○○는 서울○○그룹을 설립하여 투자자들에게 소액투자로 임대수익이 잘 나오는 건물을 매입하여 시세 차익부분, 경매, 급매로 저가로 취득하기 때문에 당장 내다 팔아도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소액으로 공동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나 실제로는 경기악화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채가 많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법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200여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8년 11월 21일 스토리 서치/ 한국일보/ 파이낸셜 뉴스/ 네이버/

시사저널/ YTN뉴스/ 미디어 다음 / 야후 미디어/ 연합뉴스

011번

C플러스 캐피탈 대표 찰리 이(한국명 이○○, 35세) - 다운타운의 한인 재력가를 상대로 ‘희대의 **증권투자** 사기극’ 사례

1998년 7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C플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대표 찰리 이(한국명 이○○)는 데이 트레이딩⁷³⁾(속칭 단타거래)으로 명성을 날린 ‘증권가의 귀재’로 알려진 것을 기회로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운영하다가 ‘9.11 사태’로 전세계 증권가가 얼어붙기 시작하며 자금난을 겪게 되자 더 이상 수익구조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한인사회의 유명인사를 상대로 “유명회사 등에 주식투자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난 것으로 교묘히 가장해 수익금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Forever21 대표 등 타운 큰손들 등 200여명에게 1억 2천만달러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4년 9월 2일 Sunday Journal/ 2005년 12월 22일 미주한국일보
2007년 9월 21일 RADIO SEOUL/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네이버/ 연합뉴스

012번

박○○(55세) - **골프장 투자**사기 사례

2008년 3월경 박○○(55세)는 경북 구미시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에 가스를 배달하러 주기적으로 방문하던 조○○(34세)에게 “경북 청송군 대지에 골프장·위락시설이 들어서는데 투자하면 거액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9천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명으로부터 1억2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

※ 출처: 2010년 11월 16일 중앙일보/ 조선닷컴/ SBS뉴스/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연합뉴스

73) 데이 트레이딩이란 단기간에 수익이 나면 ‘치고 빠지는’ 증권거래 방식이다.

013번

국립 명문대생 조○○(24세) - **주식투자** 사기사례

2009년 5월경 조○○는 명문 국립대에 재학 중인 자로, 실은 주식 자동거래시스템의 실체가 없고 투자손실로 원금마저 반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손실을 메우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거래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실제 선물거래에 투자해 353%의 수익을 올린 적이 있다. 투자금을 주면 시스템을 이용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3억을 받아 챙긴 혐의

※ 출처: 2010년 10월 13일 중앙일보/ MK뉴스/ 미디어 다음

014번

대부업자 김○○(52세) - **몽골 부동산** 투자 사기사례

2008년 10월경 김○○는 전남 광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실은 주식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명품의류점을 운영중인 피해자 이○○(49세, 여)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기존에 몽골 부동산 투자 사기에 한 번 당해본 경험을 되살려 “몽골 대통령과 연결된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몽골에 서민아파트를 짓는다. 투자하면 크게 불러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위조된 몽골 현지 땅에 대한 지분 증명서를 보여주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을 보내주는 수법에 현혹되어 가해자의 30년 대부업 경력과 거금을 벌수 있다는 말에 눈이 먼 피해자 이○○(49세, 여), 이○○(42세, 여)에게 25억 6000만원을 편취

※ 출처: 2010년 4월 19일 광남일보/ YTN뉴스/ 조선닷컴

015번

국제변호사 이○○(39세) - **기업투자** 사기사례

이○○(39세)는 UC버클리를 졸업한 국제변호사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어바인과 플로리다에서 투자회사 “KL 파이낸셜그룹”이라는 헤지펀드⁷⁴⁾회사를 설

립하여 ‘쇼어랜드 트레이딩’을 운영하면서 펀드 수익률과 관련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은퇴 노인 등 한인 부유층 250명에게 “수익률이 좋아 손실이 나지 않는다.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에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 및 연간 20%내지 60%의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명목으로 3억달러의 거액 해지펀드를 유치하였으나 투자실패, 부실관리, 편법유통으로 2억달러의 손실 및 수익금을 조작한 혐의

※ 출처: 2009년 9월 17일 미주한국일보/ LA중앙일보

016번

최○○(영어명 찰리, 34세)와 제임스 던컨(38세) - **대규모 부동산 투자사기사레**
2005년 한인 최○○(34세, 영어명 찰리, 샌디에이고)과 공범인 제임스 던컨(38세) 등은 ‘유령회사 네트워크’인 퍼시픽 웰스 매니지먼트 스톤우드 컨설팅 토탈리턴 펀드 등 이름뿐인 회사를 설립하여 집을 담보로 용자를 받아 리버사이드에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 대여하면 렌트비를 받아 용자를 갚고 추가로 연간 최고 19%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법으로 리버사이드지역 주택 소유주 특히 교회, 군부대 등 구성원간 유대가 강한 집단 등 수백명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로 3년안에 부자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에게 집을 담보로 얻은 채용자 자금과 투자 권한을 양도받아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챙겼으며 주택 매매시 감정가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고 새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모기지 페이먼트를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Ponzi) 사기’ 수법을 사용하여 부동산 사기로 1억 2350만달러 유가증권 불법거래로 1700만달러 등 총 1억 4050만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9년 11월 21일 RICH & REAL/ 미주중앙일보/ 부동산 뉴스/미주한국일보

017번

버나드 매도프(Madoff, 70세) - 월가 최대의 **펀드투자사기** 사례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이사장인 월가의 거물 매도프는 1960년 매도프의 이름을 따 설립된 증권사 버나드매도프 LLC를 설립하여 월가의 실시간 주식 거래를 선도하였으며 돈을 만지는 전문 투자가와 자선기금 등을 운용하는 상류층 인사를 타깃으로 삼아 고급 골프장과 각테일 파티에서 대리인을 고용해 “매도프는 전설적인 머니 매니저”라고 입소문을 퍼뜨린 뒤, 초대받은 사람만 받아들이는 배타적인 2% 마케팅을 구사하는 수법을 사용 및 폰지⁷⁵⁾ 치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수익률 8~12%를 제시해 자금 고갈을 늦추고 투자자의 의심을 피하였으며 이 수익률을 어떠한 경우라도 지켰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뻥뻥한 주식 거래 내역을 제공하고, 소규모 환매요청은 곧바로 받아들여 의심을 피하는 방법으로 500억달러(69조) 피해자 수만명에 이른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원금으로 앞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사기극(일명 ‘폰지 사기’)을 벌인 혐의

※ 출처: 2008년 12월 15일 중앙일보

2008년 12월 17일 서프라이즈/ MT 뉴스/ 아시아경제

018번

백○○(37세)와 이○○(60세) - **녹용투자사기** 사례

2006년 11월경 백○○와 이○○는 경남 마산시 양덕동에 녹용 판매회사를 가정한 유명회사를 차려놓고 실제 녹용사업을 할 능력도 없으면서 “1계좌에 110만 원을 투자하면 본사에서 1주일 뒤부터 매일 배당금 1만 9340원을 4개월 동안 지급해 주고 또 다른 이익사업들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되돌려 준다”며 피

75) ‘폰지’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이후 투자자의 원금으로 이전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일종의 다단계식 투자 사기 수법이다. 즉,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끊임없이 빚을 굴려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90일 만에 원금의 2배 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1920년대 초반 미국 전역에서 8개월 만에 4만여 명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끌어 모은 사기범 찰스 폰지(Charles K.Ponzi)의 범행 수법에서 유래된 것이다.

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의 14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110만 원을 받는 등 202명의 투자자로부터 모두 550차례에 걸쳐 18억 3700여 만 원을 받아 이 중 12억 원 정도는 수익형태로 돌려주고 나머지 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 출처: 2008년 1월 9일 경남도민일보/ 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

019번

영화제작사 前대표 김○○(44세) - 영화투자사기

김○○(44세)는 영화 <올드보이>, <친구> 등을 제작한 영화제작사 쇼이스트의 前 대표로 회사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 제작비를 마련하고자 2006년에서 2007년까지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식객>을 흥행시켜 배당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여 투자자 김○○ 등 3명에게 2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 출처: 2010년 7월 20일 굿데이스포츠/ 미디어 다음/ 조선닷컴/ MK 뉴스/ 미디어 데일리/ 파란뉴스/ 아시아 경제/ 스투닷컴

020번

고○○(47)와 정○○(46·여)-국정원직원사칭 금괴투자사기 사례

고○○와 정○○(46,여)는 부부지간으로 2008년 12월경 서울시 중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정(58·여)씨에게 국가정보원 보안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의 친누나인 고○○는 故 육영수 여사와 함께 보육원이나 양로원 등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이며 현재 유명 사찰의 주지스님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한 금괴나 외국 구권 등의 사진을 보여주며 “과거 정부에서 정치자금으로 비축해 둔 금괴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23배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 출처: 2010년 3월 10일 미디어 다음/ 서울 21

021번

투자전문가 김○○(39세) - 밴쿠버 한인 투자사기사례

김○○는 한국서 대학을 나오고 1999년 캐나다에 정착하여 2002년 시민권을

획득한 자료 밴쿠버 한인 사회에서 2002년부터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시에서 “씨플러스 퓨처스(Cirplus Futures Inc)”라는 상호로 선물투자 중개회사(선물에 대한 투자자와 선물시장에서 투자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사고파는 회사를 중개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교민 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인 S교회에서 큰 신뢰를 받아 선량하고 능력 있는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것을 기회로, “원유 등 상품의 선물에 투자하고 있다”고 속여 일부피해자에게는 매달 5%의 수익을 다른 교민에게는 7년간 매년 30~40%의 수익을 지급하면서 “한번 수익을 맞본 사람은 돈을 더 끌어 모아 투자했고, 친구와 가족까지 소개해줬다”는 등 계속해서 의사·자영업자 등 상류층뿐 아니라 중산층교민 등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교민 200여 명으로 하여금 1억원에서 27억원까지 투자하게하여 투자금 3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 출처: 2009년 10월 23일 미주한국일보/ 해피코리아/ 밴쿠버 조선일보/ 미주중앙일보/ 미디어 다음/ 밴쿠버 부동산뱅크/ 경향포스트/ 코리안 데일리 뉴스

022번

김○○(43세) - **고수의 미끼** 인터넷투자사기사례76)

2007년 8월경 김○○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광고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7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38만원씩 20회를 지급해 원금을 돌려준 후 이후엔 월 32만원을 연금형식으로 평생 지급하겠다며 유사수신을 이용하여 투자자 500명으로부터 40억원을 가로챈 혐의

※ 출처: 2010년 6월 30일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이데일리

023번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41세) - **경마장지분** 투자사기사례77)

76) http://www.anews.com/print_paper.php?number=9718&news_article=news_article

77) <http://news.isegye.com/11914>

2004년 전남 순천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는 화상경마장의 승인이 유보되고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았고 결국 화상경마장 사업의 지분을 전부 공소외 박○○에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상경마장의 사업지분이 있는 것처럼 “화상경마장이 생기면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넘겨 주겠다. 공증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최○○등에게 5억원을 편취한 혐의

※ 출처: 2008년 3월 11일 중앙일보/ SBS뉴스/ 법률정보 인터넷신문/ 미디어다음/ 야후 미디어/ 조선닷컴/ 네이버

024번

김○○(40세) - **바이오 연료사업** 미끼 투자사기 사례⁷⁸⁾

2008년 6월경 김○○는 유사수신업체인 S사를 설립하여 부산을 비롯하여 51개 지점을 차린 뒤 실은 해외 바이오 연료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자 “베트남 옥수수를 이용한 연료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의 12%를 두 달 동안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4500여명으로부터 1인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원의 투자를 받아 279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

※ 출처: 2009년 2월 27일 한국유통신문/ 노컷뉴스/ 파란뉴스/ 바이오디젤/ 한경대신문

025번

부동산 경매 전문가 김○○(61세) - **부동산 경매** 투자사기 사례

2008년 김○○는 부동산 경매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서울과 경기 일대의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경매 강의를 해온 김씨는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공동투자 형식으로 경매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투자자 15명으로부터 투자금 15억여원을 받아

78)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57471>

가로첸 혐의

※ 출처: 2010년 5월 25일 조선닷컴/ 미디어 다음/ 부산일보/ 연합뉴스/

026번

황○○(36세)와 이○○(39세) - 고수익 **부동산투자**사기 사례

2006년 황○○는 이○○는 연인관계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어바인 소재 한인 운영 투자회사인 피누피토(Pinupitu Inc)를 설립하면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60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억만장자라고 소개하면서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수법을 이용하여 “최대 연45%의 이자 월 2%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면서 한국에 있는 작은 회사를 매입한 뒤 좋은 가격에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0명이 넘는 한인 투자자들에게 8백만달러를 편취한 혐의

※ 출처 2009년 2월 27일 미주한국일보/ 미주중앙일보/ 해외부동산 포탈/ 야후미디어

2010년 3월 9일 라디오 서울/ 라디오 코리아

027번

이○○(54세, 여) - **다이아몬드** 투자사기사례

2008년 10월경 이○○는 미국에서 금선물거래를 크게 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전직 장관과 통화하는 흉내를 내는 등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동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대표 피해자 정○○(30세, 자영업)에게 자신을 “다이아몬드나 금괴의 선물거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수입하려던 다이아몬드가 관세청에 묶여 있는데, 매일 30%의 고수익을 보장할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제안하면서 신뢰를 얻고자 “시가 1,700억원짜리 다이아몬드를 공동명의로 은행에 담보로 보관하겠다”며 위조 감정서가 첨부된 가짜 다이아몬드(큐빅으로 불리는 모조 다이아몬드)를 맡기는 등 피해자 10명에게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

※ 출처: 2010년 6월 3일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미디어 야후/ 미디어 다음

028번

유명주식카페운영자 신○○(33세) - 고수익미끼 **주식투자사기**

2009년 7월경 신○○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투자 카페를 운영하면서 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투자금의 60%를 손실봤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식투자를 통해 매월 원금보장에 투자금의 3%를 주겠다”고 속여 카페 회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등 3억 4천만원을 편취하고 직장동료 김○○에게 “주식매매로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6개월 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

※ 출처 2011년 1월 12일 광주일보/ 광주매일신문/ 미디어 야후/ 미디어 다음

029번

조○○(46세) - **오리사육 및 게임투자사기**

2009년 2월경 조○○ 외 10명은 실은 금원을 교부받아도 오리사업 및 게임산업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북 예천군에 위치한 제3자 소유의 오리농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오리사육사업에 투자하면 105일 후 투자금 대비 30%의 투자수익(연 투자수익 104%)을 주겠다”, 안양시 동안구에 유사 수신업체를 차린 뒤 “리니지2게임 사업에 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보름 간격으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0만원씩 10회에 걸쳐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투자수익 129%를 보장하겠다”며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에서 모집한 탈북자 출신 피해자 최씨를 탈북자 전문 모집책으로 이용하고 기존에 모집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해 오면 소개수수료, 직급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13%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속여 탈북자 출신 최모씨(41·여) 등 391명에게서 1052차례에 걸쳐 41억1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 출처: 2010년 10월 27일 파이낸셜 뉴스/ 중앙일보 뉴스

030번

투자자문업체 곽○○(55세)외 4명 - 해외 **별목사업** 투자사기사례

2007년 5월경 부친 소재 투자자문업체 W업체 부사장 곽○○(46)씨와 투자자 모집책 정모(55)씨 등 4명은 “매우 유망한 사업”이라고 현지 섬을 시찰시키며 투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말레이시아 방기섬의 별목사업에 투자하면 2년만에 80%의 이익금을 보장한다며 김모(여)씨에게서 30억원을 받아 채기는 등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천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십억원을 각각 받아 가로채는 등 3천800여명에게 380억원 편취한 혐의

※ 출처: 2010년 11월 15일 조선닷컴/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 네이버

031번

인터넷 투자 자문 카페운영자 허○○(35세) - 고수의 보장 미끼 **인터넷 주식투** 자사기사례

허○○는 2006~2007년 중국 관련 투자 자문을 주로 하는 무료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명성을 쌓아 ‘투자의 귀재’ 행세를 하며 2007 9월경 영등포구 여의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관에 압류된 금, 골프채 등을 싸게 낙찰받아 판매하는 고수익 사업을 추진 중이니 투자하라”며 신모(30)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올 9월까지 총 10명에게서 112회에 걸쳐 25억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그러나 신씨 등에게서 끌어모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물·옵션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혐의

※ 출처: 2008년12월15일 문화일보/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네이버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앞선 투자자에게 정해진 고액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근근이 버텨/ 폰지

032번

장○○(영어명 케빈, 39세)와 김○○(영어명 블레인, 34세) - 미주사회 한인중 **권투자사기**사례

2001년 7월경 장○○와 김○○는 실은 정식으로 등록된 증권회사도 아니고 필

요한 라이선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계좌를 통해 수익을 보장한다며 유너스 캐피탈(UNUS Capital Management)을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주식구입에 쓰겠다고 남가주 등 한인 투자자 40명으로부터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노후 준비용’ 400만달러를 받아 실제로는 그 돈을 사무실 렌트비, 언론사 광고 등은 물론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5년 8월 26일 미주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재외 동포신문/ 코리아 타임즈

033번

양○○(41세)와 이○○(49세) - 해외 펀드투자사기

2008년 5월경 서울시 서초구 펀드 사무실에서 위조된 한화 15조원 상당의 유로채권과 10억 유로짜리 지급보증서 등을 보여주면서 원금보장은 물론 펀드가 매우 안정적이고 45일째부터 매달 30%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김○○(68세)에게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해 7월까지 주로 은퇴한 노인등 120여명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을 받아 자신들의 채무를 갚거나 중국주식투자 펀드에 투자한 혐의

※ 출처: 2011년 1월 14일 MK뉴스/ 경남도민일보/ 국제신문/ 팜뉴스/ 매일경제

034번

라이베리아인 M씨(37세)의 2명 - 블랙머니 국제투자사기

2009년 10월경 라이베리아인 M씨의 2명은 전자제품 무역상을 사칭하며 서울 강남 등지의 대형호텔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는다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배○○(50세)가 본인의 사업구상에 관심을 보이자 친분을 쌓은 뒤 “같이 입국한 친구 아버지가 은행총재를 지냈는데 라이베리아 내전 당시 무기구입을 위해 미 정부가 지급했던 자금을 몰래 갖고 있다. 외교행낭에 서류처럼 꾸며 그 돈을

들어왔는데 현금화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배○○에게 투자를 중용하며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배○○에게 검정색으로 뒤덮인 100달러짜리 지폐를 화학약품에 넣어 진폐가 되는 모습을 시연하고는 “이러한 블랙머니가 500만 달러와 500만 파운드(총 150억원 상당)가 있는데 투자하면 10%의 돈을 주겠다” 이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경비 1200만원을 투자해 달라고 한 혐의

※ 출처: 2009년 11월 9일 헤럴드경제/ KBS 뉴스/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 네이버

035번

독일거주 이○○(53세) - ‘박정희’ 해외비자금 투자사기사례

2008년 1월경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국제 투자 전문가 및 독일의 EBII(European Bank Instrument Investment)와 몬테네그로의 ‘밀레니엄 बैं크 그룹’이라는 은행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EBII가 300억5000만 달러(약 36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며 특급호텔 연회장을 빌려 축하행사를 하는 등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특급호텔 라운지에서 김○○(여)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이 내 이름으로 외국계 20여 개 은행에 분산 예치돼 있다”며 접근하며 “그 원본 예치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데 돈이 없어 못하고 있다.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8조원가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주겠다”고 속여 김○○에게 지난해 7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7억2000만원을 편취하고 독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내 중소기업 R사의 김○○에게 “계약서·공증비 등 비용만 내면 7000만 달러(약 840억원)짜리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고 속여 지난해 9월까지 비용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 출처: 2010년 9월 1일 중앙일보/ MT뉴스/ 미디어 다음/ 파란뉴스

036번

이○○(42세) - 위안화 환전투자사기사례

2006년 11월경 이○○는 중국 청도에서 실은 사업실패로 채무변제 독촉에 시

달리자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인을 통해 환전하는 경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중국 현지에서 만나 수년동안 친분을 쌓은 중국동포사업가 A씨(45세)에게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수수료 없이 교환해주겠다. 원화를 자신의 국내 계좌로 입금하면 수수료 없이 위안화로 주겠다’고 속여 같은 달 17일까지 아홉 차례 걸쳐 500만~1600만원씩 모두 8500만원을 챙긴 혐의

※ 출처: 2009년 10월 19일 차이나 코리아 114/ 뉴스광장/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네이버

037번

이○○(43세)의 1명 - **비자금** 환전투자사기

2003년 9월경 이○○외 1명은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해외에 체류중에 있어 국내사정이 어두운 프로골퍼 A(여)에게 골프장 조감도를 보여주며 구 정권의 비자금을 환전하는 국가 비밀요원 행세를 하면서 ‘구권화폐 형태의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구권화폐를 쓸 수 없으니 골프장 건설작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 전직 대통령이 조성한 7조원대의 구권 달러를 미국에서 환전하는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사업을 하고 있다 구 정권 비자금으로 골프장 개발 및 분양을 하려고 하니 비자금 환전 보증금에 투자하라. 보증금 10억원을 내면 3개월 후 17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 출처: 2010년 3월 10일 한겨레신문/ 경향닷컴/ 디지털 타임즈/ 조선닷컴

038번

이○○(47세, 여) - **환전**투자사기

2008년 10월경 인천시 남동구 송○○(33세, 방문교사)의 집에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모 그룹 회장 딸이며 서울 모 대학 심리학과 교수라고 사칭하여 신분을 과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송○○에게 ‘환전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환치기 수법으로 10% 이익금을 주겠다.’며 이를 진실로 믿게 하고 1000

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7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5억원을 편취한 혐의

※ 출처: 2008년 12월 3일 중앙일보/ 팜뉴스/ 한국일보/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네이버

039번

이○○(45세) - 해외부동산 투자사기사례

2009년 5월경 이○○외 1명은 분양업체를 운영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사이판 E2비자로는 미국 본토에서 체류할 수 없고 자녀 유학도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준비중인 학부모 김○○(48세, 여)에게 ‘사이판이 수개월 후면 미 연방에 편입돼 자녀는 미국 본토에서 유학과 체류가 가능하고 김씨는 원금 보장과 함께 연 7% 이상의 이익금도 챙길 수 있다. 이 업체가 미국 자치령인 사이판에서 추진 중인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면 현지 E2비자(소액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김○○에게 1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 출처: 2010년 6월 10일 사이판 뉴스/ 네이버/ 미디어 다음/ 야디어

040번

카자흐스탄 투자사기

차○○(50세)와 김○○(42세) - 카자흐스탄 석탄광산 투자사기사례

2009년 7월경 차○○외 김○○는 국내와 해외에 유명회사를 차려놓고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해외기업가로 사칭해 국내 대기업 A 그룹을 참여시킨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S사와의 석탄광산 개발 관련 양해각서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사기수법에 사용하여 ‘카자흐스탄 자원 개발에 필요한 자금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속여 카자흐스탄 석탄광산 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가들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모두 3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 출처: 2010년 9월 28일 데일리 팟/ 미디어 다음/ 야후미디어/ 네이버/ 노컷뉴스

041번

유○○(48세)외 22명 - 벤처기업 투자사기사례

2000년 1월경 유○○외 22명은 강남구소재에 L월드컴, G창업투자, D엔젤클럽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인가나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투자금융회사를 차려 놓고 창투사로부터 헐값으로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을 몇 달 후 10배 이상의 차익이 발생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해 월 10% ~ 20%의 높은 이자지급을 보장한다. 투자자를 추가로 유치할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다단계 판매형식으로 주로 주부들을 끌어들여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까지 개최하였으며, 투자기간 만기시 재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10000명으로부터 1100억원을 편취한 혐의

※ 출처: 2001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TISTORY/ 미디어 다음/미디어 야후

042번

김○○(37세)외 20명 - 고수익 보장 투자사기

2000년 김○○외 20명은 테니스대회 또는 복싱대회를 주관 또는 후원하면서 강남구 논현동이나 서울역 주변에 유망기업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C홈쇼핑’이나 ‘C네트워크’등 실제 수익이 없거나 구상단계인 17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그룹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월 14%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신규 투자자를 모아오면 투자액의 0.5% ~ 2.3%의 성과금을 주겠다고 하며 투자자들을 영업사원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2600명에게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

※ 출처: 2001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미디어 다음/ 미디어 야후/ 한국경제신문/ 연합뉴스

043번

이○○(43세, 여)외 4명 - 단기간 고수익보장 투자사기

2000년 4월 이○○외 4명은 서울소재 A파이낸스를 운영하면서 1000만원을

투자하면 1개월만에 원금을 주고 한달 이자로 5%를 지급한다는 로열형 등 3가지 상품을 제시하여 자금모집하면서 본부장의 경우 출자금 15억원 이상, 팀장은 3억원 이상, 매니저는 1억 5천만원 이상, 조합원은 5천만원 이상을 유치하는 자로 임명하고 투자자 유치시 부사장, 전무, 본부장에게 투자금의 0.5%, 팀장과 매니저, 조합원에게 1%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수법을 사용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영화제작 사업 등에 실제 일부 투자하였으나 투자자 1200여명으로부터 75억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1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연합뉴스/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네이버

044번

이○○외 3명 - **고수익보장** 투자사기 사례

이○○외 3명은 강남구 도곡동소재에 수출입무역업, 도소매유통업, 부동산건설업, 인터넷 관련사업 그룹형태인 A그룹 소속에 7개의 계열사(A벤처캐피탈, A월드교역, W상사, A매직오존, A랜드, D엔터프라이즈, H농산)로 구성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그룹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밀리에 12개의 분리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북경등지의 파파이스 체인점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며, 2001. 3. 20자로 “대한화재보험회사”를 인수한다며 별도의 투자상품(플러스 A형 : 만기 3개월 월 2%의 확정배당금 지급, 플러스B형 : 만기 7개월 월 2%의 확정배당금 지급, 플러스 C형 : 만기 12개월 월 6%의 확정배당금 지급)까지 만들어 자금을 모집하는 등 다방면의 사업 영위를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연 24% ~ 120%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별도의 투자상품을 만들어 대규모로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변경 및 법인체 분리 등의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백명에게 83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

※ 출처: 2001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연합뉴스/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네이버

045번

김○○(47세) - 건강보조식품 투자사기사례

2001. 5. ~ 2001. 7. 김○○는 서초구 서초동소재 S○○(주)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방문판매 업체 및 다단계 유통부분의 시장을 석권할 예정이고, 한국지체장애자협회 등과 협조하여 수도권 일대 요지의 상가에 투자하고, 일본과 합작으로 국내 건강보조식품 인터넷 다단계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1구좌당 183만원을 투자하면 100일 동안 원금·이자로 매일 35,000원씩 확정배당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여 피해자 5000명으로부터 1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1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연합뉴스/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네이버

046번

권○○(49세, 여) - 국·내 부동산투자사기사례

2000. 8 ~ 2001. 8 권○○는 울산시 남구 달동소재 B플러스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외식업체와 충남 논산의 식품제조업체 등 3곳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겠다고, 20명의 이사를 모금책으로 두고 투자자를 확보하면 해당 이사에게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자에게는 월 9%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재투자자를 적극 유도하는 수법으로 투자자 500여명에게 5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1년 12. 3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연합뉴스/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네이버

047번

정○○(37세) - 벤처기업투자사기사례

1998년 6월경 동 업체의 대표는 부산의 폭력조직 ‘칠성파’의 자금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강남구 역삼동에 S벤처엔젤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투자처중 하나인 건식 온돌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믿게 하여 다단계 금융회사를 차려놓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각종 사업투자로 한달 뒤에 원금의

20~25%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76명으로부터 73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

조직 - 광주지검 강력부(구속 13, 불구속 2, 지명수배 2)

※ 출처: 2001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연합뉴스/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네이버

048번

방○○ - 벤처기업투자사기사례

2000.2. 1 ~ 3. 9 방○○는 전남 광주소재 H엔젤클럽 광주지점(지점장 방모 씨), C엔젤, M인터내셔널, L벤처트러스트, M인터내셔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유사명칭을 회사명으로 사용하고 대기업 증권사가 보증하였으며, 지역 유명인사가 영입되어 있다는 등을 강조하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광주시내에 명칭이 각각 다른 회사사무실을 차려 투자자를 모았으며, 이들이 투자했다는 벤처기업은 대부분 폐업했거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월 3% ~ 30%의 이자를 지급한다며 투자자 1000명으로부터 17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1년 12. 3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연합뉴스/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네이버

049번

윤○○ - 벤처기업투자사기사례

2000년 7월 윤○○는 서초구 잠원동소재 P컨설팅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코스닥 등록을 앞둔 (주)I테크, M드림월드(주) 등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CPS3호라는 상품에 1구좌 100만원씩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지급하겠다고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전국 10개 본·지점을 통해 투자자 1500명으로부터 1,358억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1년 12. 3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연합뉴스/미디어 다음/ 야후 미

디어/ 네이버

050번

김○○(41세) - 사이버주식투자사기사례

2002년 2월 M기업이 사이버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은 사이버 상에서의 주식공모를 함에 있어서 10억 이하를 공모하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실정을 부풀렸음에도 불구하고 M기업은 허위 및 부실 문서를 이용하여 “1999년 10월 624명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7억 7,000만원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모벤처캐피털이 주당 액면가 100원의 50배인 5,000원에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1차분 3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하였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

※ 출처: 2003년 2월 12일 매일경제/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연합뉴스

051번

쿠로이와 이사무(59세) - 필리핀 수익투자사기사례

2005년경 쿠로이와 이사무(59세)는 도쿄의 투자회사인 “월드 애양 펴”(도쿄도 타이토구)를 운영하면서 새우양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도쿄 돔 450개 분의 양식연못이 있다. 필리핀에서의 새우 양식 사업에 출자하면 1년에 2배가 된다’고 속여 피해자 4만명에게 약 600억엔의 피해를 입히고 당사가 2007년 2월 우체국의 계좌로부터 미국 내의 계좌에 4000만 달러 약(4억엔)을 송금 하는 등 해외에 은닉하려고 한 자금선정(돈세탁)의 혐의

※ 출처: 2007.11.27. 네이버/ 미디어 다음/ 배신 시사 통신/ 연합뉴스

052번

테리 프리먼(62) - 영국판 ‘메이도프’의 폰지사기사례

테리 프리먼은 실은 금융 관련서 몇 권을 읽은 것 외에 전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년 반 동안 복역 후 출소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런던에 투자사인 ‘GFX 캐피탈’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였다. 지역 컨트리클럽에서 세미나

를 열고 고객들에게 갑부로 만들어주겠다고 유혹하여 축구경기장 지정석에서 경찰과 축구선수의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실은 투자를 하여도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라며 지급한 돈은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마련된 ‘폰지수법’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외환시장에서 위험 부담이 없는 수익을 약속하여 프리미어리거와 경찰 등 700명에게 2천만파운드(약 35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11년 1월 18일 동아일보/ 미디어 다음/ 네이트 판/ MK 뉴스/ 파란뉴스/ 세계닷컴/ 야후미디어/ 네이버 뉴스/ 연합뉴스/ e네트워크 일보/ 종은뉴스/ 조선닷컴/ 인터넷 미주한국일보/ 코리아타임즈

053번

해외부동산에 투자 사기 사례

2006년 6월 김○○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관심이 증대하면서, 일반인들이 관련정보에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해외부동산이 국내부동산과는 달리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베이징 주택건설 프로젝트 공모 펀드 광고 사례로서 투자금액을 1구좌 당 2,000만원(한도 개인 5구좌), 투자수익은 기본 확정수익률 28%+-5% 범위 내(변동요인: 환율 등)로 약정하고, 투자자 보장책으로 중국지사법인을 통한 중국 정부 투자자를 등재시키는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십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

※ 출처: 2007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연합뉴스

054번

이○○(34세) - 팩스넷 유니텍 전자 허위공시 등 시세조작 투자사기사례

2000년 4월~5월까지 이○○는 컴퓨터 부품 수입업체인 유니텍전자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증권정보 사이트인 팩스넷 게시판에 “상한지옥”이란 필명을 사용하여 ‘황제주’, ‘대박주’ ‘작전세력이 유니텍전자에 붙었다’ 등의 용어를 써가며 허위 사실을 올리는 수법을 이용하여 유니텍의 주가가 바닥일 때 주식을 매집한 뒤 4월 25일부터 5월 31일 사이 679회의 글을 팩스넷에 올려 유니텍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었고 엉터리 매수 및 매도주문도 85차례나 내며

거래가 많은 것처럼 꾸미고 증권정보 인터넷 사이트인 팩스넷에 유니텍전자 한 종목에 대해 하루 평균 20여편의 허위정보의 글을 올려 이에 유니텍전자는 4월 20일 1만2천원대에서 연일 상한가를 치며 5월 20일께 6만 3천원대로 다섯배 이상 뛰었다. 5월 20일을 넘기면서 유니텍전자의 주가가 떨어지자 상한지옥은 지금이 단기 저점인 만큼 매수 찬스라는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자신의 보유주식을 내다 팔아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 출처: 2000년 9월 6일 경향닷컴/ 팩스넷/ 다음증권/ 헤럴드 경제/ 중앙일보

055번

유○○(50세)외 2명 - 마카오 카지노 사업 투자를 가장한 자금 모집 사례

유○○는 서초구 잠원동에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신문에 투자자 모집광고를 내는 등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 시 매월 투자금의 12% 이상을 배당금(이자)으로 지급한다고 현혹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이○○(남, 47세)는 2007년 9월초 6개월간 매월 배당금으로 투자금의 20%를 받기로 하고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이 카지노 사업에 투자되어 묶여 있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등 계속하여 자금 지급을 지연하는 수법으로 투자자 2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56억원을 가로챈 혐의

※ 출처: 2008.9.2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YTN 뉴스/ 강원닷컴/ 경향신문/ 미디어 야후/한국 마케팅 신문사

056번

임○○(45세) - 대형 골프회원권 분양 사기

2005년 8월경 임○○(45세)는 한국의 명문 K대학을 졸업한 자칭 캐나다 프로골퍼 출신이라며 상하이에 ‘어바웃 골프’라는 골프 관련 회사를 차리고 프로골퍼 출신임을 적극 활용하면서 대학동문과 골프를 배우려는 골프 후배들에게 한화 600만원에서 1200만원에 해당하는 상해 소재 골프장 분양권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골프장 회원권을 시중가보다 20% 싸게 구입해준다는 제안으로

골프 애호가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는 부동산 사업자를 이용하여 돈을 부동산 구좌로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골프장과는 할부로 계약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주변사람들에게는 일시불로 판매하며 2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투자자 30여명에게 30억의 피해를 준 혐의

※ 출처: 2006년 10월 2일 도깨비 뉴스/ 인사이드 차이나/ 선데이 타임즈/ 월 드한인/선데이 차이나

057번

간자키(65세)의 8명 - **주식펀드**투자사기사례

2008년 2월경 회장 간자키(65세)의 8명은 도쿄에 투자회사 「베스트 파트너」(구 글로벌 파트너, 도쿄)를 운영하면서 「원본 보증으로 높은 배당을 환원하고 비싼 이익율을 실현하면서, 자산의 안전성을 중시해 운용하는 새로운 타입의 펀드」라고 설명하면서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복수의 시장에서의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회피해, 수익 안정화를 도모한다. 운용 이익은 잉여금으로 저장해, 일정한 비율로 투자자에게 매월 환원. 「원금손실의 걱정이 없고, 은행에 맡기는 감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며 최고로 연리 10%를 불러, 투자자를 모집하여 전국의 약 970명으로부터 약 91억엔을 가로챈 혐의

※ 출처: 2011년 1월 14일 가생이닷컴/ 시사통신/ 연합뉴스

058번

K.C Smith 사례⁷⁹⁾ - **스팸 메일을 통한 허위공시 등 증권사기**

2002년 5월부터 2003년 2월까지 K.C.Smith는 두개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며 거의 900만통의 스팸 메일을 보내 두 자리 숫자의 월 이익금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0만 2,554달러를 모금하였다. Smith는 손실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가공의 회사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사이트에 SEC 문장을 표시하였다. SEC에 따르면 Smith는 1회용 휴대전화로 투자자들에

79) sec. Litigation release no.18130 (2003.5.12.). <http://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lr18130.htm>

게 전화를 걸고 분실된 타인의 계정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였으며, 수취인을 비밀로 하는 온라인 지불서비스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금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Smith에게는 부당이득과 재판전 이자를 포함한 10만 7,510달러를 반환하라고 청구되었다.

※ 출처: 법무연수원,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22집3, 2006, p. 44. 수정 재인용/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보도자료(2003년 5월 12일)

059번

eConnect,와 Thomas S. Hughes - 허위공시 투자사기 사례

2002년 7월 eConnect와 전 회장인 Thomas S. Hughes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eConnect 웹사이트에 허위 보고서를 게재하였다. SEC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AA' 등급의 2,000만 달러 상당의 채권 발행에 관련된 것으로 사실 그와 같은 등급이나 채권을 환매해주는 프로그램조차 없었음에도 이 보고서는 회사가 96만 4,000달러의 회사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등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채권의 환매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잘못된 사업보고서가 게재된 이후 위 회사의 주가는 500% 상승하여 수백만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법무연수원,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22집3, 2006, p. 44. 수정 재인용/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보도자료(2003년 5월 12일)

2002년 8월 Hughes는 대배심에 의하여 3개의 증권사기 및 사기조종 혐의를 포함한 7개 범죄혐의로 기소

060번

Douglas Norman - 허위공시 주식투자사기사례

2000년 초, World Transport Authority Inc(WTA)의 설립자이자 CEO인 Douglas Norman은 WTA의 잘못된 보고서의 인터넷 게재를 승인하고 SEC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WTA가 혁신적인 자동차, 그리고 90일 안에 설립가능하며, 그 자동차를 매일 1대씩을 생산할 수 있는 단일 시스템을 디자인해 달라

는 주문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다. 그 이후 Norman은 최소한 550만 달러 상당의 WTA 주식을 팔았고, 180만 달러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피해를 준 혐의

※ 출처: 법무연수원,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22집3, 2006, p. 44. 수정 재인용/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보도자료(2003년 5월 12일)

061번

김○○ - 건강보조식품 판매사업 가장 투자사기

2006년 7월 김○○는 부산에 소재한 (주)A사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투자금의 121% 지급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3만원을 투자하고 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 하부모집원의 매출 실적 등에 의해 15일 이내에 40만원 지급을 약속하였다. 부산에 사는 B씨는 금년 7월경 지인으로부터 A사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았으며, 33만원을 넣으면 15일 이내에 40만원을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기에 99만원(3구좌)을 입금하였지만, 10여일이 지나도록 약속한 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전화로 A사에 문의한 바, 조금 기다리면 한 구좌(33만원)당 100만원씩 지급된다하여 기다려 보았지만 현재까지 수당은 물론 원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출처: 2007.10.30. 금감원 보도자료/ 문화일보/한국경제/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네이버

062번

이○○ - 엔터테인먼트 사업 투자 사기

2006년 3월경 이○○는 네티즌으로부터 모집한 엔터테인먼트 투자금을 투자사 등에 전달하고 투자작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사 등으로부터 투자지분 상당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한다는 광고를 낸 것을 계기로 (주)엔터○○는 엔터 캐쉬(입금신청 후 해당 개설은행을 통해 입금)라는 사이버머니를 통해 엔터펀드상 투자와 거래를 발생시켜 총 매도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고, 공모작품이 손익분기점을 넘을 경우 총 수익금의 3%를 투자대행수수료로 수취 혐의

※ 출처: 2007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 불법펀드 피해방지 요령 보도자료, 금

감원 자산운용감독국

063번

김○○ - 사이버상 장외주식거래 사기

2004년 5월경 생명보험회사 이사 김○○는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매도가 쉽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식거래 시장인 장외 거래는 거래 차익의 10% 이상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장외 주식사이트를 이용해 주식 1000주를 6500만원에 팔려다가 여의치 않자 주가가 연일 떨어져 이 사이트의 매수/매도 게시판에 팔자 주문을 올렸고 AtISMS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주문이 들어오자 주권을 상대방이 지정한 주시 계좌로 이체한 뒤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시키라고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지금 은행인데 사람이 많아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며 몇 시간을 끌다가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김○○의 주식을 처분하고 잠적하여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7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064번

최○○ - 나스닥 상장업체 주식투자를 가장한 투자자 모집 투자사기사례

2007년 5월 최○○는 서울시에 있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했다면서 동 상장업체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 고수익도 올릴 수 있다면서 매주 월요일 종교 모임 등을 통해 주로 60-70대 노년층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였다. 투자시 3개월 후 주식가치가 5배 이상 상승한다면서 투자자를 현혹하였으며, 서울에 사는 L씨(여, 67세)는 2008년 6월 초 종교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신도)으로부터 동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고,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L씨는 고령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에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현혹되어 불법 자금모집일거라는 의심조차 하지 않고 투자하는 등 종교모임에서 인적 유대관계를 이용하여 신도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8년 7월 30일 브레이크대구경북/ e네트워크 일보/ 해외 부동산 뉴스/ 네이트 증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065번

이○○ -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한 투자자 모집

2007년 9월경 이○○는 서울에서 캄보디아에서 즉석복권(로또)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최근 신규로 추진하는 캄보디아 놀이공원 개발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지급한다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여 1구좌(100만원) 투자시 3개월 이내 투자금의 130% 지급을 보장하는 광고를 하여 김○○는 동 업체의 투자권유에 현혹되어 500만원을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동 업체는 투자자를 사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에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활동하고 있어 다수의 중소도시 및 농촌 주민들에게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8년 7월 30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066번

박○○ - 폰지수법 투자사기사례

2000년 11월경 박○○는 (주)JS월드를 운영하면서 상공부차관과 경찰 등을 고용하여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힘쓰면서 누구든지 최소 금 330만원을 1구좌로 하여 3구좌의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은 부장으로, 30구좌를 유치하는 사람은 국장으로, 120구좌를 유치하는 사람은 영업본부장으로 각각 임명하기로 하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이익분배는 1구좌당 사장, 부사장에게는 각 0.5%, 영업본부장에게는 7%, 국장에게는 6%, 부장에게는 5%가 지급된다고 하면서 투자자 유치를 권유하여 영업본부장을 판매원으로, 영업본부장은 국장을 투자자 겸 하위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면 1구좌 당 매주 10만원씩의 확정 이익금을 배당하고 16주 후에는 원금을 상환한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이 2001년 3월 5일경까지 투자자 총 1,726명으로부터 ‘출자금’명

목으로 합계 금 138억4천여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상품·용역의 거래없이 또는 이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를 한 사건이다. 또한 서울지검 형사6부는 2002년 10월 7일 25만명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가입비와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5,76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 출처: 2002년 10월 7일 동아일보/ 한국일보/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네이버

067번

임○○(36세)와 이○○(36세) - **교통법칙금대납**투자사기사례

1999년 1월경 임○○와 이○○는 강남구 삼성동에 회사를 차린 뒤 ‘교통법칙금대납업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없이 ‘라이센스 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간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된 59종의 위반행위(일부 위반행위는 보상하는 범위에서 제외)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통보받는 경우, 회수 및 금액에 불문하고 회원에게 그 범칙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에 이를 전부 대납함으로써 보상해 주는 내용의 상품을 내걸고 회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일정 연회비만 내면 횡수나 액수에 상관없이 교통법칙금을 대신 내준다’며 회원을모집, 최근까지 1만4천여명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3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 출처: 2000년 1월 20일 연합뉴스/ 미디어 다음/ 야후 미디어/ 네이버

068번

유○○(58세)와 유○○(52세, 여) - **캄보디아 투자**사기사례

2006년 10월경 유○○와 유○○는 6촌 친척 사이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주)한국방송제작단 대표를 맡기도 했으며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방송국과 예술종합대학 설립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세운 뒤 캄보디아에 신도시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한국 고위층과의 가짜 친분을 내세우고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아왔고 국정원 등 한국 정부차원에서 도와주는 사업이

다’며 한국정부의 지원사업인 양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KBS 방콕 특파원까지 동원 방송국 특파원에게 부탁해 캄보디아 신도시개발 관련 보도를 하여 신뢰감을 샀으며 이 방송 자료를 추가 투자자 모집을 위한 미끼로 활용하고 또 이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속이고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사무실이나 주거지 등에 전시하고 현 정부의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이○○ 국회의원, 이○○ 국민위원장과 절친한 사이다”라고 과시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2007~2008년 유○○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부근에 60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 중인데 투자하면 큰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고모씨 등 2명으로부터 8억4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 출처: 2010년 7월 21일 Green Monkey/ 재테크포탈 모네타/ 팩스빅 뉴스/ 미디어 다음/ 파이낸셜 뉴스/ 파란뉴스/ 중앙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야후 미디어/

069번

김○○(38세) - 중국 ‘유령벤처’ 주식투자사기사례

2006년 8월경 중국주식정보 및 중국 비상장주식 거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모 일간지 광고란에 ‘중국 주식 투자로 대박 꿈 놓치지 마세요. 양질의 주식만을 권유하고 있어 믿고 투자하시면 된다. 중국 쪽에 사무실을 차려 한국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현지의 좋은 주식을 알아보고 엄격한 실사를 하고 있다. 중국 거래에 대해 전혀 몰라도 문제없다. 거래 수수료의 5%만 내시면 중국 주식 거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 주겠다’며 홍보하면서 ‘2006년 중국 비상장 제약회사인 용단생물(龍丹生物)의 한국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약 2종을 개발해 제품 판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곽○○(44세)외 120여명에게 3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8년 7월 3일 중앙일보/ 한,중커뮤니티 PLAZA/ 다음 미디어/ SBS뉴스/ 네이트/ 연합뉴스/ 경향닷컴/ 오마이 뉴스/ 파이낸셜뉴스/ 와이드차이나

070번

이○○(41세) - **부동산 급매물 대납** 투자사기사례

2004년 7월경 이○○는 경기 광주시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직 경찰관의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김○○(45세)와 부부모임에서 신뢰를 쌓은 뒤 ‘신용카드 연체금을 대납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부동산 급매물건 대납으로 돈을 투자하면 고이자를 주겠다’며 신용카드 연체금과 부동산 급매물건 대납 등을 통한 고이율을 미끼로 투자권유를 한 뒤 500만원을 투자받고 일주일 뒤 3%의 이자를 받자 이○○는 틈틈이 김○○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약속한 이자도 월 5%, 7%, 9%로 점점 높아지자 이를 기회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여 4년여간 51억원을 건네고 38억원의 피해를 당한 사건

※ 출처: 2009년 12월 16일 동아닷컴/ 미디어 다음/ 시사코리아/ 공무원 뉴스/ 뉴스엔뉴스/ 중앙일보/ 미디어 야후/

071번

박○○(50세) - **부동산투자사기**

2003년 3월경 건축업자 박○○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에게 “100억원짜리 방배동 빌라 14세대를 사서 국회의원 H씨 비서관 등에게 110억원에 되팔기로 돼 있는데 빌라 매입을 도와 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며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 등을 내세우며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8억을 가로챈 혐의

※ 출처: 2004년 11월 22일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 연합신문

072번

김○○(40세) 외 50명 - **바이오 연료사업** 투자사기

2008년 6월경 김○○는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 51개의 지점을 차린 뒤, 옥수수를 이용한 차세대 바이오 연료사업에 투자를 유도하여 “베트남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투자자들에게 매달 원금의 12%를 이자로 받는 조건으로 1인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투자하여 투자자 4천 5백여 명으로부터 모두

29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 출처: 2009년 2월 6일 노컷뉴스/ 한국유통신문/

073번

대표 정○○(48세)와 회장 이○○(49세), 강○○(41세)외 5명 - 강원랜드 카지노 투자사기사례

2005년 5월경부터 대표 정○○와 회장 이○○, 강○○외 5명 4년간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의 VIP 고객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주부 등 강원랜드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급전을 빌려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원금의 150%를 4개월 내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전국에서 투자자 1355명으로부터 40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04억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 출처: 2009년 9월 14일 문화일보/ 강원닷컴/ 팩스넷

074번

서○○(45세)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투자사기사례

2006년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서○○는 (주)스노우박스진해를 운영하면서 구역청 관광레저팀 임모 팀장과 공모해 투자자들과 경제자유구역 내에 ‘스노우박스 진해’라는 레저시설을 공동개발한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자유구역 남산지구 내 스노우박스 개발예정지를 사들여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금의 2배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개발이익의 5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고모씨 등 투자자를 속여 27차례에 걸쳐 총 22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 출처: 2010년 4월 20일 국제신문/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 부산경실련/ 연합뉴스/

075번

강○○(45세)와 신○○(45세, 여) - 해외에 국민주택건설사업투자사기

2006년 6월경 강○○와 신○○외 9명은 전화나 상담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

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앙 아메리카 온두라스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투자, 투자원금과 수익금 20%를 4개월 내에 배당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6월-12월 서울과 지방에 본사와 지점 5곳을 개설한 뒤 사업 설명회를 통해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허가를 받았다’고 속여 투자자 682명으로부터 145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 출처: 2007년 3월 7일 미디어 다음/ 연합뉴스

076번

오커너(44세, 미국)와 제임스 가이슬러(48세, 미국) - 한인대상**투자이민** 사기 사례

1997년과 1998년 워싱턴DC 제임스 오커너(44세) 사장과 제임스 가이슬러(48세) 수석부사장은 인근 북버지니아의 헌턴에 본사를 둔 ‘인터뱅크사’를 운영하면서 워싱턴·뉴욕·LA등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투자이민설명회를 개최, 수십명의 한인을 포함 총 270여명에게 투자이민비자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저소득층과 미개발지역에 5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5 투자비자 프로그램을 악용, 10만~15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면 나머지 35만달러를 융자해주겠다’고 속여 1760만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2년 1월 16일 한국일보/ 한국일보 벤쿠버/ 비자&이민소식/ 조선일보

077번

조○○(53세, 여) - **부동산 투자사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조○○(53세, 여)는 서울의 부유한 부동산 투자자이며 아파트 전매업자라고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외 2명에게 실은 콘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콘도를 분양 전에 싼 값에 미리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100여억원을 사취한 후 여러 개의 위조여권과 서너 개의 가명을 사용해 해외를 전전한 혐의

※ 출처: 2009년 4월 7일 플러스뉴스/ 오벤쿠버닷컴/ 미주한국일보/ 벤바다/ 한국일보 밴쿠버/ 미디어 다음/ 빅토리아 투데이

078번

조○○(52세) - 한국내 폰지 금융사기사례

2004년 11월 대구에 본사를 둔 BMC라는 의료기구 임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요반주기, 안마기, 골반교정기 등을 산 뒤 이를 임대해 수익금을 돌려주는 렌털 마케팅수법으로 서울 부산 경남 등 전국적으로 50여개 사업센터를 설치해 사업장을 넓힌 다음 ‘440만원의 안마기를 사면 그것을 각종 업소에 역렌탈해 하루 월금 2만 6천원과 배당금 9천원 등 3만 5천원을 166회에 걸쳐 통장에 입금해준다’고 속여 이런 미끼로 순식간에 투자자를 5만명까지 끌어들여 3만명의 투자자에게 3조 5천억원의 피해를 주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수익이 없었으며, 처음 투자자의 수익금을 다음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금융다단계 즉, 폰지 사기형태를 띤 불법금융다단계로 피해를 준 혐의

※ 출처: 2010년 2월 16일 뉴스포스트/ 중일일보/ 아츠뉴스/ 스포츠칸/ 한국일보/ 노컷뉴스/ 일요신문/ 2009년 3월 9일 시사IN LIVE/ 디지털시대 경제신문/ 쿠키뉴스/ 연합뉴스/

079번

김○○(36세) - 플로리다 주택 모기지 사기혐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김○○는 플로리다 부동산 경기가 붐을 이루던 2005년부터 허름한 주택을 구입해 공사를 한 뒤 자격이 되지 않는 바이어의 세금 기록을 위조하는 대가로 모기지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바이어를 내세워 모기지 용자를 받은 뒤에는 사기에 가담한 대가로 ‘수고비’를 지급하여 뇌물을 받은 은행 직원과 모기지 브로커 등과 결탁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판매

플로리다 템파에서 은행과 부동산 에이전트, 모기지 브로커, 감정인에게 뇌물을 주고 주택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규모 모기지 사기행각을 벌여 100여

채의 주택을 판매한 사기혐의

※ 출처: 2010년 6월 29일 미주한국일보/ 플로리다 한겨레저널/ 조지아텍 한국 학생회/ 파란뉴스/ 미디어 야후/ 미디어 다음

080번

이○○(53세)와 민○○(58세, 중국) - 부동산 모기지 사기대출

2007년 9월경 이○○와 민○○는 중국 ‘화푸오피스’ 건설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한다며 우리은행에 380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실무협의회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부동산금융팀장 천○○(47세)와 후임팀장 정○○(47세)는 대출 성사 대가로 시행사 주식 30%(180억원 상당)와 대출 하례금 62억원을 받기로 하고 각각 3회와 5회에 걸쳐 이른바 39억6000만원과 13억8700만원을 뇌물공여하여 대출을 받은 후 홍콩 현지의 유명회사에 623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모아 이 돈 가운데 201억원은 다시 국내로 들여와 이○○에게 120억원, 계열사 분식회계에 81억원, 중국에 아파트 2채(모두 72억원 상당)를 사들인 혐의

※ 출처: 2010년 11월 23일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미디어다음/ 미디어 파란/ 야후미디어/ 매일경제/ 네이버/ 헤럴드 경제/

081번

고○○(33세)와 여○○(30세) - 부동산투자사기

2010년 9월경 울산 달동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제 토지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터 등 80여명을 고용, 전화상담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경북 경주의 산업·관광 개발 예정 부지 1만9835㎡를 3.3㎡당 59만원에 분양한다.”며 현혹해 전모(여·60)씨 등 29명으로부터 1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기고 잠적한 혐의

※ 출처: 2010년 12월 24일 경찰일보/ 매일경제/ 네이버/ 미디어 다음/ 울산소식닷컴/ 울산종합일보/ 네이트판/ 울산매일모바일/ 울산포커스/

082번

양○○(63세)와 최○○(54세)외 7명 - **부동산 펀드** 사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양○○와 최○○외 7명은 부동산컨설팅그룹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을 부동산에 운용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실제 ‘제주 애월그린오션파크’ ‘형성골든에이지타운’ 등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개발예정지라고 강조했으나 이들 부지는 현재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고 형성 사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애초에 불가능한 땅이고 제주 사업지는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예정 부동산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 강원, 제주 등 10곳의 부지를 3년 안에 개발해 원금의 3~5배 이상 수익을 보장하고 개발이 무산되면 원금 및 이자 1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7,000여명으로부터 3,000여억원을 받아 챙겨 자금 중 1,000여억원을 직원들에 대한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돈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계회사 대여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

※ 출처: 2009년 12월 9일 아시아경제/ 조인스랜드/ YTN/ 한국일보/ 중앙일보/ 시민일보/ 조산닷컴/ SBS뉴스/ 파란뉴스/ 한국경제/ 서울경제/ 동아일보/ 서울21/ 미디어 야후/ 미디어 다음

083번

김○○(32세) - **부동산투자사기**

2005년 10월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김○○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은 자금이 없어 토지를 구입할 능력도 없고 대부분 보전임지, 농림지역으로 편성 건축허가를 얻을 수 없는 등 해당 임야는 펜션이나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으며 이 지역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였으며, 통상의 기획부동산 업체와 달리 회사 자금이 전혀 없이 땅을 판매하고 고객들에게 받은 돈으로 원지주에게 뒤늦게 땅을 구입하는 방식을 쓰는 등 허위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토지를 판매하게 하는 수법을 쓰는 한편,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등 건설 호재가 많은 땅이 있는데

펜션 부지로도 적합하다”고 홍보한 뒤 땅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7명으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4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 출처: 2006년 10월 31일 조인스랜드부동산 뉴스/ 중앙일보/ 매일신문/ 아
시아경제/ 미디어 다음/ KBS뉴스/ 야후 미디어/ VJ 특공대

084번

최○○(40세, 여)와 이○○(40세) - 부동산미끼 투자사기

2007년 5월경 최○○와 이○○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40억원으로 빌딩을 신축,
분양하려다 실패하자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주
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최○○(38·여)에게 가상의 극장설계도면을 보여주며
‘대형극장과 상가를 신축중인데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20%의 이익을 보장하
고 원금보장 조건으로 상가코너를 사전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선금 4억원을 받
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127명으로부터 15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 출처: 2008년07월02일 동양일보/ 미디어 야후

085번

이○○(33세, 남자) - 대규모 펀드 및 주식투자사기

피고인은 2007. 10.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내가 미국 텍사
스주 부시 대통령이 졸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A에서 1년간 인턴으로 근
무한 후 귀국하여 엘지투자증권에서 근무하였으며, 기관투자자들의 정보를 받아
일명 ‘작전주’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미국 투자전문회사인 A와 10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B자산, 주식회사 C펀드, 주식회
사 D펀드 등 해외 펀드회사에도 약 4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
고, 투자전문회사인 E인베스트먼트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등록을 하였으며, 내
가족 중에는 부산 및 경남 일원에서 3개 기업을 소유한 1,000억 원대 재력가가
있고, 가족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주식과 펀드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
으며, 투자를 하면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고, 짧게는 2일, 길게는 3개월 내에
최소 4%에서 최고 40%까지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미국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으며, 증권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A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거나 주식회사 B자산 등의 펀드회사에 투자한 바도 없고, 가족 중에 기업을 소유하는 등의 재력가가 없고,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등록을 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8. 18.경부터 2009. 3. 4.경까지 합계 2,147,275,4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07. 4. 24.경부터 2009. 4. 3.경까지 총 46명에게 자신의 허위 경력이나 배경 등을 내세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38,985,30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⁸⁰⁾.

086번

고수익미끼 영화관투자사기사례

피고인들은 부산과 울산 등에서 X-CUBE 영화관을 새로 개관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의 150%를 13주간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A, B로부터 각각 1,000,000원, 5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 및 C는 그 이외에도 2007. 1. 11.경부터 2007. 3. 9.경까지 총 1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118명으로부터 총 5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X-CUBE 영화관 개관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로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⁸¹⁾.

80)대판 2009고합292

81)부산 2009노3661

087번

분양권전매 투자사기사례

피고인은 투기과열 ○○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분양권이 소위 ‘물딱지’에 불과하여 분양이 불확실하고 전매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입주하게 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 외 9명으로부터 55억 4,85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김○○ 외 15명으로부터 49억 7,971만원을 분양권 양도대금 조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⁸²⁾.

088번

브라운 주니어(44)와 해리 드포노(66세)와 갈로파노(38세) - 시카고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모기지사기(Mortgage Fraud)사례

2007년 3월부터 바비 L. 브라운 주니어는 허위 용자 신청서와 가짜 부동산 감정, 주택압류 구조를 빙자해 주택 소유권을 빼앗는 사기, 모기지 관련 부도 사기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일리노이주와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등에 걸쳐 주택 183채의 용자를 사기로 취득했으며 이로 인해 렌더들이 입은 피해액은 2천400만 달러에 달했고, 해리 드포노는 시카고 변호사로 모기지 서류에 허위 정보가 담겨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으며, 신규주택 빌더인 매디슨 홈스 파트너십 공동 오너 제임스 갈로파노는 주택을 브라운에게 속은 구매자에게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한 뒤 브라운 일당에게 주택 매매 가격의 5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커미션을 제공한 혐의

※ 출처: 2008년 6월 26일 타운미주뉴스/ 미주한국일보/ 미주한인뉴스/ 미주국민일보/ 교차로 시카고/ 부동산 뉴스/ 미주국민일보

82)수원 2009교합69

089번

장○○ - 고수익보장 펀드사기 사례

2003년 4월 장○○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동업체는 법망을 피해 약 30일간격으로 ○○유통, (주)○○ 등으로 상호 및 대표자, 투자아이템을 변경하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 ○○유통 : 이태리 직수입 원단으로 가방을 제조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고이익을 낸다며 자금 모집, 1구좌 33만원 투자시 매일 1만원씩 45회 지급(년 294% 수익보장), (주)○○ : 파라핀(양초의 일종)을 이용한 대체에너지를 개발, 일본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식당 및 농촌 비닐하우스 등에 이를 공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낸다며 자금 모집 ⇒ 1구좌 100만원 투자시 4일 간격으로 12만원씩 10회 지급(년 182% 수익보장)한다며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4년 8월 30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국일보

090번

라메리크 - 모기지사기(Mortgage Fraud) 사례

2005년 5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메사추세츠 주 샤론 가의 라메리크는 모기지 사기와 관련하여 “Straw” 구입과 관련하여 과장된 가격으로 거래하였고, 제품가격, 차용자 소득, 고용 등 재산과 관련된 거짓 정보를 흘렸던 것인데, 실제가격은 25만 5천 달러 정도로, 과장된 가격과는 크게 상이한 가격이었다. 즉, 1백 9십만 달러 정도까지 폭등된 가격이어서, 1백 7십만 달러 정도를 라메리크 등 피고인들이 가로챈 혐의이며, 라메리크는 이러한 모든 불법적인 절차에 가담하여 피해를 입힌 혐의.⁸³⁾

091번

대출사기 사례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 마틴 가 38번지의 제프리는 일리노이 주 Cuyahogas

83) http://www.mortgagefraudblog.com/index.php/weblog/permalink/ninth_defendant_sentence_d_to_five_years_in_prison_for_his_role_in_large_sca/ 2010년 12월 21일 검색.

지역인 Shaker Heights, Cleveland Heights, Cleveland, Garfield Heights, East Cleveland, University Heights, Euclid, and Solon 등 총 8개 지역에 위치에 사기 대출을 받아 21채의 집을 구입하였으며 이러한 사기 행위는 사기 대출과 불법 착수금 및 뇌물을 통해 대출기관들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행위들이며, 대출 회사와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행해졌다. 마틴 지역에서 대출담당 직원처럼 행동했고, 대출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⁸⁴⁾

092번

Christopher Dubeau - 주식투자사기

2009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회사 CEO인 Christopher Dubeau는 Atlantis 회사를 운영하면서 플로리다 주에서 자기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과장 광고하여 Fort Lauderdale 市の Atlantis Technology Group 회사는 인터넷 TV와 비디오 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를 냈고, Quri Resources Inc. 회사는 광산 채굴회사로서 마이애미에 본사가 있고 에콰도르에 지사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회사 CEO인 Christopher Dubeau는 반복해서 Atlantis 회사의 주식을 폭등시켜서 시장에 팔아서 최소 24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⁸⁵⁾

093번

Jaime Santiago Gomez - 주식투자사기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회사 CEO인 Jaime Santiago Gomez는 채광에 대한 자세한 계획도 없고 금광의 가치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 주의 Quri Resources를 운영하면서 약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금광을 채광하는 작업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다. 아리조나 주와 에콰도르에서 3개월 안에 금광이 채광될 것이라고 공시 및 보도하여 주가가 폭등하자 회사 주식의 25만 달러치

84) http://www.mortgagefraudblog.com/index.php/weblog/permalink/fraudster_sentence_d_to_6_years_for_deceiving_lenders/ 2010년 12월 17일 검색

85) <http://legaltimes.typepad.com/blt/2010/09/sec-files-two-pump-and-dump-fraud-cases-in-florida.html> (2010.09.30. 기사)

를 팔았으며, 미등록 주식 매도로 인해 1만7천 달러를 벌어들이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⁸⁶⁾

094번

리차드 - 국제은행 사채거래사기사례

리차드는 사기성문서를 제공하면 정부연대에 의해 보장을 받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rivate Pool이라고 불리는 “국제은행 사채거래”라는 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0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1%를 환원을 받으며, 그 투자금은 2:1 비율로 정부연대에 의해 보장받는다. 뉴욕주의 금융 연대 안정보장 UCC-1에 의해 보장금도 받는다. Barclays Bank과 “international bank debentures” 협약이 연계되어 있어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속여 16개 주에서 8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2,0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⁸⁷⁾

095번

Tracy Calvin Dunlap - 개인연금투자사기

1999년 3월부터 2000년 8월까지 Tracy Calvin Dunlap는 남부금융그룹을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IRA(연금계좌)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매월 40%-50%의 고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들과의 미팅과 개인적 접촉은 “distributors”라 불리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담당했으며, 이에 속은 투자자들은 일정한 개인연금 계좌를 열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계좌로, 투자자들에게 1300만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⁸⁸⁾

86) <http://legaltimes.typepad.com/blt/2010/09/sec-files-two-pump-and-dump-fraud-cases-in-florida.html> (2010.10.20. 기사)

87) http://www.crimes-of-persuasion.com/Crimes/InPerson/MajorPerson/Prime/prime_examples.htm (2010년 11월 23일 검색)

88) <http://www.crimes-of-persuasion.com/Crimes/InPerson/MajorPerson/Prime/elfindepan.htm> (2010년 11월 22일 검색)

096번

2003년 한국인 김○○는 대만 모 의원의 대만 입법위원국회 비서인 평(馮)○○와 천(陳)○○는 타이베이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대만 정계 요인들과 찍은 사진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며 한국 정계인사들에게 타이베이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한국 정계인사 10여 명으로부터 5억 대만 달러(한화 160억 원 상당)를 김○○의 회사로 입금,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힌 혐의

※ 출처: 2005년 06월 29일 매일신문/인터넷 한겨레/ 네이버/ 미디어 다음/
KBS 뉴스레터/ 쿠키뉴스/ 연합뉴스/ 뉴스&칼럼/ 프레시안
김씨 사망

097번

배○○(35세)외 2명 - 기획부동산 투자사기사례

2008년 6월부터 2009년까지 배○○는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땅을 미등기전매를 통해 넘겨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부산과 울산에 ‘H개발’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사무실을 차린 뒤, 100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전국의 불특정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예정인 경북 포항시 장기면과 인접한 구룡포 일대 부동산을 구입해두면 땅값 상승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신들이 구입한 개발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분할매각해 고수익을 챙기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48명의 투자자로부터 38억 7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 출처: 2010년 5월 6일 한국일보/ 노컷뉴스/ 부산뉴스/ 부산일보

098번

김○○(36세) - 부동산 투자사기

2005년 12월경 평창군 임야 8만6천㎡는 현재 계약금 1억5천만원만 낸 상태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며,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더라도 개발이 금지되거나 이미 제한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정보지 등에 주부 전화상담원 채

용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주부들을 상대로 하거나 부동산 구입 자금이 없는 주부에게 텔레마케팅을 통해 땅을 팔게 하거나 친인척에게 땅을 사도록 설득하게 하는 수법으로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실시돼 땅값이 오를 강원도 평창군 일대 임야를 싼 값에 넘기겠다”며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9명에게서 땅값 등 명목으로 3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 출처: 2006년 10월 18일 중앙닷컴에이/ 네이버/ 미디어 다음/ 조선닷컴/ 이강릉/ 미디어 야후

099번

윤○○(50세)와 박○○(38세) -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2006년 4월경 윤○○와 박○○는 서울·부천·천안·광주 등에 기획 부동산 회사를 차려 놓고 30~100여명의 전화 통신 판매원(텔레마케터)을 고용해 친척·지인 등에게 땅을 사게 유도한 뒤, 땅이 팔리면 일정 비율로 성과급을 주는 등 다단계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충주시 호암동·직동, 수안보 온천 일대 야산 65만542㎡(19만7134평)를 1㎡당 평균 6800원을 주고 44억3천여만원에 사들인 뒤, 이곳이 한반도 대운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기념 공원, 기업도시 등으로 개발되거나, 수도권 전철이 연장된다고 속여 2년여만에 735명한테 269억5700여만원에 되팔아 5배 이상 차익을 남긴 혐의

※ 출처: 2009년 6월 30일 한겨레신문/ 네이버/ 중부매일/ 기독교정보넷

100번

기획부동산 대표 서○○(49세)와 분양대행업자 대표 강○○(38세)외 42명 - 대규모 기획부동산사기사례

서○○와 강○○외 42명은 기획부동산과 분양대행 회사를 운영하면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일대의 토지 138만9천㎡를 3.3㎡당 5천원 가량의 헐값에 매입해 12차례에 걸쳐 716필지로 분할한 뒤 대규모 토지분양 사기를 벌이기 위해 중앙일간지에 분양 광고를 내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인근 지역의 개발 여파로 지가 상승이 확실하다”는 내용을 부각시키고 토지 매입자에게 확신을 심어주

기 위해 불법으로 펜션 2개 동을 지어 현장을 찾은 토지 매입자에게 보여주는 등 펜션 및 전원주택 입지로 최적이라고 현혹시키는 수법으로 피해자 695명에게 10배가 넘는 5만~6만원에 매도하는 등 모두 147억 7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 출처: 2008년 1월 4일/ 한국일보/ 야후 미디어/ 조선일보/ 연합뉴스/ 미디어 다음/ 네이버

101번

휴면계좌 수수료 등 선불금요구 투자사기

2005년 3월경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P씨는 남아프리카은행 감사관 R이라는 자로부터 남아공 상공회의소에서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며 자신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외국인 명의 휴면계좌의 돈을 발견하였으니 이를 나누어 갖자는 메일을 받게 되었는데 “지난 10년간 A의 예금 1,800만 달러가 최근에 휴면 예금으로 바뀌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귀속될 예정으로 은행은 동 계좌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며 R은 이와 같은 은행 방침을 설명하며 계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정확한 정보는 자신이 알려줄 수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주소 등을 요구하였다. 또 자신은 은행 감사관이라서 외국인 계좌에도 자유롭게 송금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되며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당신이 보내온 일체의 서류는 파기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돈은 외국에서 함께 찾아 분배하자고 유혹하면서 수수료 등을 보내줄 것을 요구, 미수에 그친 혐의

※ 출처: 2007년 1월 30일 동아일보/ 유럽뉴스/ 주간경향/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 야후 미디어/ 미디어 다음/ 네이버

102번

유산분배 처리비용 등 선불금요구 투자사기

2004년 3월경 뉴욕에서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한국 ○○은행 감사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럽컨설팅사에 근무하던 M이라는 자가 미화 4,500

만 달러를 예치한 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면서 같이 인출하자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는데, L은 “M이 상속인이 없어 만기 5년 경과시 동 유산은 국고에 귀속된다”며 “이름과 계좌를 제공해 주면 상속 증명서를 작성한 후 20%의 수수료를 지불할 계획이니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제의하면서 처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요구, 미수에 그친 혐의

※ 출처: 2007년 1월 30일 동아일보/ 유럽뉴스/ 주간경향/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 야후 미디어/ 미디어 다음/ 네이버

103번

유산분배 처리비용 등 선불금요구 투자사기

2005년 4월경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L씨 등은 한국 ○○은행 신용 담당자 D라는 사람으로부터 최근 자동차 사고로 가족 전원이 한국에서 사망한 독일인 F의 3,100만 달러 유산을 인출, 분배하자는 메일을 받게 되었는데, D는 5년 내 한국으로 귀속될 동 유산상속 서류작성을 위해 성명·주소 등을 알려주면 25%의 사례비를 세계 어느 곳 계좌라도 송금해 줄 수 있다고 제의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요구, 미수에 그친 혐의

※ 출처: 2007년 1월 30일 동아일보/ 유럽뉴스/ 주간경향/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 야후 미디어/ 미디어 다음/ 네이버

104번

비자금 이체 등 선불금요구 투자사기

2005년 3월경 한국에 사는 A씨는 라이베리아 前대통령 경제고문이라는 B로부터 “대통령 통치자금중 일부인 1,500만 달러를 보관하고 있다면서 운송료로 10%를 지불하면 이 돈을 주겠다. B로부터 현금 1,500만 달러를 말레이시아로 송금하였으니 대리인을 만나 돈을 찾아가라”는 제안에, 이를 진실로 믿은 A는 말레이시아를 방문, 쿠알라룸푸르 인근 힐튼호텔에서 라이베리아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대리인 3명을 만나 현금 1,500만 달러가 든 가방은 물론 진폐 여부도 확인하였으나 이들은 “지금 당장 줄 수는 없고 말레이시아 통관절차를

마친 후 제공하겠다”며 라이베리아 정부 발행 납세증명서 발행비용 5만달러와 운송료 15만 달러 등 총 20만 달러를 요구하여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동 금원을 편취당한 사건

※ 출처: 2007년 1월 30일 동아일보/ 유럽뉴스/ 주간경향/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 야후 미디어/ 미디어 다음/ 네이버

105번

염색미화 약품비 등 선불금요구 투자사기

2006년 2월 시드니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한인동포 L씨는 사업차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였는데 현지 호텔에서 만난 가나인 R이 액체와 파우더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방법으로 염색미화 5백만 달러중 4천 달러를 원상회복시켜 환심을 산 후, 염색미화 400만 달러 원상회복을 위한 액체·파우더 구입 비용으로 3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6만 달러의 금원만 편취한 혐의

※ 출처: 2007년 1월 30일 동아일보/ 유럽뉴스/ 주간경향/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 야후 미디어/ 미디어 다음/ 네이버

106번

해외 복권 가입비용 선불요구 사기

2006년 3월 인천 거주 P는 캐나다 밴쿠버 소재 로또복권회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급에 따라 최고 1억 4천만 달러의 당첨금이 지급된다고 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P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50달러 정도는 당첨금에 비하면 푼돈이라 생각하고 보내온 가입신청서에 신원정보와 함께 가입비 50달러를 송부하였으나 가입비 등을 편취당한 사건

※ 출처: 2007년 1월 30일 동아일보/ 유럽뉴스/ 주간경향/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 야후 미디어/ 미디어 다음/ 네이버

107번

해외 복권 **당첨금 수수료 등 선불요구** 투자사기

2006년 3월 서귀포에 거주하는 주부 K는 「Canadian Lottery Board」 남아공 지역 사무소로부터 42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으니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보내달라며 이메일을 받은 후 당첨금이 남아공화국 「First National Bank」의 조건부 발행계좌에 예치되어 있는데 송금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며 3,000달러를 먼저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 출처: 2007년 1월 30일 동아일보/ 유럽뉴스/ 주간경향/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 야후 미디어/ 미디어 다음/ 네이버

108번

해외 **금 수입** 투자사기

2006년 3월 미국에 거주하는 K씨는 덴마크 교민 G로부터 탄자니아산 금 100kg을 암스텔담에 보관하고 있는데 국제 시가의 60%선에 구매하라는 연락과 함께 탄자니아 금 수출업자 E를 소개받았다. 탄자니아 금 수출업자 E는 탄자니아 경찰청장의 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경찰청장 부재시 자택을 함께 방문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이에 속은 K는 탄자니아로 가서 세관 통관시 금인 것을 직접 확인 하고 금 97kg 구입대금 35만달러를 지불하였으나 홍콩에서 수취한 것은 돌덩어리로 금원을 편취당한 사건

※ 출처: 2007년 1월 30일 동아일보/ 유럽뉴스/ 주간경향/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 야후 미디어/ 미디어 다음/ 네이버

109번

해외 **구리 수입 운송료 선불금** 투자사기

2006년 4월 경기 무역회사 G이사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 (B2B)를 통해 탄자니아에서 구리 7,000톤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잠비아에서 대규모 광산·제련소 견학 및 화물열차에 적재된 광물을 보고 운송료로 4만5,000달러를 지불하였으나 금원을 편취당한 사건

※ 출처: 2007년 1월 30일 동아일보/ 유럽뉴스/ 주간경향/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 야후 미디어/ 미디어 다음/ 네이버

110번

국내투자 유치비용 수수료 선불금 투자사기

2004년 9월 LA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인 J와 한인동포 L은 방한하여 한국내 건설업자 L에게 9,700만 달러 예치증명서를 보여주며 이중 5,000만 달러 정도를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며 주선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이에 속은 한국 건설업자는 아파트 시공자금 확보를 위해 이들 자금이 한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체제비 등으로 1억원을 지불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사건

※ 출처: 2007년 1월 30일 동아일보/ 유럽뉴스/ 주간경향/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 야후 미디어/ 미디어 다음/ 네이버

111번

물품수출 등록비 선불금 투자사기

2004년 12월 휴대폰 제조업체인 ○○사는 카메룬의 C사로부터 정부에 납품할 휴대폰 1,400만 달러 어치를 수입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접수받은 것을 기회로, 이를 아프리카 지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긴 ○○사는 적극적인 교섭에 나섰으며 이를 이용한 C사에서 휴대폰 정부 납품물품 등록비 5,000달러의 송금을 요청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사건

※ 출처: 2007년 1월 30일 동아일보/ 유럽뉴스/ 주간경향/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 야후 미디어/ 미디어 다음/ 네이버

112번

물품수출 선적요청 선불금 투자사기

2005년 3월 건설장비 수출업체인 ○○사는 이라크 소재 이탈리아 A사로부터 이라크 재무부 엠블럼 및 수출대금 지급보증서가 첨부된 2천만 달러 상당의 수

출계약 요청서를 접수받은 것을 기화로,

A사는 납품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계약 성사시 이라크 정부로부터 받게 될 대금 6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정식계약 이전에 우선 물품 선적을 ○○사에게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 출처: 2007년 1월 30일 동아일보/ 유럽뉴스/ 주간경향/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 야후 미디어/ 미디어 다음/ 네이버

〈부록2〉 언론기사내용분석조사표

(기록후 재범주화)

1. 사건번호 ()

2. 가해자의 성격

___ ① 개인 ___ ② 법인 ___ ③ 법인 외 조직 ___ ④ 기타

3. 가해자의 수 ()명

4. 가해자1의 성별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5. 가해자1의 나이 ()세

6. 가해자1의 직업

___ ① 전문직 ___ ② 관리직 ___ ③ 사무직 ___ ④ 판매서비스

___ ⑤ 생산직 ___ ⑥ 농어축산업 ___ ⑦ 무직 ___ ⑧ 기타

7. 가해자1의 국적

___ ① 한국 ___ ② 미국 ___ ③ 캐나다 ___ ④ 아프리카

___ ⑤ 중국 ___ ⑥ 일본 ___ ⑦ 영국 ___ ⑧ 대만

8. 가해자2의 성별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9. 가해자2의 나이 ()세

10. 가해자2의 직업

___ ① 전문직 ___ ② 관리직 ___ ③ 사무직 ___ ④ 판매서비스
___ ⑤ 생산직 ___ ⑥ 농어축산업 ___ ⑦ 무직 ___ ⑧ 기타

11. 가해자2의 국적

___ ① 한국 ___ ② 미국 ___ ③ 캐나다 ___ ④ 아프리카
___ ⑤ 중국 ___ ⑥ 일본 ___ ⑦ 영국 ___ ⑧ 대만

12. 가해자3의 성별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13. 가해자3의 나이 ()세

14. 가해자3의 직업

___ ① 전문직 ___ ② 관리직 ___ ③ 사무직 ___ ④ 판매서비스
___ ⑤ 생산직 ___ ⑥ 농어축산업 ___ ⑦ 무직 ___ ⑧ 기타

15. 가해자3의 국적

___ ① 한국 ___ ② 미국 ___ ③ 캐나다 ___ ④ 아프리카
___ ⑤ 중국 ___ ⑥ 일본 ___ ⑦ 영국 ___ ⑧ 대만

16. 피해자의 수 () 명

17. 피해자1의 성별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18. 피해자1의 나이 ()세

19. 피해자1의 직업

___ ① 전문직 ___ ② 관리직 ___ ③ 사무직 ___ ④ 판매서비스
___ ⑤ 생산직 ___ ⑥ 농어축산업 ___ ⑦ 무직 ___ ⑧ 기타

20. 피해자1의 국적

___ ① 한국 ___ ② 미국 ___ ③ 캐나다 ___ ④ 아프리카
___ ⑤ 중국 ___ ⑥ 일본 ___ ⑦ 영국 ___ ⑧ 대만

21. 피해자2의 성별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22. 피해자2의 나이 ()세

23. 피해자2의 직업

___ ① 전문직 ___ ② 관리직 ___ ③ 사무직 ___ ④ 판매서비스
___ ⑤ 생산직 ___ ⑥ 농어축산업 ___ ⑦ 무직 ___ ⑧ 기타

24. 피해자2의 국적

___ ① 한국 ___ ② 미국 ___ ③ 캐나다 ___ ④ 아프리카
___ ⑤ 중국 ___ ⑥ 일본 ___ ⑦ 영국 ___ ⑧ 대만

25. 피해자3의 성별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26. 피해자3의 나이 ()세

27. 피해자3의 직업

- ___ ① 전문직 ___ ② 관리직 ___ ③ 사무직 ___ ④ 판매서비스
___ ⑤ 생산직 ___ ⑥ 농어축산업 ___ ⑦ 무직 ___ ⑧ 기타

28. 피해자3의 국적

- ___ ① 한국 ___ ② 미국 ___ ③ 캐나다 ___ ④ 아프리카
___ ⑤ 중국 ___ ⑥ 일본 ___ ⑦ 영국 ___ ⑧ 대만

29. 피해자들의 특징

- ___ ① 사회경험이 없는 주부
___ ② 고수익에 현혹
___ ③ 농민들
___ ④ 사회지도층, 상류층인사, 권력층
___ ⑤ 재력가
___ ⑥ 동호회회원
___ ⑦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___ ⑧ 피해계층전체(상류/중류/하류)
___ ⑨ 탈북자
___ ⑩ 허위정보 맹신
___ ⑪ 서민들

30.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 ()세

31. 범행수법

- ___ ① 미끼 ___ ② 유인

32. 미끼수법 재분류

- ___ ① 유명인 동원

- ___ ② 사회저명인사와 친분으로 세과시
- ___ ③ 사회기업빙자 투자사기
- ___ ④ 고수익
- ___ ⑤ 허위사실 공지 및 유포
- ___ ⑥ 거액의 커미션 제의
- ___ ⑦ 수수료, 운송료, 등록비 등 요구
- ___ ⑧ 가입비 요구
- ___ ⑨ 유리한 조건의 무역제시

33. 미끼수법의 상세분류

- ___ ① 탤런트, 가수 동원
- ___ ② 정치인, 유력인사, 권력계층 등 동원/행세
- ___ ③ 연예인과의 친분 과시
- ___ ④ 상류층과의 친분 과시
- ___ ⑤ 부동산업 빙자
- ___ ⑥ 금융업 빙자
- ___ ⑦ 소액투자로 고수익
- ___ ⑧ 단기간 내 고수익
- ___ ⑨ 수익사업(해외양식 사업 등)
- ___ ⑩ 주식정보 부풀리기
- ___ ⑪ 부동산정보 부풀리기
- ___ ⑫ 회사정보 부풀리기
- ___ ⑬ 이민투자
- ___ ⑭ 통장계좌 빙자
- ___ ⑮ 비자금, 유산 등 빙자
- ___ ⑯ 연색미화
- ___ ⑰ 복권당첨 빙자
- ___ ⑱ 수출빙자
- ___ ⑲ 투자유치 빙자

___ ㉔ 무역거래 빙자

34. 유인수법 재분류

- ___ ① 해외 동산/부동산
- ___ ② 해외 금융(주식/펀드 등)
- ___ ③ 국내 동산/부동산
- ___ ④ 국내 금융(주식/펀드 등)
- ___ ⑤ 수익사업(국내사행사업, 벤처기업)
- ___ ⑥ 엔터테인먼트

35. 유인수법 상세분류

- ___ ① 해외 광산/부동산
- ___ ② 해외 학교
- ___ ③ 해외주식/선물/옵션
- ___ ④ 해외펀드
- ___ ⑤ 국내주식/선물옵션/비상장주식
- ___ ⑥ 국내펀드
- ___ ⑦ 코스닥 상장
- ___ ⑧ 외환거래
- ___ ⑨ 카지노
- ___ ⑩ 부동산 경매
- ___ ⑪ 재용자 주택투자
- ___ ⑫ 영화산업
- ___ ⑬ 부동산 구입
- ___ ⑭ 해외별목사업
- ___ ⑮ 해외리조트사업
- ___ ⑯ 회사투자
- ___ ⑰ 국내외 골프장 분양권

36. 사건의 유형

- ___ ① 폰지
- ___ ② 펌프앤덱프
- ___ ③ 역외 및 해외투자
- ___ ④ 프라임 은행
- ___ ⑤ 개인사기
- ___ ⑥ 나이지리아 선금금 사기
- ___ ⑦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37. 폰지사기의 상세분류

- ___ ① 금융다단계(주식/펀드/외환/선물/채권/사채)
- ___ ② 부동산다단계(아파트/주택/토지/경매물)
- ___ ③ 수익사업다단계(카지노/녹용/바이오/연료/회사 등)

38. 펌프앤덱프의 상세분류

- ___ ① 작전세력에 의한 주식 부풀리기
- ___ ② 스팸메일 등으로 주가 올리기
- ___ ③ 회사 정보 허위 공시

39. 탈세 및 해외투자 상세분류

- ___ ① 해외자원개발 투자명목 국내 자금을 부당 해외 유출
- ___ ② 해외 현지법인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조성한 자금 유출
- ___ ③ 조세 피난처 이용 해외 주식 양도차익 은닉

40. 프라임은행 상세분류

- ___ ① 주택가격 하락에도 투자회사 신용등급 숨기기
- ___ ② 매매가격 부풀리기
- ___ ③ 부당대출(은행직원과의 공모)

___ ④ 연금대출

41. 개인투자사기 상세분류

- ___ ① 부동산투자(토지/주택/광산/학교/회사)
- ___ ② 금융투자(외자유치/선물 등)
- ___ ③ 수익사업(공연/골프장/영화/금괴/광고사업/비자금/환전 등)
- ___ ④ 기타(이민투자 등)

42. 나이지리아식 선금금 사기 상세분류

- ___ ① 비자금/유산/휴면예금이체사기
- ___ ② 염색미화 이용사기
- ___ ③ 거액 외국 로또당첨 미끼 사기
- ___ ④ 금, 구리 수출사기
- ___ ⑤ 외국은행 자금의 대출과 투자유치사기
- ___ ⑥ 입찰, 수주 무역거래 이용 사기

43. 기획부동산 상세분류

- ___ ① 그린벨트 해제
- ___ ② 산업단지 조성
- ___ ③ 행정도시
- ___ ④ 특성화 단지
- ___ ⑤ 펜션, 전원주택 단지

44. 피해액수 () 만원

45. 가해자1의 형사처벌

- ___ ① 공소권없음
- ___ ② 미검

- ___ ③ 벌금형
- ___ ④ 집행유예
- ___ ⑤ 징역형

46. 가해자2의 형사처벌

- ___ ① 공소권없음
- ___ ② 미검
- ___ ③ 벌금형
- ___ ④ 집행유예
- ___ ⑤ 징역형

47. 가해자3의 형사처벌

- ___ ① 공소권없음
- ___ ② 미검
- ___ ③ 벌금형
- ___ ④ 집행유예
- ___ ⑤ 징역형

48. 가해자4의 형사처벌(가해자5부터는 사례가 없어서 생략함)

- ___ ① 공소권없음
- ___ ② 미검
- ___ ③ 벌금형
- ___ ④ 집행유예
- ___ ⑤ 징역형

49. 범죄발생 연도 ()년

50. 범죄발생 월

____ ① 1월 ____ ② 2월 ____ ③ 3월 ____ ④ 4월
 ____ ⑤ 5월 ____ ⑥ 6월 ____ ⑦ 7월 ____ ⑧ 8월
 ____ ⑨ 9월 ____ ⑩ 10월 ____ ⑪ 11월 ____ ⑫ 12월

51. 죄명1 ()

52. 죄명2 ()

53. 죄명3 ()

54. 죄명4 ()

55. 조직범죄 여부(유/무)

___ ① 있음 ___ ② 없음

56. 발생지

___ ① 한국 ___ ② 미국 ___ ③ 캐나다 ___ ④ 영국
 ___ ⑤ 독일 ___ ⑥ 일본 ___ ⑦ 대만 ___ ⑧ 중국
 ___ ⑨ 아프리카 ___ ⑩ 이탈리아

57. 대표적 기사 신문명 ()

58. 게재년도 ()년

59. 게재월

____ ① 1월 ____ ② 2월 ____ ③ 3월 ____ ④ 4월
 ____ ⑤ 5월 ____ ⑥ 6월 ____ ⑦ 7월 ____ ⑧ 8월

___ ⑨ 9월 ___ ⑩ 10월 ___ ⑪ 11월 ___ ⑫ 12월

60. 게재일 ()일

61. 신문전체 수 ()

62. 신문전체 이름 ()

63. 일간지 수 ()

64. 주간지 수 ()

65. 월간지 수 ()

66. 인터넷 수 ()

67. 뉴스 ()

68. 방송 ()

69. 기타 ()

70. 가해자 수

___ ① 1명 ___ ② 2명 ___ ③ 3-10명 ___ ④ 11-100명

71. 가해자1의 연령대

___ ① 10대 ___ ② 20대 ___ ③ 30대 ___ ④ 40대
___ ⑤ 50대 ___ ⑥ 60대 이상

72. 가해자2의 연령대

- ___ ① 10대 ___ ② 20대 ___ ③ 30대 ___ ④ 40대
___ ⑤ 50대 ___ ⑥ 60대 이상

73. 피해자 수

- ___ ① 1명 ___ ② 2-10명 ___ ③ 11-100명 ___ ④ 101-1000명
___ ⑤ 1001-10000명 ___ ⑥ 1001-40000명

74. 피해자1의 연령대(피해자2의 경우엔 유효사례가 없어서 생략)

- ___ ① 10대 ___ ② 20대 ___ ③ 30대 ___ ④ 40대
___ ⑤ 50대 ___ ⑥ 60대 이상

75. 피해금액 ()원

연구총서 10-25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발 행 / 2010년 12월

발행인 / 김일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5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 세진종합미술

(02)2277-3269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7,000원

ISBN 978-89-7366-874-8 93330